

행진

1986년 제 3 호
〈통권 198호〉

특 집 8·15 광복 41년

특별기고 :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공군력 운영

空 軍 本 部



금수강산

김 유 정 (강원 영동국교)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의 산엔

꿈고 곧게 자라난

나무가 있고

언제나 파아란

우리의 바다엔

평화로운 놀고 있는

물고기 있네

아름답고 따뜻한 우리의 마음도

평화롭기만 하네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

터없이 맑게 크는

우리의 내일。

— 제2회 어린이 호국백일장

입상작품 중에서 —



제 8 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86. 6. 22)



最新鋭 F-16 전투기 「필승 보라매」,
空中戦力 增強의 새 場을 열다. ('86. 6. 27)

『...最尖端의 무기체계와 火力을 동원함으로써 전쟁초기에 勝
敗가 결정되는 現代戰에서 制空權의 조기 확보가 初戰必勝을
保障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필승 보라매」의 就
役은 우리 空軍 전투조종사의 一當百의 전투기량과 함께 물
샅틈없는 領空防衛의 굳건한 礎石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대통령 각하 致辭 중에서 —

공군

차 례

1986년 제 3 호

(통권 제 198 호)

- 卷頭言.....李 殷 鳳(1)

特別 寄稿

- 韓半島의 安保狀況과 空軍力 運營.....金 仁 基(3)

論 壇

- 航空宇宙産業의 育成方策.....金 東 來(22)
- 韓國獨立戰爭論에 關한 研究.....李 男 珍(29)
- 西太平洋의 軍事情勢와 美國의 対応戰略.....李 善 浩(40)
- 政治的 亡命者의 國際法的 地位.....鄭 德 謨(46)

政訓 教育 資料

- 名譽心 / 너와 너의 이름을 빛내자.....김 봉 학(54)
- 병영생활 명랑화를 위한 장병상담과 선도.....김 동 익(59)
- 新植民主義論 批判.....현대이념비교연구회(65)
- 北傀 對南戰術의 變化樣相.....김 기 국(79)

將 兵 文 芸

수필

- 생의 조그마한 의미 / 신 준 상.....(87)

시

- 하늘에 올라 / 임 관 영.....(89)
- FALCON이 나른다 / 전 호 명.....(91)

特別企劃 8·15

- 民族史的 正統性 吳 光 錫 (93)
- 韓國知識人의 使命과 任務 李 炫 熙 (97)
- 第2의 光復으로 가는 길 馬 郁 (104)

軍 事 知 識

- 現代 化學戰의 特性과 對策 白 昌 雨 (110)
- 蘇聯의 戰略的 欺瞞 概念 任 忠 植 (117)
- 中공 전투기 개발추세 및 전망 최 양 수 (124)
- 고성능 항공방송장비 소개 서 효 창 (133)
- 베르린 공수(空輸) 이 귀 형 (137)
- 兵務行政에 關한 綜合的 理解 韓 錫 圭 (143)

教 養

- 의학 / 하절기 질병과 예방대책 이 태 용 (155)
- 戰史 / 不滅의 보라매 任宅淳 大尉 洪 性 範 (160)
- 음악 / 음악적 청취(聽取)능력 향상을 위한
諸方法의 考察 崔 仁 鳳 (168)
- 歷史 / 旧韓末 日·露의 38線 分割陰謀 박 현 증 (178)



필승 보라매(F-16) 命名式 ('86. 6. 27)



필승 보라매(F-16)의 위용



참모총장 프랑스정부 훈장 전수 ('86.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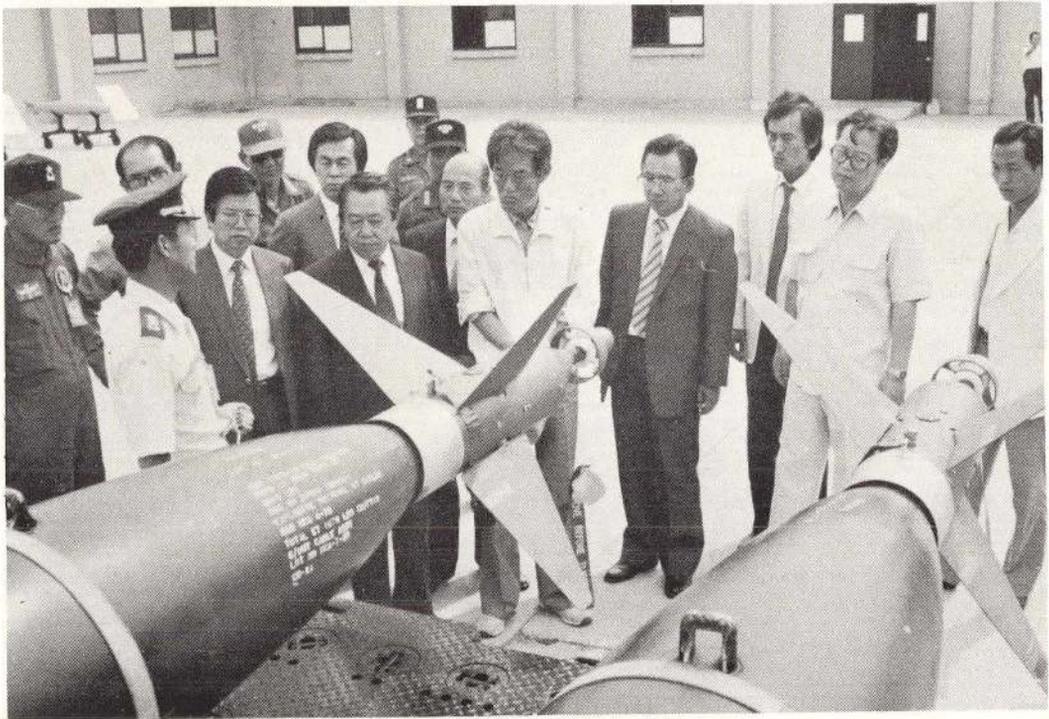


참모차장 취임식 ('86. 5. 31)



제 2 회 항공우주 심포지움 ('86. 5. 8~5. 9)

— 공군사관학교 —



언론인 부대견학 ('86. 6. 12~6. 13)

— 제 3579 부대 —



이태리 공사생도 한국 공군사관학교 방문('86. 7. 11)



6 · 25 제36주년 반공응변대회 ('86. 6. 7)

— 공 군 본 부 —



제 8 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 시상식 ('86. 6. 22)
— 공군사관학교 —



정신교육의 날 주제발표 시범 ('86. 6. 26)
— 제 5672 부대 —



生活 속에 具顯하는 愛國

政訓監
空軍大領 李 殷 鳳

“現代人에 있어서 愛國心이란, 첫째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優先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感情의 일시적인 噴出이 아니라 평생동안 確固하고 獻身的인 奉仕로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美國의 偉大한 政治家 스티븐슨(R. Stevenson)이 現代國家의 國民으로서 愛國하는 姿勢를 簡明하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옛부터 愛國하는데 男女老少, 賤貴의 구별이 없어, 나라가 患亂을 당할 때면 백성 모두가 하나로 뭉쳐 外敵과 災難을 克服해 왔던 슬기롭고 아름다운 傳統을 갖고 있다. 愛國殉節은 殉教과 함께 人間의 가장 崇高한 精神境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든 思想家, 歷史家가 입모아 말하거늘, 우리의 歷史 속에 이러한 忠節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은 韓國人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愛國하는 마음은 단순한 功名心과 달라서, ‘非凡보다는 平凡의 持續’으로, 마치 땅에 떨어져 있는 한 톨의 밀알처럼, 그리고 큰 지붕을 이고 있는 작은 주춧돌처럼, 日常 속에 나라와 겨레를 향한 獻身과 奉仕로 具顯될 때보다 값있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公職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 더우기 우리 軍人은 이러한 愛國 愛族의 價值觀을 항상 자신의 生活에 投影해 보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歐美先進 各國에서도 國民들에게 ‘生活 속의 愛國’을 教育하는데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抽象的이고 어려운 理想郷으로서의 愛國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分數를 지켜가며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게 하는 最善의 ‘自我實現’ 상태를 강조하는 教育이다.

近者에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國民精神教育도 이같은 脈絡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國民的인 團結과 民族的인 一體感 形成을 위해 汎國家的인 노력이 傾注되고 있는 이 때, 아직도 國家現實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한 채 外來文物·思潮의 無分別한 受容으로 말미암아 비록 少數일지라도 사회 一角에서 理念的 混亂과 葛藤을 惹起시킬 때 國家발전은 물론이고 우리의 生存과 繁榮마저 누구도 保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내외적인 갈등과 도전을 극복하고 先進 祖國을 創造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精神姿勢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이를 생활 속에 具顯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본다.

‘그 教育의 聖者인 ‘페스탈로찌’(Pestalozzi), ‘그룬트비히(Grundwig), ‘달가스(Dalgas)’가 그러하였듯이 ‘模範’과 ‘同行’의 實踐教育이 이러한 때 더욱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祖國守護의 신성한 使命을 안고 있는 우리 軍이 國民先導的 役割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데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하고 進取的이며 의지로운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模範將兵이 많이 나와 우리 兵營을 이끌어가고 祖國의 將來를 짊어질 때, 平和統一이라는 民族의 念願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特別寄稿

韓半島의 安保狀況과
空軍力 運營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mployment of Air Power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인 기

韓半島의 安保狀況과 空軍力運營



* 本稿의 內容은 지난 1986년4월 29일 김인기 공군 참모총장님이 미 공군협회(Air force Association)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주최된 범세계 항공우주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주제 발표 전문임.

1. 序 言

主題發表에 앞서 이와 같이 盛大하고 뜻있는 行事를 主催한 AFA(Air Force Association) 關係官 여러분께 敬意를 表하며, 卽·太地域의 空軍力 運用에 關해 意見을 나눌 수 있도록 本人에게 機會를 주신 AFA側에 感謝를 드립니다.

地域 全般의 安保와 空軍力 運用에 對하여는 Bazley將軍께서 이미 說明하셨기 때문에 本人은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極東地域에 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韓半島의 安保狀況

韓半島는 戰爭이 종식된지 36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 平和가 定着되지 못한 채, 不安定한 周邊情勢와 더불어 北韓共產勢力의 威脅으로 緊張狀態가 繼續되고 있습니다.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mployment of Air Power

1. Prefac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pay my sincere respects to all the members of the Air Force Association who prepared this exciting and significant event, and I thank the AFA for providing me with this opportunity to discuss the role of air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General Bazley has detailed the overall Far Eastern security situation and, in general, the employment of air power, I shall focus, in particular, on the Korean Peninsula.

2.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some thirty years ago that the fighting in the Korean War was halted by a military armistice. However, peace in a real sense has yet to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특히 韓半島는 세계에서 그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155마일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22만평방킬로미터의 좁은 面積에 南北韓間에 約 150萬의 正規軍이 서로 對峙하고 있어 武力衝突 可能性이 가장 높은 地域中의 하나입니다.

또한 韓半島는 地政學的 特性으로 周邊列強의 利害關係가 얽혀있는 곳으로서 韓半島에서 戰爭이 勃發時 世界大戰으로 飛火될 危險性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韓半島에서의 安定은 東北亞의 安全은 물론, 亞·太 全域에 걸친 自由陣營의 安全과도 直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國의 安保를 威脅하는 直接的인 要素는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입니다만, 北韓과 軍事同盟을 맺고, 北韓을 支援하고 있는 蘇聯과 中共은 韓國安保에 대한 潛在的인 威脅要素라 하겠읍니다.

특히, 蘇聯은 19世紀末부터 그들의 南進政策을 實現하기 爲하여 韓半島에 많은 關心을 가져왔읍니다.

Due to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n's communist forces, a state of elevated tension continues. An area covering only some 80,000 square miles, a total of 1.5 million troops of the two opposing regular forces of the South and North are confronting each other along a 155 mile Military Demarcation Line.

Such an unprecedented high degree of military concentration makes the peninsula one of the most conspicuous spots of potential armed conflict in the world. Because of its geo-political location, Korea has never ceased to be in a tug of war among the great powers surrounding it. In the event of an outbreak of hostilities on the peninsula, it follows that Korea would again become the focal point for confrontation between the super powers.

Accordingly,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related to the stability not only of the Far East and Pacific, but also the free world.

In the strictest sense, the north Korean threat is the direct factor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ROK. However, it must also be recognized that the Soviet Union and Red China are latent threat factors as they provide the support which fuels North Korea's belligerence.

Since World War Second, the USSR has expanded vast amounts of capital, energy, and manpower to extend their sphere of influence in the Far East southward. This is readily understood with only a cursory glance at a map. Should the Soviet Union control the whole Korean Peninsula, it would gain a warm water port, thus allowing freedom of movement for its Siberian based air and sea fleets. This eventuality would pose a very real danger to the free world forces of the region.

地圖을 살펴보면 明確합니다만, 蘇聯이 韓半島를 그들의 影響圈內에 넣을 수만 있다면 不凍港의 確保는 勿論, 연해주에 位置하고 있는 海·空軍勢力의 自由로운 活動이 韓半島를 거쳐 東南亞細亞와 나아가서 印度洋까지 膨脹하게 되어 地域內의 自由陣營에 큰 威脅이 될 것입니다.

最近 蘇聯은 北韓에 MIG-23, SA-3 및 SCUD誘導彈을 提供한 代價로 元山港에 蘇聯軍艦의 寄港權과 蘇聯偵察機 및 爆擊機의 北韓上空飛行權을 獲得하여, 我側의 軍事基地에 대한 偵察飛行을 繼續함으로써 北韓의 南侵挑發意慾을 鼓吹하고, 韓半島의 緊張을 加速化시키고 있습니다.

過去事例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北韓과 蘇聯의 軍事力 密着時 北韓은 挑發을 恣行하여 왔습니다. '60年代의 프예블로호 被拉事件, EC-121擊墜事件, 大規模의 非正規戰部隊 南派事態 등이 이를 證明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警戒해야 할 것은 蘇聯과 北韓의 密着으로, 蘇聯의 勢力膨脹政策과 北韓의 赤化統一目標가 相互 一致하여, 蘇聯이 北韓을 使喚, 代理戰爭을 惹起시킬 경우입니다.

한편, 北韓은 武力에 의한 韓半島 赤化統一을 絶對的 目標로 하여 中共 및 蘇聯과 等距離關係를 維持하면서, 軍事力を 增強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機甲師團을 새로이 編成, 開城周邊等 軍事分界線 附近에 前進配置하여 軍事力の 再配置 없이도 奇襲 攻擊을 자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is leads to the inescapable conclusion that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related not only to Southeast Asia, but to whole of the Pacific free world and its security and stability.

The Soviet Union has recently supplied north Korea with modern MIG-23 aircraft, SA-3 surface to air missiles, as well as SCUD ground launched missiles. In return, Soviet warships are paying port calls at locations such as Wonsan and are using north Korean airspace for reconnaissance missions.

The increasing number of overflights has clearly heightened tensions in the region as well as provided valuable intelligence data for the North.

As evidenced from the recent past, whenever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moved closer to a political alliance,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have followed by the North: the most notable of these being the Pueblo incident, the downing of an EC-121 aircraft and the insertion of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 guerrillas into the South.

Accordingly, we have to take extreme precaution against the close tie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 coincidence of Soviet expansionism and north Korea's scheme to communize the entire peninsula by military invasion stands reignite armed hostilities. North Korea, whose ultimate goal is to unify the peninsula through military provocation, has maintained a balanced polic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Red China. North Korea has steadfastly improved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established new mechanized armor and artillery corps formations deployed them in the frontline area along the DMZ. Through this forward redeployment of combat forces, they are now in position to mount a surprise preemptive attack without prior mobilization or troop predeployment.

특히 數的으로 越等히 優勢한 戰力을 保有하고 있는 北韓은, 우리의 予備戰力이 動員되고, 美國의 增援軍이 到着하기 以前인 5~7일 이내에 既浸透된 特殊部隊와 連結, 初戰에 戰勢를 決定지으려는 이른바 “5~7”일 作戰計劃을 세워 놓고 攻擊訓練을 強化하고 있어, 軍事的 緊張과 挑發威脅이 한층 高潮되고 있습니다.

또한 經濟力에 있어 越等히 앞지르고 있는 韓國이 國防力 強化를 推進할 경우 3~4年 後에는 南·北韓間의 軍事力 隔差가 顯著히 減少되고, '90年代에는 逆轉될 展望입니다.

따라서 北韓은 韓國의 軍事力이 北韓과 均衡을 이루기 前에 武力南侵을 敢行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基本路線을 變更하고 平和共存을 選擇하느냐의 岐路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北韓은 서울에서 開催되는 '86아시안 게임과 '88國際올림픽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積極 沮止, 妨害하리라 予想됩니다.

지난 4월 2일 서울에서 있었던 韓·美 安保會議에서 兩國 國防長官間의 一致된 判斷과 같이, 앞으로 數年間은 韓半島에서 北韓의 挑發可能性이 가장 높은 脆弱時期로 判斷됩니다.

Specially north Korea, which maintains numerical military superiority, has worked out a so-called "5 to 7 day strategy", and is intensifying the training of military units in offensive operations. This strategy was designed to conclude the war in its initial stage, before the mobilization of the reserve forces in South Korea and the arrival of the reinforcements from the United States can take place. Accordingly, military tension and the possibility of major provocations are now greater than at any other time.

The present prospect is that South Korea, which excels in economic power, will achieve military balance in three or four years, and following that, will achieve a military edge.

North Korea will have to decide whether they will continue their scheme against the South, before the South achieves military balance, or they must choose to co-exist in peace, discarding their basic policy line held thus far.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Pyongyang will attempt to obstruct this year's Asian Games and the summer Olympics in 1988, both to be held in Seoul.

As Defense Minister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firmed at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held in Seoul in early April, we expect that the next several years will be the most crucial period, a time when the possibility of provocation is very high.

3. 作戰狀況 및 空軍力 運營

南北韓 軍事力을 比較해 보면 北韓은 韓國에 比해 人口가 1/2이며, GNP는 1/4입니다만 GNP의 25% 以上을 軍事力 增強에 投入함으로써 優位에 있습니다.

北韓의 兵力은 우리의 1.2배이고, 戰車는 2.7배, 野砲는 2 배, 艦艇은 2.4배의 數的 優位에 있으며, 軍事力은 780台的 戰術機를 保有하여 韓國空軍의 1.7배로서 南北韓의 軍事力은 不均衡 狀態에 있습니다.

作戰与件을 分析하여 보면 韓國은 經濟力의 70%, 人口의 30%가 休戰線으로부터 불과 35Miles에 위치한 首都圈에 集結되어 있으므로 防禦縱深이 부족합니다.

더우기 北韓은 최근 그들 戰力의 65%를 이미 休戰線 附近에 配置함으로써 언제든지 現 位置에서 奇襲을 敢行할 수 있는 準備가 되어 있어,

戰爭을 有利하게 展開시킬 수 있는 主導權을 保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脆弱點을 利用한 北韓의 基本軍事戰略은 典型的인 電擊戰입니다.

그들은 모든 与件이 自己便에 有利하다고 判斷되면 優秀한 火力과 機甲戰力으로

3. Strategic Situation and Employment of Air Power

When we look at the peninsula as a whole, we see that north Korea has half the population of the South, but only one quarter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GNP).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orth spends over 25% of their GNP on military hardware and personnel.

North Korean troop strength is 1.2 times that of the South. They also have 2.7 times as many tanks than the ROK, and twice the number of artillery pieces. The north Korean air force comprises more than 780 tactical fighters, 1.7 times the number of ROK air force fighters. As this data shows us, the military power of North and South is in a state of unbalance.

A closer inspection of the South reveals we have some 70% of our economy and 30% of our population centered within the capital area of Seoul. Since to the DMZ lines only 35 miles to the north of Seoul, the small area and short distance complicate our defense strategy.

Further complicating this issue is the fact north Korea has massed more than 65% of its overall military resources in frontline areas along the DMZ. Using their expected

Tactics, the north would undertake a blitzkrieg type attack directed at our most vulnerable points. Employing this preponderance of military force, a surprise attack could be mounted and sustained by the North without further mobilization.

The ultimate goal of any campaign mounted by the North would be the

奇襲突破하여 首都圈 占領을 企圖할 것이며, 所謂 速度戰으로서 海外로부터 增援軍이 到着하기 전에 戰爭의 終熄을 企圖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北韓은 攻擊의 主導權을 가졌기 때문에 兵力과 裝備를 한 두 곳으로 集中하여 突破를 試圖할 것이므로 全 戰線에 分散配置되어 있는 防禦側로서는 대단히 不利한 것입니다.

敵에 비하여 不足한 防禦力을 補完하는 길은 融通性和 機動性이 優秀한 空軍力의 投入입니다.

따라서 開戰初期에 우리 空軍은 敵 地上軍의 攻擊을 沮止, 速度를 鈍化시킴으로써 우리 地上軍이 戰力을 再整備하고 豫備軍을 動員하여 反擊作戰의 機會를 造成토록 集中的인 CAS와 BAI 任務를 遂行하여야 할 것입니다.

即, 敵 地上軍의 浸透速度를 鈍化시켜 反擊作戰의 与件을 早期에 造成하고 美空軍 支援戰力의 成功的인 展開를 保障할 수 있는 狀況으로의 轉換이 敵의 正規戰 挑發에 対応할 수 있는 一次的인 課題인 것입니다.

地上軍을 支援하기 위하여는 물론 制空權이 確保되어야 하는데 이런 作戰들은 氣象만 좋으면 큰 問題가 없을 것입니다.

capture and occupation of our capital, Seoul employing the "5 to 7" plan which I referred to earlier.

Their aim would be to quickly, obtain control of Seoul, and thus the very lifeblood of South Korea, before reinforcement from abroad could arrive.

The primary problem in defending against such an attack is knowing exactly where, along such a massive front, the attack will be concentrated. Only through the employment of air power can we hope to fill this void and turn the tide of battle.

Accordingly, the early stages of the conflict will be earmarked with gaining and maintaining air superiority and with close air support and battlefield air interdiction missions to neutralize enemy ground troops and movements while our own forces are realigned, and reserves mobilized, to begin a counter attack.

The gaining of air superiority is the prerequisite to support of ground forces in a successful campaign, and we are confident this will be achieved.

However, operations in adverse weather and at night are areas where we need added capability. We must modernize to conduct continuous air operations in weather and at night, and then train our forces to accomplish them.

그러나 氣象이 不良하거나 夜間에는 問題가 있습니다. 따라서 全天候 및 夜間에 어떻게 持續的인 空軍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研究와 訓練이 必要합니다.

다음에 豫想할 수 있는 敵의 挑發은 AN-2와 美製 500 MD Hel機에 의한 非正規軍의 攻撃일 것입니다.

北韓은 10萬名에 달하는 特殊戰部隊를 保有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 韓國軍과 같은 服裝과 裝備를 갖추고 夜陰을 틈타 浸透하여 全 國土를 戰場化할 것입니다.

AN-2와 500MD Hel機는 速度가 느리고 Ground Masking을 利用 浸透하기 때문에 큰 威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低速, 低高度 航跡을 어떻게 捕捉할 것인가가 가장 큰 課題이며 이 問題가 解決되면 下方探索, 下方攻撃 武器體系로서 對備可能할 것입니다만 그 중 몇 %라도 浸透에 成功하여 特殊軍을 投下하면 많은 混亂이 惹起될 것입니다.

또한 北韓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을 複合 遂行할 것이 豫想되는 바 이에 대한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歴史를 돌이켜 보면 奇襲을 敢行한 側이 戰勝을 거둔 例는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奇襲을 당한 側의 國民의 忿怒가 高潮되어 敵愾心이 戰意를 드높임으로써 最後의 勝利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反擊을 할 수 있는 時間的, 空間的인 縱深이 있었습니다.

Without a doubt, our first priority in any conflict is to slow the enemy advancement. We must provide for an early counter attack and ensure a secure and successful deployment of U. S. augmentation forces.

In conjunction with this ground invasion, we expect the North to employ AN-2 Colt aircraft and helicopters to deploy special forces behind our lines to disrupt supply and communication centers.

With some 100,000 special forces troops using the cover of darkness and dressing exactly like our own forces, detection and neutralization will be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 AN-2 and helicopters are slow moving and capable of such low altitude operation.

Without this detection, interception is virtually impossible. This has become our most pressing problem, and one we are working daily to overcome.

With our present look down-shoot down capability, it is likely at this stage that some infiltrating aircraft will penetrate our defenses and deploy forces. We must counter this threat.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t is rare that an invading force has been the ultimate victor in any protracted conflict. The will to resist, and feeling of outrage among the citizens of the invaded country have led to a fighting spirit and desire to sacrifice which enabled the defending nation to overcome the initial onslaught and be the ultimate victor.

充分한 時間的, 空間的 여유가 없는 狀況에서 正規戰과 非正規戰을 同時에 敢行하여 오는 敵을 効果的으로 격멸할 수 있는 空軍力의 運用에 대하여 깊은 関心과 研究를 거쳐 새로운 教理가 發展되어야 할 것입니다.

韓半島 狀況에서의 가장 効果的인 처치는 敵의 奇襲을 事전에 探知할 수 있는 微候判断体制의 向上과 情報能力의 誇示로서 敵의 奇襲을 抑制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韓·美聯合으로 敵의 挑発微候를 事전에 探知할 수 있는 早期警報能力을 強化하고, Team Spirit와 같은 대규모 韓·美 聯合訓練의 規模를 擴大하며, 極東地域의 空軍力, 그중에서도 攻擊能力을 增強配置하는 것은 效率的인 抑制方案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空軍은 持統的으로 空軍力을 增強하여 北韓과 对等 또는 優位의 戰力을 確保하여야 하겠지만, 南·北韓의 軍事力 均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美国의 韓國防衛意志와 聯合戰爭 抑制力 및 防禦力으로 戰力上的 劣勢가 補完되어야 하 겠습니다.

4. 結 言

結論的으로 北韓은 与件造成時, 즉 韓國의 政治社会가 混亂되거나, 北韓内部情勢 및 美国의 對韓防禦意志가 弱화될 時 奇襲攻擊을 敢行하리라 判断됩니다.

However, here the key word is "protracted". When the North does cross the DMZ, their intention is to attack and penetrate quickly so as to preclude the chance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In the face of such an adversary, it is clearly evident why we need a more modernized air force maintained at a high state of readiness.

Here on the peninsula,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deterrence is the enhancement of our early warning and detection systems coupled with a demonstrated capability to employ these systems.

In addition, the continued cooperation of ROK-US forces through joint exercises such as the recently completed Team Spirit '86 and the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free world air power in the Far East will go far to further stabilize the region.

We of the Korean air force pledge to continue our efforts to expand our capabilities until a suitable balance with the North is achieved. However, in the interim, the continued augmentation and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is imperative. Only through our combined deterrent capabilities can we insure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4. Conclusion

As you have seen, the likelihood of the North coming South in the next few years is very high. A perception of weakness in our resolve to fend off such an attack provides the North with additional incentive for military aggression. Such indicators as political or social unrest in South Korea, a weakened U. 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gion or a highly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re all possible indicators of an impending military action.

韓半島의 安保는 東北亞 安全 및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에도 直結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戰爭再發 및 平和定着을 위하여 모든 努力을 傾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向後 2~3年은 韓國의 安保上 어려운 時期로서, 地域内の 友邦諸國의 積極的인 支援과 協助가 要求됩니다.

極東의 美空軍力은 더 增強되어야 할 것이며, 地域内 自由陣營間의 安保協力을 強化하고 聯合訓練을 통한 防衛意志를 誇示하여 韓半島를 비롯한 東北亞地域 安保에 다같이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The security of Korea is pivotal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that in turn is vital to world peace. We shall continue to do our utmost to ease tension, deter war and ensure peace in this region.

The next two to three years will be a very critical period for Korea from a security standpoint.

We must continue to demonstrate our defensive will through combined exercises. We should all strive to work together, not only for the security of Korea, but for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航空宇宙産業의 育成方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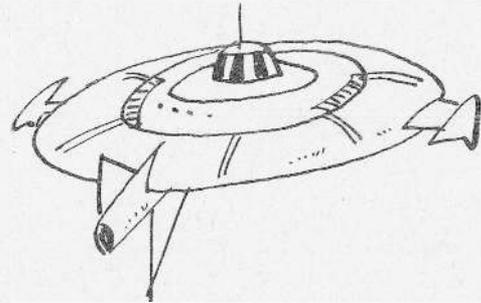


중령 金 東 來

공본 군참부

目 次

1. 序 言
2. 本 論
 - 가. 航空宇宙産業의 現況
 - 나. 美國의 航空機 및 航空機 部品の 檢査制度和 輸出入 堪航性 認定制度
 - 다. 航空機 部品 國産化 方案
3. 結 論



'83년에 14億弗의 研究開發費가 投資되었고 '84~'89년까지 6個年間 約 250億弗의 予算이 編成 推進되다가 켈린저號의 추락으로 計劃에 蹉跌을 가져 올 것이나 이러한 構想은 머지 않아 實現될 것이다. 이러한 防衛構想은 어린이의 공상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事項이 現代科學의 發達로 現實化되어 가고 있다.

1. 序 言

1983年 3月 23日 레이건 美國 大統領이 TV 演說을 통해 發表한 戰略防衛構想(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世稱 “별들의 戰爭(Star Wars)이라 불리우며 SDI가 具體적으로 推進되고 있음을 世上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計劃이

人類가 地球上에 存在하면서 戰爭이 없었던 時間은 불과 수분帶에 불과하며 이 瞬間에도 地球 도처에서는 戰爭樣相에 關係없이 繼續되고 있으며 未來에 展開될 戰爭은

過去와는 달리 地上, 海上은 勿論 海底 및 宇宙에서 보다 活潑하게 展開될 것이 分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分明하게 해주는 것은 近代에 들어 航空工業이란 用語 代身에 使用하고 있는 航空 宇宙産業이란 보다 포괄적인 内容이 담긴 將來의 計劃을 內包하고 있음을 意味하며 自國의 國力を 代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本 論說에서는 航空 宇宙産業의 意義와 現實態를 他國과 우리 나라와 比較 檢討, 美國의 航空機 部品檢査 制度와 輸出入, 堪航性 認定制度和 우리 나라의 加入 必要性을 檢討해 본 후 우리 나라의 航空 宇宙産業 育成方策을 考察해 向後의 發展方向을 筆者 나름대로 提示하려 한다.

2. 本 論

航空 宇宙産業은 原子力 産業과 함께 高度의 安全性, 信賴性과 品質保證이 切實이 要求되는 産業이다.

航空 宇宙産業의 育成을 爲해서는 航空機나 航空機 部分品の 海外輸出이 必須의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이들에 對하여 外國의 堪航認定을 받기 爲하여 各 企業體 自體的인 品質保證 뿐 아니라 体系的이고 全般的인 國家的 品質保證이 要求될 것이다.

이를 爲해 航空機 및 關聯 部分品の 設計, 構成에 對한 評價, 製作 完成品에 對한 品質 및 性能의 試驗檢査에 對한 것과 外國의 航空機 및 同部品에 對한 檢査制度和

方法을 相互比較하여 交易하는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航空 宇宙産業의 現況

(1) 國內現況

軍用機의 境遇 1970年代까지 最新銳 航空機를 包含하여 往復 航空機에 이르는 모든 廠整備나 大修理 作業과 同種機関 및 關聯補器의 再生(Overhaul)을 遂行하면서 그 能力을 伸張시켜오고 있으며 비록 部分的인긴 하나 設計變更에 關聯된 設計能力和 製作能力을 繼續 發展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自足性 確保側面에서 能力開發은 더욱 發展을 거듭하고 이에 隨伴되는 高級人力도 점진적으로 增加一路에 있으며 이러한 段階는 다음 圖表에서와 같이 創造的인 航空 宇宙兵器 製作에는 요원한 段階이나 餘他國家에서도 이러한 過程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 航空科學 兵器의 發達過程



國內 防産業體는 部品 國産化와 並行해서

完璧한 整備能力을 具備하여 国内 防衛産業 所要物量은 勿論 海外 物量도 상당량을 受注받아 注文에 応하고 있으며 K企業의 境遇 保有 機種의 整備能力을 完全保有하고 있으며 部品の 製作能力을 擴大하고 있으며, D企業의 境遇는 OFF SET PROGRAM 의 일환으로 航空機의 主要 骨格을 製作 및 組立에 応하고 있으며, D工業의 境遇 新素材로 脚光받고 있는 複合材料(Composite Material)의 製作, 加工能力을 지니고 있으며, S企業의 境遇 内部 탑재 電子裝備 및 各種 補器를 製作 納品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8 個企業이 部品の 製作, 組立, 加工 및 整備를 担当하고 있으며 이밖에 他社에서도 先進 航空 宇宙産業에 對한 認識과 関心이 漸次 高潮되어가고 있어 育成에 關한 国内 外的 関心이 集中되고 있다.

(2) 外国 航空産業의 現況

美國은 現在까지 技術面이나 生産規模 需要에 있어서 世界에서 가장 先頭國家이며 소련과 함께 航空 宇宙産業을 主導해오고 있고 各種 航空機 및 部品の 總 生産業체가 4千餘에 達하고 있다.

새로운 民間 航空機 開發에 必要한 予算의 25%를 政府에서 支援해 주고 있고 주로 民間資本에 依하여 開發된다.

美國은 全体 航空機 生産에 있어서의 民間 航空機의 占有率은 다른 나라에 比하여 높고 또 增加趨勢에 있어 比較的 軍需쪽과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民間 航空機의 販賣 市場으로써 占有率은 現在의 45% 程度에서 '90年代 末까지는 40% 程度가 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유럽을 보면 英國을 따르지 못했던 프랑스가 政府의 強力한 支援에 힘입어 지금은 유럽의 航空 宇宙産業을 主導하는 役割을 하고 있고 英國과 合作의 콩코드 超音速 旅客機, 垂直 離·着陸機인 HARRIER와 AIR BUS, TORNADO 등을 設計 製作하였거나 製作中에 있다.

유럽의 航空産業은 民間用 보다는 軍用機에 더 置重하여 왔기 때문에 大型 제트機의 境遇 全体 需要에 約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販賣量으로는 全体의 10%에 未達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이 多樣한 生産機種과 航空機를 特定國家의 航空社에 適合하게 設計하여 범용성이 不足한 것이 原因이 있으나 AIR BUS는 이 점을 改善하여 1979年 美國 BOEING社 다음의 受注 實績을 올릴 程度로 成功하였다.

1980年代에 들어서는 유럽의 航空機 生産은 巨額의 開發費를 한 국가에서 負擔하기에 甚차서 프랑스 主導下에 共同 生産方式으로 주로 開發하고 있다. 이 共同 生産方式은 美國의 航空 宇宙産業으로부터 유럽의 航空産業을 지키기 爲한 目的에서 始作되었고 市場確保에도 有利한 利點이 있다. 現在에는 大型 民間航空 分野에서도 共同開發方式이 利用되고 있는데 共同開發의 主導權, 生産担当部位에 따라 技術水準의 向上이나 該當國의 業界에 큰 影響을 주게 되므로 各國 政府에서도 強力한 支援을 하고 있다.

유럽에 對한 美國의 共同 生産方式으로는

日本과 伊太리가 参与한 最近의 BOEING-767의 例를 들 수 있다. 日本은 航空宇宙産業界에 가장 最近에 나타난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他工業에서의 日本의 急成長을 볼 때 航空産業 역시 例外가 아닐 것으로 予想되어 앞으로 美国이나 유럽에 対한 가장 強力한 競争國이 될 可能性이 크다.

그 以外에 自体 軍用機를 設計 製作할 수 있는 스웨덴은 美国과 共同으로 COMPUTER 航空機의 共同生産을 計劃하고 있으며 이미 AIR BUS에도 関与하였고 自体의 COMMUTER 航空機도 製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브라질, 캐나다, 호주도 自体의 航空機를 生産하고 있다.

나. 美国의 航空機 및 航空機 部品の 檢査制度和 輸出入 堪航性 認定制度

(1) FAA의 概要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現在 美国 交通省 산하의 獨立된 機構로써 民間 航空機 및 部品の 品質保證을 爲한 檢査 뿐 아니라 美国의 民間 航空宇宙 시스템의 安全性, 效率性 및 信賴性을 爲한 모든 業務를 管掌하며 새로운 航空機의 形式證明, 航空従事者(AIR MAN)에 對한 免許, 飛行場의 許可, 安全規定의 制定과 補強 또한 航空技術 發展과 飛行安全의 增進을 爲한 研究開發 프로그램도 促進 奨勵하고 있다.

檢査制度의 特性은 效率性和 經濟性을 들 수 있으며 重要한 檢査인 最初 航空機의 形式證明試驗 等은 FAA에서 主로 関与하

나 形式證明이 된 航空機는 FAA에서 委任한 製作会社 委任 檢査官(D. M. I. R : Designated Manufacturing Inspection Representative)에 依해 遂行되는 等 製作会社에 檢査業務를 많이 委任하고 있고 必要한 數 많은 檢査를 形式證明된 設計 等に 依하여 製作되었는지 与否를 監督하는 일과 그 会社의 品質保證 시스템의 解析과 檢討로 代身하고 있다. 即 航空機의 開發, 製作 檢査는 重要한 部分을 除外하고 製作会社에 일임하는 製作会社 中心制로 運營되고 있다.

(2) 美国의 輸出入 堪航性 認定制度

現在 美国은 24個國과 BAA(Bilateral Airworthiness Agreement)를 締結하고 있는데 BAA는 民間 航空機 및 部品에 對한 相互堪航性 認定協定으로써 生産業체側 政府의 管轄當局(Competent Authority)이 AERONAUTICAL PRODUCTS에 關한 法, 規定, 其他 要求條件과 輸入國側 政府가 規定한 附加 要求條件에 符合하다고 認定하면 輸入者側 政府의 管轄當局은 自國의 法, 規定과 其他 要求條件에 依해 合當하다고 認定하는 것과 같은 効力을 輸入品에 對해 賦与한다는 協定이다.

아직 우리 나라와는 이 協定이 締結되지 않았으며 締結國家와의 對象品目에 對한 內容도 多樣하다. 堪航性을 認定하는 部品을 CLASS別로 보면 CLASS I PRODUCTS는 組立된 航空機나 ENGINE, PROPELLER를 包含하여 이의 堪航性 認定은 "CERTIFICATES of AIRWORTHINESS"의 形式으로 發生되며 다음의 條件을 滿足해야

한다.

(가) 美国에서 製作되거나 使用된 航空機로써 美国의 堪航性 基準에 符合되거나 輸入국의 特別 要求条件(Special Requirement)을 滿足시켜야 한다.

(나) 使用된 航空機는 每年마다 形式檢査를 거쳐 FAR PART 43의 整備, 予防整備改造에 関한 規定에 依하여 再使用되고, 檢査는 輸出 堪航성이 認定되기 30日 前에 遂行되어야 한다.

(다) NEW ENGINE, PROPELLER는 形式設計와 一致하며 安全作動 条件이 있어야 하며 航空機에 装着되어 輸出되지 않는 境遇 即 独自の으로 輸出되는 境遇는 새로 再生(Overhaul)되어야 한다.

(라) 새로 製作된 航空機는 組立되어 試驗飛行되어야 한다.

CLASS II PRODUCTS는 CLASS I의 主要部品으로써 날개, 胴体, 降着装置, 動力 伝達装置, 操縦面 等 CLASS I의 安全에 큰 影響을 미치는 部分品이며 CLASS III PRODUCTS는 CLASS I 및 II에 包含되지 않는 部分品이나 AN, NAS, SAE 類의 標準部品인데 이들 CLASS II와 CLASS III PRODUCTS는 AIRWORTHINES APPROVAL TAG를 붙여 堪航性を 証明하는데 다음 条件을 滿足시켜야 한다.

1) 美国内에서 製作된 것이어야 한다.

2) PRODUCTS는 새로 製作되거나 새로 再生(Overhaul)하여야 하고 承認된 設計 資料와 一致하여야 하고 安全作動条件

에 있으며

3) 輸入국의 特別要求条件에 符合되어야 한다.

다. 航空機 部品 国産化 方案

(1) 航空 宇宙産業 發展 形式

通常 航空産業은 保有 航空機의 整備 修理 段階로부터 始作하여 라이선스 組立生産 및 部品 国産化, 下請製作, 共同生産(國際 分業) 過程을 段階別로 거치면서 窮極의 으로는 自体設計에 依한 自国型機의 開發 生産 段階에 이르게 되며 先進 航空 宇宙産業 国을 除外한 모든 後發国들은 開發 方法이나 生産 技術에 있어 類似한 過程으로 航空機産業을 發展시켜왔다.

앞에서 提示한 5 段階 整備修理 段階는 現用機의 運營, 維持, 管理 段階로서 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嚴密한 意味에서 生産을 對象으로 하는 實質的인 航空 宇宙産業의 着手는 라이선스 組立 生産 段階로부터 始作된다고 할 수 있고 이 段階를 通하여 航空産業을 營為해가기 爲한 基本的인 航空機 生産 技術을 習得하게 되므로 事實上의 技術蓄積 段階인 同時에 그 手段인 것이다. 日本의 境遇 그들은 航空 宇宙産業의 初期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組立 生産 方式을 通해 새로운 技術을 習得함으로써 日本의 航空機産業 水準을 向上시켜 온 것이다.

라이선스 組立 生産 段階는 航空産業 推進 過程을 通해 가장 重要한 段階인데 이 段階에서 반드시 部品 国産化가 並行 推進되어

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大端히 重要한 点으로써 万一 이 단계에서 部品 国産化가 並行 推進되지 않는 狀態에서 라이선스 組立 生産段階가 끝나면 다음 段階인 下請生産段階로 移行해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向後 育成은 阻礙하게 된다. 端的으로 育成을 爲한 가장 重要한 段階이다.

以前에도 言及한 바 있지만 이 段階에서 考慮要素로서 發展速度를 倍加시킬 수 있는 것은 라이선스 組立生産段階에서 部品 国産化 対象 部位 選定이다. 이 選定에 따라 發展速度를 左右한다.

(2) 部品 国産化의 必要性

航空機 部品 国産化의 必要性은 自主国防 体制의 提高, 經濟的 波及效果, 貿易收支均 衡 改善, 適正 産業構造의 維持 等 여러 가지 側面에서 檢討해 보면

(가) 時期的으로 볼 때 現時点이야말로 部品 国産化가 強力히 推進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미 500MD 헬기, F-5E/F 制空号 組立生産의 經驗과 技術이 많이 蓄積되었고 部品 輸出市場은 各国別로 成長路에 와있고 軍需要에 依한 戰力增強事業으로 直, 間接 OFF SET PROGRAM이 多少 提起될 수 있는 好機이다.

(나) 經濟的 側面에서 必要性은 航空機 部品은 多品種의 互換性 商品으로서 國際 分業化가 容易하여 우리 나라와 같은 後發 國이라도 一旦 外國에 比較하여 優位에 있는 特定部품을 生産하게 되면 世界市場에 進出할 수 있는 余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附加價值를 보면 航空機는 47%인데 比해 部品은 54% 쪽으로 部品이 相對的으로 높다. 이런 点에서 航空 宇宙産業의 育成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特히 最近에 BOEING社와 라이선스 生産을 하고 있는 日本의 境遇 自国内 事情으로 因한 人件費 上昇으로 因하여 初期 契約單價보다 上昇要因이 發生하여 終局的으로는 BOEING 747의 單價上昇을 招來하여 國際競爭力을 잃게 되어 오히려 우리 나라 防産業體와 活潑한 協商을 進行中에 있다. 이러한 面에서 우리 나라는 向後 世界의 部品 生産 國으로서 好機를 맞은 셈이다.

(3) 部品市場의 進出方式

航空機 製作社의 契約成立과 條件에 따라 市場進出이 左右된다고 判斷된다. 市場 進出方式은 政府 主導下에 OFF SET PROGRAM 方式과 部품을 生産하는 企業 自社의 自由競争 方式으로 大別할 수 있다.

OFF SET PROGRAM 方式은 企業自體만으로는 推進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必히 政府 主導下에 推進되어야 한다. 이 方法은 政府予算으로 航空機 또는 航空機用 資材를 外國으로부터 輸入時 代身 相對國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 生産部품을 購入케 하는 直接 OFF SET(Direct Off Set)과 技術 移轉이나 航空 宇宙産業에 關係없는 余他 分野를 一定額을 購入하는 間接 OFF SET(Indirect Off Set)의 形式이 있다. 例를 들면 호주의 境遇 次期戰闘機를 F-16 或은 F-18을 購買함에 있어 全体 金額의 40%를 OFF SET PROGRAM 條件으로 걸고 있어

이에 대하여 GENERAL DYNAMICS社와 McDoNNELL DOUGLAS社는 여러 가지提案과 더불어 航空宇宙産業의 必須素材인 타이타늄 製造工場의 建設과 製品의 購買保証과 알루미늄 生産技術과 余他の 提案을 하고 있다.

OFF SET PROGRAM의 成果는 国内外 政治, 外交, 軍事, 經濟力, 地理, 天然資源等 国力(National Power)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獨自的으로 航空宇宙産業 全體의 開發能力이 없고 外國으로 購入해야 하는 많은 나라들이 活潑히 推進하고 있는 市場 進出方式이다.

(4) 部品 供給業者의 選定基準 및 段階

基本的인 選定要素로써 財務狀態, 地理的位置, 契約·遂行能力, 信賴性, 製品의 品質, 製品 原価, 納期와 全體의인 顧客 對 供給者 關係 等を 考慮해야 되고 새로운 供給者를 選定하려면 供給者의 予備識別 段階, 供給者의 認可段階, 入札 및 契約段階를 거쳐야 하는 바 入札資格을 取得하기까지는 相當한 時日과 努力이 必要하다.

(5) 品質保証體系의 確立

우리 나라의 境遇는 商用 航空機(Commercial Airplane)의 境遇는 前節에서 言及된 바 있는 BAA에 加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國家 惑은 特定 機構에서 BAA를 加入하여야 하며 軍用機의 境遇는 MIL-SPEC의 適用을 받게 되므로 關聯 規格을 必須的으로 遵守하여야 한다.

3. 結 論

지금까지 航空宇宙産業의 意義와 現實態

를 他國과 우리 나라의 比較 檢討 美國의 航空機 部品 檢査制度和 輸出入 堪航性 認定制度和 우리 나라의 加入 必要性을 檢討하였고 우리 나라의 航空 宇宙産業 育成方案을 考察해 본 後 向後的 發展方向을 考察해 본 結果 航空機 機體, 機関 및 選定된 系統이나 構成品의 最終組立 및 試驗을 하거나 關心있는 新技術 伝受나 予備 構成品의 性格인 運營航空機 部品生産, 經驗이 있거나 保有設備로 生産possible한 世界市場 需要品目的 分業生産과 長期的으로 우리 나라 固有의 國產機나 改造機의 設計, 開發方式으로 集約할 수 있고, 이를 爲하여 民需物量은 極히 限定되어 있으므로 政府次元에서 비록 방대한 豫算所要가 마르고 危險性(Risk)을 안고 있지만 과감한 投資가 要求된다.

部品 國產化 方案은 參與하는 企業들이 部品 메이커로서의 資格條件을 具備하는 것이 先行條件이고 獨自的인 國產機 製作能力 確保를 爲한 大型 프로젝트가 推進되어야 하며 諸般條件을 考慮하여 嚴選된 部品에 限하여 專門業體를 養成토록 하며 外國의 技術保有 部品 메이커와 技術提携로 技術習得과 競爭力을 培養하고 結果的으로 國際市場으로 進出되어야 한다. 또한 次期 機種에 對한 早速한 프로젝트 推進으로 本格的인 部品 國產化를 期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政府次元에서 OFF SET PROGRAM을 強力히 推進하여 物量確保와 아울러 國際市場에 進出하여야 한다.

韓國獨立戰爭論에 關한 研究

— 1910年 前後,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을 中心으로 —



소령 李 男 珍
공군 정신교육원

* 本 研究論文은 筆者가 韓國精神文化研究院(부속대학원)의 碩士學位 (社會倫理專攻) 論文으로서 提出한 것으로 筆者의 양해下에 一部를 발췌 편집한 내용임.

目 次

1. 序 論
2. 義兵의 愛國啓蒙運動에 對한 認識
3. 義兵戰爭에 對한 愛國啓蒙運動團體의 二元的 認識
 - (1) 大韓協會의 義兵戰爭에 對한 認識
 - (2) 新民會의 義兵戰爭에 對한 認識

1. 序 論

開化期¹⁾의 民族運動²⁾은 衛正斥邪思想과 開化思想이라는 相反된 意識의 바탕에서 시작되었다.

衛正斥邪思想은 外勢의 침투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존의 가치질서를 보호하려는 自衛思想이었다. 따라서 衛正의 대상은 中華文化의 맥을 이어온 朝鮮의 文化였고, 斥邪의 대상은 洋夷라 불리운 西洋勢力과 西洋化된 日本이었다. 衛正斥邪思想은 이러한

華夷意識에 입각하여 西洋을 비판하고 尊王의 忠誠의 倫理를 강조하였으며, 乙未 丙午 丁未義兵戰爭으로 表出되었다.

반면에 開化思想은 西洋의 先進文物을 받아들여 産業을 振興시키고, 教育을 통하여 國民을 계몽하여, 부강한 近代民族國家를 건설하려는 사상으로서, 甲午更張 甲申政變 愛國啓蒙運動으로 表出되었다.

이와같은 思想的 바탕과 外勢에 對한 대응방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民族運動 사이에는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되

었다. 그러나 1905년 乙巳條約 이후에 전개된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은 비록 그 수행 방법은 달랐으나, 상실된 國權을 恢復하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고, 愛國啓蒙運動에 新民會가 등장하면서 종래의 대립적인 관계에 신축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 日本의 強占이 가까와 오면서 兩活動은 종래의 투쟁방법에 한계를 느끼고 보다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두된 것이 獨立戰爭論³⁾이다.

獨立戰爭論은 衛正斥邪의 法統을 이어받은 義兵將 柳麟錫과 開化思想을 바탕으로 愛國啓蒙運動을 주도했던 新民會에서 다 같이 구상되었는데⁴⁾, 柳麟錫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新民會의 구상은 독립운동기를 구축하고 무관학교를 건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그 실천과정에서는 결실을 보았다. 그리고 新民會의 獨立戰爭論을 기반으로 설립된 독립운동 기지에 많은 義兵들이 합류함으로써 1910년대에는合一된 獨立運動이 전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衛正斥邪思想과 開化思想間의 갈등도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10년 전후의 獨立運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첫째로 義兵戰爭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① 義兵戰爭의 개황이나 사상적 측면에 관한 연구⁵⁾, ② 義兵將 柳麟錫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義兵陣營에 관한 연구⁶⁾ 등이 있다.

둘째로 愛國啓蒙運動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① 愛國啓蒙運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⁷⁾, ② 愛國啓蒙運動團體에 대한 연구⁸⁾, ③ 啓蒙教育에 대한 연구⁹⁾, ④ 救國言論活動에 관한 연구¹⁰⁾ 등이 있다.

셋째로 1910년대의 獨立運動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① 만주지방의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관한 연구¹¹⁾, ② 만주지방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그 조직과 전투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¹²⁾,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전후의 獨立運動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獨立戰爭論이라는 論題로,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 양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며, 단지 愛國啓蒙運動의 입장에서 獨立戰爭論의 概念과 그 대두 경위에 관한 연구¹³⁾와, 新民會의 國權恢復運動의 일환으로 獨立戰爭論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¹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論文은 개화기의 사상적 표출인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 양면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獨立戰爭論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 1910년대의 독립운동이 그 이전과는 달리 합일되어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은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의 관계에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의 상호인식을 비교하되 특히 愛國啓蒙運動을 주도했던 大韓協會와 新民會의 義兵戰爭에 대한 二元的 인식을 비교하여 義兵戰爭이 新民會의 獨立戰爭論의 실천과정에 합일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

있던가 하는 점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柳麟錫이 구상한 獨立戰爭論이 실현될 수 없었던 요인과 新民會의 獨立戰爭論이 비록 國權恢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실천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 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알서 밝힌 바대로 1905년 乙巳條約 이후의 民族運動은 義兵戰爭¹⁵⁾과 愛國啓蒙運動의 양면으로 전개되었다.

義兵戰爭은 國權을 빼앗긴 이상 “成敗利鈍과 輕重大小”¹⁶⁾에 관계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日帝에 대결하자는 것이었고 愛國啓蒙運動은 民族의 힘이 日帝의 힘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人士들이 “堅忍耐久”¹⁷⁾의 뜻을 가지고 實力을 養成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兩活動간에는 그 主流에 있어서 對立的인 관계를 보였으나 新民會가 등장하면서 양자의 관계에 신축성을 보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후일 義兵戰爭이 新民會의 獨立戰爭論에 合一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기로 한다.

2. 義兵의 愛國啓蒙運動에 대한 認識

義兵戰爭을 主導했던 핵심집단이 保守的인 儒生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開化를 표방한 어떠한 活動에도 否定的이었으며, 討

伐의 대상인 賊으로 간주하였다.

柳麟錫의 문인으로 乙未義兵에 學義하여 싸우다가 戰死한 義兵將 安承禹는 의병의 구호는 오직 “討賊復舊”로 集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의 의리는 오직 적을 쳐서 옛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주를 삼을 뿐이오…¹⁸⁾

이처럼 義兵이 開化를 討伐의 대상으로 보고 옛 것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당시의 開化를 의미가 다른 開化 즉, 日帝의 침략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옛날의 開化는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룬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의 開化는 外夷를 끌어들이 우리 백성을 악하게 만들고 적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開化는 亡國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柳麟錫은 開化亡國論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구법이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지만 망국은 개화가 행하여진 뒤의 일이다. 말로는 개화라 했지만 그 행한 바는 국모를 시해하고 君父를 폐위하고 윤리와 법강을 문란케 하고 나라를 팔아 결국 나라를 망친 것이다. 구법을 행하여 나라가 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찌 개화해서 망국한 것만큼 심했겠는가²⁰⁾

開化에 대한 의병의 이러한 인식은 甲午更張후의 삭발의 반대에서부터 愛國啓蒙運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던 각종의 學會活動과 新式教育의 반대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開化運動을 배격하는 철저한 反開化主義로 발전하였다. 다음의 倡義歌는 애국계몽

운동에 대한 의병의 인식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大韓光武 甲午년에
 왜적이 침범하여
옛 법을 모두 고쳐
 開化하기 시작했네.
官제도 모두 고쳐
 衣服도 모두 고쳐
이리저리 몇년만에
 인심은 散亂하고
이웃 저웃 무슨 會가
 그렇게도 많은지
靑年會도 일어나고
 東洋會도 일어나고,
自強會도 일어나고
 皇國會도 일어나고
敎育會도 일어나고
 說敎會도 일어나고
學會도 일어나고
 一進會도 일어났네
保國安民 버려두고
 亂國亂民 웬말이나
세상이 이러하니

八道義兵 났네²¹⁾ (中略)

이러한 의병의 反開化主義는 구호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직접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開化를 부르짖으면서 日帝의 침략 정책에 가장 선도적으로 호응했던 단체가 一進會였다. 一進會는 이른 바 「自衛團」을 구성하여 의병탄압에 직접 나서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병의 대응은 단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一進會員이 의병의 공격으로

피살되었다. 당시 의병의 공격으로 인한 一進會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梅泉野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진회가 일제와 동침하여 자위단을 만들어 의병을 방어했다. 정미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일진회원 사망자가 9천 2백여명에 이르렀다.²²⁾

그리고 「大韓每日申報」도 1907년 7월부터 1908년 5월까지 一進會員 피해는 사망자 9,260명, 부상자 140명, 소작가옥 360호, 재산피해액 50,501원41전으로 기록하고 있다.²³⁾ 이러한 현상은 一進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병을 폭도시하는데 서슴치 않았던²⁴⁾ 大韓協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08년 9월 2일 全北 古阜郡 菑浦面에 있는 大韓協會支部를 습격하여 그 총무 金永寅을 砲殺한 것이 하나의 좋은 예이며²⁵⁾ 또한 新式學校를 소각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²⁶⁾

이처럼 의병은 開化運動을 추진하던 團體의 目的이 어땀었던 간에 일단 討伐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愛國啓蒙運動에 대한 義兵의 認識은 否定的일 수 밖에 없었다.

3. 義兵戰爭에 대한 愛國啓蒙運動 團體의 二元的 認識

가. 大韓協會의 義兵戰爭에 대한 認識

1906년 尹孝定 張志淵 등에 의해 조직되어 교육을 통해 국민을 계몽시켜 獨立自存의 기반을 닦으려 했던 단체가 大韓自強會이다. 그러나 大韓自強會는 민중의 손을 잡

고 과감히 투쟁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면서 지배층에 타협을 구함으로써 민중의 政治的 成長을 제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²⁷⁾ 그런데 自強회가 해산된 후 다시 前自強회 고문이었던 日本人大垣丈夫의 활동에 힘입어 1907년 11월 17일 자강회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大韓協會」가 출발하게 되었다.²⁸⁾

大韓協會의 人士들은 출발당시부터 日帝를 그들의 “友邦”으로 인식하고 있었고²⁹⁾ 그들의 추구목표나 방법이 어떠했던 協會指導部の 많은 인물들이 一進회가 조직한 「自衛團」을 지원하려는 이른바 「自衛團援護會」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協會의 總裁 閔永徽, 會長 張博, 副會長 吳世昌, 總務 尹孝定을 비롯하여 評議員 14명 중에서 張志淵, 李宇榮, 洪弼周 등을 제외한 10명, 그리고 일반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임원중 14명이 大韓協會 임원으로 創立總會(1907, 11, 17)에서 선출된지 일주일만에 自衛團援護會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³⁰⁾ 이로써 보아도 大韓協會가 創立당초부터 一進회와의 聯合說이 나돌았던 것과 동시에 점점 親日的 性格을 띤 團體로 轉落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大韓自強會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張志淵도 우리나라가 列強의 각축장이 되고 日帝의 侵略政策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義兵의 과격한 투쟁방법에는 부정적이었다.³²⁾ 尹孝定 역시 “時局과 國勢가 이러한 때 武力을 濫行하는 것이 我國의 소위 義兵과 淸國의 團匪와 같은 즉 스스로

망하기에 適足하여 결코 自強이라 할 수 없다.”³³⁾고 하여 의병전쟁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의병전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自強회가 해산되고 나서 大韓協會 시절에 와서도 의병의 전례없는 투쟁상황을 보면서 더욱 부정적으로 고찰되어 갔다. 尹孝定의 「大韓協會의 本領」이란 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現今 各地에 蜂起한 義兵에 대하여는 그 精神인즉 愛國하는 衷情에서 出한다 하는者 不無하나 其行動을 論하면 소위 祖國의 思想으로써 反히 祖國을 斷喪하는 者로 認하여 本協會는 其行動에 대하여 非議를 執하노니 何者요 現今의 政治運動은 世界列強의 同情如何함을 先察하고……我的 行動이 國家前途에 여하한 영향이 波及함을 計慮치 아니하고 義名暴行을 敢為하면 國家를 深淵에 濟陷하여 極救할 方法이 無하기에 至할까 是懼하는 故로 本協會는 義兵의 精神에는 諒察이 有하나 義兵의 行動에는 絶대적 非議를 執하여 速히 진정하고 國民의 四業에 各歸함을 切望하는 同時에…… 全國義兵 首領에게 警告하여 曰 本協會는 國家의 利害休戚을 雙肩에 擔負하고 設立한 者인즉 國家의 前途는 本協會에 一任하고 速히 暴行을 中止해야 各自 本業에 從事하고 正當한 國民의 權利를 確守하라 하겠소.³⁴⁾

이를 要約하면 義兵의 그 精神은 인정하나 國家를 위한다는 行動이 오히려 國家에 害를 끼칠까 염려되니 모든 것을 大韓協會에 一任하고 各自 本業에 돌아가라는 뜻이다.

그런데 大韓協會에 참여하여 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고 있던 近代 知識人들이 이와 같이 義兵戰爭에 否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심한 소요로 인하여 국가의 장래에 해를 끼칠가 염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의병(1907년의 丁未義兵)의 실질적인 세력이 부유층을 공격 차단하고 反封建的要求를 강하게 表出하고 있던 農民이었다는 점이 더 큰 要因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⁵⁾ 일례로서 大韓協會 木浦支會長인 金奉圭란 者가 1909년 4월 20일 상경하여 당시 會長 金嘉鎭에게 全南義兵의 實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全南地方은 目下 폭도창궐이 심해져서 各種業者는 거의 廢業倒産狀態에 놓여있고 糊口에 궁한자는 그 수호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窮民은 不得已 폭도의 무리에 몸을 던져 그 生을 이어 가려는 실정이다. ……이 상태가 영속한다면 全南地方은 완전히 우리 同胞의 自滅을 초래할 것이다. 하루 속히 평은상태로 복귀시킬 良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³⁶⁾

이로써 보아도 大韓協會가 당시에 의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韓協會는 노골적으로 의병을 폭도시하는데 서슴치 않았고 그 진압책을 건의하기도 하면서 의병진압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日本側에 제공하기도 하였다.³⁷⁾

이처럼 義兵과 大韓協會가 다같이 國權恢復을 위한 民族運動을 전개하면서도 적대관계에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양 계층의 상호 이해기반과 사상이 전혀 다른데다 大

韓協會는 創立 당초부터 親日的 性格을 띠고 출발하였고, 실제로 日帝의 침략세력과 타협해 가면서 끝내는 親日團體로 轉落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新民會의 義兵戰爭에 대한 認識

같은 愛國啓蒙運動을 전개하면서도 大韓協會 人士들의 義兵觀이 否定的이었던 것과는 달리 新民會에 참여한 人士들의 義兵戰爭을 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었고 또 실제로 의병전쟁에 참여한 人士도 있었다.

新民會는 자신들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韓每日申報」를 기관지로 活用하고 있었는데 후일 新民會의 總監督이 된 梁起鐸이 主筆이 되고 英國人 베델을 社長으로 추대하여 日帝統監部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新民會가 創建되면서 大韓每日申報의 論說委員과 社員들이 거의 新民會員으로 가입하였다.

大韓每日申報는 강력한 論說을 통하여 日帝의 침략책동 및 日帝에 의해 괴뢰화한 李完用政府 그리고 親日團體 一進會의 賣國行爲 등을 상세하게 폭로 규탄하였다. 그리고 反日義兵戰爭과 그 義兵將들, 保護條約에 반대하여 자결한 前職高官과 儒生들, 伊藤博文을 사살한 安重根과 李完用을 刺殺하려다 미수에 그친 李在明의 事跡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反日意識을 고취시켜 나갔다.³⁸⁾ 특히 1907년 8월 이후에는 義兵戰爭에 대하여 별도의 “의병소식란”을 만들거나 “지방소식” “雜報” 등을 통해서 各地에서 일어난 義兵戰爭을 그때 그때 보도하여 은

연중에 日帝에 대한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의병활동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大韓每日申報가 義兵戰爭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을 간추리면 李殷瓚 全海山 李康年 許蕤 李麟榮 등 義兵將들의 檄文이나 判決文 宣告내용 처형소식 등과 각지방에서 봉기한 90여명에 이르는 義兵將들의 拳義내용, 그리고 지역 觀察使와 義兵將간에 주고 받은 公函全文 등이다.³⁹⁾

大韓每日申報가 이처럼 義兵戰爭을 고무하고 反日鬪爭意識을 고취시켜나가자 이에 당황한 日帝는 1909년 4월 29일 이른바 “新聞紙法”을 改惡 公布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外國에서 발행하는 韓字新聞 또는 外國人이 國內에서 발행하는 韓字新聞 (大韓每日申報를 뜻함: 필자註)으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교란시킨다고 인정되는 것은 内部大臣이 해당신문을 내외에서 발매·반포를 금할 수 있다.⁴⁰⁾

이 新聞紙法에 의해서 많은 신문이 압수되었다. 1909년 1년간의 신문압수현황을 보면 여섯 종류의 신문이 압수되었으며 압수된 총부수 21,037부 중 大韓每日申報가 16,514부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더구나 국내신문중에서 압수된 것은 大韓每日申報뿐이었다.⁴¹⁾ 이로써 보아도 당시에 公布된 新聞紙法은 大韓每日申報를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大韓每日申報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압수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⁴²⁾

(1) 국권회복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보호에

반대하고 음으로 양으로 반기를 들도록 고취하는 것.

(2) 일본의 보호를 가리켜 한국을 병탄할 것이라고 모략하여 일반 韓人의 반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3) 근거없는 낭설을 전파하여 인심을 혼란케 하거나 또는 일을 과대하게 선전하고 국민을 분개시켜 官의 시설을 방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

(4) 국권회복에는 국민의 공동일치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단체의 조직을 장려하는 것.

(5) 국권회복에는 문명의 개화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신교육의 보급을 창도하는 것.

(6) 블라디보스톡을 한국인 국권회복 단체의 근거지로 삼을 것을 고취하는 것.

(7) 암살자를 義士라 칭하고 그 사상의 고취에 노력하는 것.

(8) 폭도를 가리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원하는 것.

압수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大韓每日申報는 日帝의 侵略政策을 폭로하고 國權恢復을 위한 國民의 團結, 文明開化를 위한 新教育 唱導, 安重根義士의 思想 고취, 그리고 義兵戰爭의 성원 등 思想的 背景이나 鬪爭方法上的 相違를 불문하고 汎國民的 抗日鬪爭 意識을 고취시켜나갔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獨立鬪爭論의 일환으로써 블라디보스톡에 國權恢復을 위한 기지건설을 고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日帝는 安重根을 暗殺者, 義兵을 暴徒라 부르면서 大韓每日申報의 救國言論活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大韓每日申報가 이처럼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러 줄 수 있었던 것은 英國人 베델이社長으로서 방파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신문의 편집·경영면에서 主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梁起鐸 朴殷植 申采浩 林蚩正 安泰國 등이 모두 新民會員이었기 때문이었다.

新民회는 國權恢復을 위하여 武力行事도 구태여 기피하지 않았기 때문에⁴³⁾ 일부 人士는 義兵戰爭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 李東輝 安重根 등이 그들이다. 李東輝는 舊 韓國 軍隊의 參領으로서 解官된후 江華에 普昌學校를 세워서 教育活動에 힘써 왔다. 1907년 군대해산으로 강화진위대가 해산되면서 해산된 軍인들이 義兵들과 합세하여 一進會 출신 郡守 정경수를 처단하고 강화성을 장악했을 때 하사출신 柳明圭와 함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⁴⁴⁾ 李東輝의 이러한 行跡을 볼 때 그의 의병 참여는 軍人이라는 出身成分과 武力도 불사하는 新民會의 노선이 國權恢復을 위한 方法에서 義兵戰爭과 一致點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安重根이 新民會員인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는 新民會의 創立者인 安昌浩의 “促 二千萬同胞之奮起”라는 계몽연설을 듣고 깨달아 國權恢復運動에 헌신하기로 맹세하고

鎭南浦에서 敦義學校와 三興學校를 세워 愛國啓蒙運動에 종사하다가 義兵戰爭을 하기 위하여 露領으로 망명하였다.⁴⁵⁾ 安重根은 망명 이후 露領 煙秋를 근거지로하는 柳麟錫 李範允 義兵部隊의 義兵將으로 활약하다가 伊藤博文을 사살한 후 체포되어 公판정에서

나는 義兵의 參謀中將으로서 獨立戰爭을 하여 伊藤博文을 죽이는 것도 參謀中將으로서 계획한 것으로 도대체 이 범원 公판정에서 심문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⁴⁶⁾ (방점은 필자)

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安重根은 新民會와 깊이 관련되어 新民會의 “獨立戰爭論” 채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⁴⁷⁾ 義兵戰爭과 愛國啓蒙運動간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新民會는 大韓協會나 기타 다른 愛國啓蒙運動團體들이 義兵을 暴徒視했던 것과는 달리 義兵의 武力鬪爭을 동조하고 성원했을 뿐만 아니라 의병전쟁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고 武力使用을 鬪爭方法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思想的 相違를 극복하고 후일合一된 獨立運動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註 解 釋

- 1) 開化期의 기간설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開化期를 1876년부터 1910년까지로 설정한 具範謨教授의 견해에 따랐다. 具範謨, “開化期의 政治意識 狀況” 「韓國政治學會報」 3輯(韓國政治學會, 1969), p. 134 참조.
- 2) 여기에서 民族運動이라 함은 “異民族에 대한 民族獨立運動이며 民族解放運動”이라는 趙芝

薰教授의 견해에 따랐다.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 「韓國文化史大系」 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p. 558 참조

- 3) 獨立戰爭論이란 “만주지역에 항일무력투쟁을 위한 근거지를 건설하여 실력을 기른후에 적절한 기회를 포착, 일제와 獨立戰爭을 전개하여 國權을 恢復한다”는 理論體系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구한말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인사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 같다. 특히 1910년 전후에 日帝軍警이 작성한 민족운동 탄압문서에 그런 말이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安重根事件公判記(註46參照)나 新民會事件判決文(註96參照)을 보면 “獨立戰爭을 하여 國權을 恢復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4) 新民會는 獨立戰爭이란 말을 사용했으나 柳麟錫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柳麟錫의 구상이 獨立戰爭論의 概念(註3參照)에 부합되기 때문에 獨立戰爭論이란 論題에 柳麟錫의 구상을 포함하여 고찰함을 밝혀둔다.
- 5) 中夷鎬, “韓末義兵의 概況” 「史叢」 1 (1955).
金義煥, “韓末義兵運動의 分析” (韓日文化) 2 (1962).
“의병운동의 사상적 측면” 「韓國思想」 8 (1972).
朴成壽, “1907~1910年間の 義兵戰爭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제 1 집 (1968).
——, “舊韓末 義兵戰爭과 儒敎의 愛國思想”, 「大同文化研究」 6, 7 合집 (1970).
姜在彦, “反日義兵의 歷史的 展開”, 「韓國近代史研究」 (서울: 한밭, 1982).
윤병석, 「의병과 獨立軍」,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7).
- 6) 李東宇, “義兵將 柳麟錫의 義兵運動考” 「成大士林」 2 (1977).
金度亨, “毅菴 柳麟錫의 政治思想研究”, 「韓國史研究」 25 (1979).
金世主, “毅菴 柳麟錫의 反開化論”, 「慶州史學」 1 (1982).
金厚卿, “毅菴 柳麟錫의 學問과 思想”, 「史學研究」 34 (1982).
李求鎔, “韓末義兵運動研究-江原道를 中心으로”, 「史叢」 19 (1975)
- 7) 李鉉淙, “舊韓末政治社會團體考” 「金斗鍾博士 古稀論叢」 (1966).
- 8) 李鉉淙, “大韓自強會에 대하여”, 「震檀學報」 29, 30 合집 (1966).
——, “大韓協會에 관한 研究”, 「亞細亞研究」 8 - 3 호 (1970).
愼鏞度, “新民會創建과 國權恢復運動” (上, 下), 「韓國學報」 8, 9 集 (1977)
- 9) 孫仁鍊, 「韓國近代民族敎育의 理念研究」, (서울: 文音社, 1983).
車京守, 1905~1910年 敎國民族敎育展開에 관한 研究” 「敎育史學研究」 16 - 1 (1978).
- 10) 趙恒來, “韓末民族紙의 抗日論調研究” 「亞細亞學報」 13 (1983).
李海暢, “韓末國權恢復運動과 民族言論” 「韓國史學」 2 (1980).
- 11) 朴永錫, 「韓國民族獨立運動研究」 (서울: 一潮閣, 1982).
姜在彦,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문제”, 「한국근대사상사연구」 (서울: 한울, 1983)
元義常, “新興武官學校”, 「新東亞」 1969년 6월호,
尹炳奭, “1910년대의 韓國獨立運動”, 「韓國近代史論」 II, (서울: 知識產業社, 1977).
金義煥, “滿洲에 있어서의 初期 獨立戰爭의 考察”, 「李 瑄根博士 古稀紀念論文集」 (1974).

- 12)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編), 「독립운동사」 제 5 권 독립군전투사(상), 1975.
민족문화협회(編), 「독립군의 전투」4, 1967.
- 13)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14) 愼錦廈, “新民會의 創建과 國權恢復運動”, 「韓國學報」9 집, (1977).
- 15) 義兵의 拳義에 대하여 흔히 “義兵運動”과 “義兵戰爭”의 두가지로 부르고 있다. 義兵의 討伐 대상이 開化運動도 포함되지만 주된 대상이 日帝였고, 그 방법이 武力的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義兵戰爭”으로 부른다.
-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檄告八道列邑”, 「독립운동사자료집」1, 1971, pp. 87-88 참조.
- 17) 「大韓每日申報」, 光武10年(1906) 5月30日.
-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독립운동사자료집」1, 1971, p. 374.
- 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沈南一實記”, 「독립운동사자료집」3, 1971, p. 569.
- 20) 其雖曰 舊法亡國 亡國在行開化後也 曰爲開化 而所爲也 弑國母 廢君父 乖倫常敗法綱 喪國而至於國亡 使爲舊法而亡國 豈有甚於開化之爲亡國也.
“宇宙問答”, 「毅菴集」(下)卷 51, p. 538.
- 21) 畿左倡義將行軍歌. 윤병석, 「의병과 독립군」(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 39에서 재인용.
- 22) 一進會通謀于倭 創自衛團 以禦義兵 自丁未七月至今年五月 會員死者 九千二百餘人. 「梅泉野錄」卷 6 隆熙元年(1907) 丁未十月條, (國史編纂委員會, 1955), p. 439.
- 23) 「大韓每日申報」, 隆熙 2年(1908) 6月16日 雜報 참조.
- 24) 國史編纂委員會, 「大韓獨立運動史」I, 1965, pp. 399-400 참조.
- 25) 「大韓協會報」7, p. 59 참조.
- 26) 朴成壽, “1907年~10年間の 義兵戰爭에 대하여”, 「韓國史研究」1 집 (韓國史研究會, 1968), p. 132 註71 참조.
- 27) 權熙英, “大韓自強會의 社會思想과 民族運動”, 「海軍第二士官學校論文集」2, 1980, p. 165.
- 28) 李鉉淙, “大韓協會에 관한 研究”, 「亞細亞研究」8-3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p. 21.
- 29) “大韓協會趣旨書”, 「大韓協會報」1, p. 5.
- 30) 黑龍會編, 「日韓合邦秘史」上, (東京: 原書房, 1969), pp. 374-393 참조.
- 31) 李鉉淙, 前揭論文, p. 23 참조.
- 32) 張志淵, “過去의 狀況”, 「大韓自強會月報」11, p. 2 참조.
- 33) 尹孝定, “本會의 趣旨와 特性”, 「大韓自強會月報」1, p. 21.
- 34) 尹孝定, “大韓協會의 本領”, 「大韓協會會報」, p. 47.
- 35) 朴成壽, 前揭論文, pp. 136-137 참조.
- 36) 朴成壽, 前揭論文, p. 130에서 재인용.
- 3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I, 1965, pp. 399-400 참조.
-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崔海淸編, 「大韓每日申報拔萃錄」(大邱: 靑丘大學出版部, 195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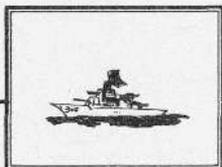
- 39) 崔海淸編, 上揭書, pp. 42-72참조.
- 40) 朝鮮總督府, 「朝鮮 保護及併合」, 1912, p. 61.
- 41)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I (東京: 原書房, 1967), pp. 109-110참조.
- 42) 金正明編, 上揭書, p. 110.
- 43) 愼鏞廈, “新民회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上), 「韓國學報」8 (서울: 一志社, 1977), p. 46참조.
- 44) 張錫奎, “韓國末義兵運動의 性格研究”, 「軍史」8号(1984.6) p.241 및 島山紀念事業會編, 「島山安昌浩」(1953), pp. 45-46참조.
- 45) 萬壽祠保存會編, 「義士安重根伝記」, 1963, pp. 51-53참조.
- 46) 國史編纂委員會, 「安重根公判始末書第一回」, 「韓國獨立運動史」資料6, 1967, p. 313.
- 47) 愼鏞廈, “新民회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下), 「韓國學報」9 (서울: 一志社, 1977), p. 156참조.

힘 찬 도약!

굳건한 단결!

영원한 전진!

西太平洋의 軍事情勢와 美国의 対応戰略



李 善 浩

국방대학원 교수

저 서

- 核武器와 核戰略 (법문사 1982)
- 国防行政論 (고려원 1985)

목 차

1. 威脅의 出處는 소련, 월맹 그리고 북한이다.
2. 美国의 安保公約은 신실성이 있는가?
3. 美国의 軍事戰略은 우방국들의 役割分担을 강조한다.
4. 맺 는 말

1. 威脅의 出處는 소련, 월맹 그리고 북한이다.

西太平洋의 地圖를 펼쳐 놓고 보면, 캄차카에서 캄푸치아에 이르는 全海岸線이 한국연안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평양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이 서태평양지역에 있어 소련의 基本戰略일진대 소련은 이 해안선을 연한 그들의 출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海·空軍力을 강화하고 있

으며 서태평양 전역을 엄호할 수 있는 지상유도탄기지도 확장 일로에 있다.

自由陣營에 대한 域内の 威脅樣態는 소련, 월맹, 그리고 북한 3 나라에 의한 海上交通路 遮斷, 인접국가 침공 및 심리적 위협과 더불어 군사·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해·공군력은 새로이 획득한 월맹과 캄푸치아에 있는 기지를 발판으로 남지해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을 통하는 모든 항로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만일 域内の 海上交通路가 차단된다면, 일본, 한국, 대만 등 공업화국가들은 유류와 식량 그리고 원자재의 도입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의 극동에 있어서 항공공격 능력은 괄목할 만한 향상을 가져 왔으며, 소

런 태평양함대는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하지만 약 90척에 달하는 공격잠수함 세력은 가장 강력한 그들의 해상 잠재력으로서, 미국의 항공모함, 잠수함 그리고 민간상선에 대항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잠수함과 폭격기들은 전술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20기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탄(SS-20)이 전구 핵전력의 일부로서 시베리아 일대에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 SS-20은 사거리가 3천마일 이상인 복수탄두로 장비되어 있으며, 중공, 일본, 한국, 필리핀 전역을 사정권 내에 넣고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들을 주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의 소련 군사전략은 극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攻勢的 守勢戰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域内の 그들 해·공군력은 원칙적으로 東시베리아와 오프크海의 방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아류산열도 일대에서 초개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해군 대잠세력을 견제하면서 오프크海에 잠항하고 있는 美本土攻擊用 戰略潛水艦의 방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소련의 공격 잠수함,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들이 유사시에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외부 증원군 투입을 차단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월맹은 兵力數에 있어서는 80만

과 100만의 大軍으로서 세계 제 6위와 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련과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大量奇襲 南侵戰略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그들의 최초 군사목표는 前線에 배치된 한국군의 주력섬멸, 수도 서울탈취, 미증원군의 추가 투입 저지 등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북한은 현재 중·소의 지원없이도 단독으로 수개월 간 치열한 공격주도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침공예고 가능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한 그들이 노리는 결정적 시기는 韓·美聯合軍의 효과적인 대응능력이 약화된 때 일 것인 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을 끈질기게 획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월맹은 일부 미군장비와 다수의 소련제 신예장비로 무장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동남아의 무법자이다. 중·월전쟁에서 소련의 도움으로 미국과 더불어 대소 공동전선을 형성하려는 중공에게 판정승을 거둔 바 있는 월맹은 지속적인 소련의 군사지원하에 라오스와 캄푸치아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태국에게까지 심각한 침공위협을 주고 있다.

2. 美國의 安保公約은 신실성이 있는가?

最近 이러한 위협과 관련하여 機內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치는 상징(Symbol)과 인지(Penception)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안보공

약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우방은 종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 이는 몇 해전 사이공 함락당시와 한국에서 미육군 제2사단의 일부를 철수시켰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1978년 이후(카터 대통령이 11/2戰略을 1戰略으로 축소시켰다가 西太平洋에서 고조된 위협을 인식한 나머지) 워싱턴 당국이 취한 조치는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존속시키고, 주한미지상군 철수를 취소하는 등 획기적인 것으로 우방의 이탈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범하였던 것이다.

즉 서태평양에 전개된 해·공군력을 현대화하고, 3번째의 핵항모를 제7함대에 배치함으로써 2개의 항모타격부대를 서태평양에 상주시키고, F-16신예기 2개 대대를 일본에 전개하는 등 인상적인 노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과의 빈번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월명의 군사적 압력이 고조된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에 미국이 무기를 긴급 투입하여 긴장상태를 완화시킨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회의적인 요인이 없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몇몇 동아시아 정부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西太平洋에서 역할분담을 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날 일본의 軍國主義가復活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이 東아시아보다도 페르시아만에 대한 공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공간의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공에 이전한 군비와 군사기술이 북한이나 일부 동남아국가들을 괴롭히는 분란분자들이 군사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과민반응이라고 하겠다.

아 물론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닌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방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가. 域内の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군사위협(위협세력의 구조와 전쟁수행 잠재력)

나. 미국의 군사적 顯示(전개된 군사력의 형태와 기지구조)

다. 미국의 방위전략(기본적인 가정, 태평양전략의 범세계적 맥락, 전쟁수행목표, 미군의 임무 등)

라. 複數任務와 公約(東北亞와 西南亞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전략적 선택문제)

마. 미국의 우방 및 맹방의 역할분담(미국의 전략구조상 우방국가들의 역할 담당 의지와 능력)

3. 美國의 軍事戰略은 우방국들의 役割分擔을 강조한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서태평양에서의 미·소간의 분쟁이 全地球的의 戰爭의 일부분이 될 것이나, 서구나 페르시아灣에서의 싸움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란 가정에 바탕

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군사력의 前方展開, 自足性, 그리고 機動性을 강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은 中共과 台灣을 聯合戰力構造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기타 역내 자유진영 국가들의 좀더 큰 방위 기여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NATO와 같은 체제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역내 자유진영 해양국가들의 힘을 단합·재정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내에서 미·소분쟁이 야기될 것에 대비하여 미국의 평시 임무는 주요 海·空路를 통제 확보하고, 시베리아로부터 태평양으로 뻗어 나올 소련의 세력 투사를 차단함으로써, 소련의 선제 기습공격을 거부하되, 전시엔 소련의 제1격을 흡수하여 海·空戰을 장기화함으로써 지구력과 연합지원 잠재력이 큰 서방측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과 그 연합세력의 역할분담 임무는 다음 3가지가 될 것으로 본다.

가. 對潛戰에 의한 主要 海上統制(미 제 7함대의 대잠항공기와 공격잠수함이 広域 海上방어의 주력을 이룰 것이며, 하와이에서 동아시아해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에 대잠세력을 집중 투입한다).

나. 소련태평양함대의 3出国封鎖(有事時 쇼야, 쓰가루, 쓰시마의 3海峽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기뢰설치를 비롯하여 대잠항공기와 공격잠수함의 집중사용으로 가능

해진다).

다. 航空防禦(소련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이륙하여 태평양방어선을 돌파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방어를 위한 전략은 휴전선에서 불과 25마일 이격되어 있는 서울에 대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 배치된 야포화력의 집중포격, 미항공모함과 일본 및 필리핀 그리고 괌도에 위치한 전술항공기의 대량지원, 추가적인 지상지원군의 투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페르샤灣의 사태가 발발할 때는 태평양전역을 작전 책임지역으로 맡고 있는 美 太平洋司令部는 최소한도 東·西太平洋에 있는 전 해상세력을 망라하여 3~4척의 항공모함, 괌으로부터 다수의 B-52 중폭격기, 필리핀으로부터 다수의 전술항공기, 그리고 태평양에 배치된 다수의 대잠항공기를 페르샤灣으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西太平洋은 일시적으로 힘의 공백이 생길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複數任務 수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西太平洋에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조지타운대학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밝히고 있다.

- ① 일본의 방위와 일본 및 한국에 이르는 항공·해상접근로 방어
- ② 한국의 방위

③ 남방해상교통로 및 항공수송로 개통·유지

④ 태국의 방위

이와 관련하여 일본북방이 소련의 항공돌파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한 나머지, 일본은 P-3C 대잠기를 증강 배치하였으며, 남으로는 1,000해리 해로방어를 미국의 지원하에 분담하고 있으나, 전시에 소련의 태평양진출통로인 3해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뢰부설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공동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캄차카반도 일대의 소련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의 항공폭격을 위해서는 태평양 전역에 배치된 6척의 항모가 총동원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국방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MIG-23과 유도탄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야기된 남북한의 심한 항공전력 격차를 고려할 때, 미국의 대량항공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괌도에 있는 B-52폭격기와 가용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이 주한미공군과 한국공군을 적기에 증원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남방해상 및 항공교통로의 방호를 위한 요건은 3가지가 있다. 첫째, 필리핀기지를 적의 항공기 및 잠수함발사 순항유도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둘째, 동북아 해협을 개통 유지해야 하며, 셋째, 월맹의 소련군사기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미국의 항공 및 대잠세력은 이러

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상당 규모의 현장 방공 및 대잠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태국과 월맹의 군사력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서 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세안제국의 협력과 중공의 영향력 행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내에서 미국과 그 우방을 위한 방위부담은 점점 커져 가고 있으나, 미군사력 구조의 제한과 잠재적 취약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소련의 군사력 팽창은 월맹과 북한에 의한 국지적 위협을 지역적 위협으로 바꿔 놓게 되므로 말미암아, 지역적으로 통합된 대응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내 우방들과 관계 증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역할분담 노력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①태평양 세력으로 남으려는 결의
- ②대일 안보협력의 증진
- ③한반도 안정을 위한 공약이행
- ④중공과의 지속적인 전략적 유대강화
- ⑤안즈스(Anzus) 동맹체제 유지

4. 맺는 말

요컨대 미국의 서태평양에 있어서 평시의 군사력 전개는 역제를 포함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적절히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대략적인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지화된 우발사태에 있어서 맹방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내에서의 複數任務負擔은 특정 지역에 대한 임무의 축소를 뜻하는 모순을 가져 오게 된다. 소련이 同時多務的이고 多戰區戰爭 지향적인 전략을 획책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미국의 제한된 전력으로는 동시다발 사태에 균일한 보복이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쟁수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능률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전략의 양자택일을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방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미국의 입장은 국지적 내지 지역적 전략보다는 세계적 내지 전지구적 전략이란 맥락에서 대소대결 전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페르시아灣의 긴장도에 따라 스윙전략의 대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대소정책을 힘, 현상주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레이진

대통령의 和戰兩面戰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서태평양에 대한 안보공약은 유동성과 모호성을 완전히 불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미국의 서태평양에 있어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소련과 월맹 그리고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에 달려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힘과 의지 그리고 우방국가들의 자위력량 증대 및 집단안보를 지향한 협력에 따라서도 가변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현 위치를 견지하기 위한 의무와 능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명제가 조화적으로 수용됨으로써 그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 ① 전력규모의 확대
- ② 해외공약의 현상유지
- ③ 군대개혁 및 정예화
- ④ 맹방과의 군사적 분업도모

민족의 영광 겨레의 도약

政治的 亡命者の 國際法的 地位



대
위
鄭
德
謨

공
본
법
무
감
실

目 次

- I. 머리 말
- II. 政治犯의 地位
 - 1.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
 - 2. 政治犯罪
 - 3. 加害條項 等
 - 4. 結
- III. 政治的 難民의 地位
 - 1. 領土의 庇護
 - 2. 外交의 庇護權의 問題
 - 3. 3件의 中共機 事件
- IV. 맺 음 말

I. 머리 말

一般的으로 政治的 亡命者라 함은

첫째, 本國에서 政治犯罪을 犯한 까닭으로 訴追되어 이것을 免하기 위하여 逃亡해 온 자, 即 明白히 政治犯에 該當하는 者,

둘째, 政治犯罪을 現實的으로 犯 하지는 않았으나 政治的 壓迫을 받고 身辺의 威脅을 느껴 逃亡은 者,

셋째, 身辺의 威脅을 느끼지는 않으나 政治的 信條를 달리함으로써 外國에 逃亡해 온 자로 区分할 수 있는데 둘째, 셋째의 경우는 이를 묶어 政治的 難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政治犯과 政治的 難民은 그 國際法的 地位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바, 다음에서 政治的 亡命者가 外國의 領土에 들어 온 경

우 어느 정도 保護받을 수 있는가를 中心으로 略述하고자 한다.

II. 政治犯의 地位

1. 政治犯不引渡의 原則

國際法上 犯罪人引渡(Extradition)는 他國家의 犯罪人이 自國에 逃亡하여 왔을 때 이를 그 本國에 引渡하는 것을 말하는데, 犯罪人引渡는 아직 一般 國際法上의 制度는 아니며, 따라서 特別한 條約上의 義務가 없는 限 犯罪人의 引渡여부는 各 國家가 自由로 이를 決定할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各 國家는 다른 나라와의 個別的인 條約 또는 國內法에 依하여 犯罪人을 引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나아가 이러한 條約이 없는 경우라도 各 國家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犯罪人을 引渡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犯罪人 引渡는 一般 國際法上의 原則으로 確立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各 國家의 個別的인 條約에 依하여 또는 國際禮讓上의 慣例로 實質上으로 一般화된 制度이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이래 大部分의 犯罪人 引渡條約은 政治犯罪를 引渡犯罪로부터 除外한다는 規則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慣行上 및 條約上으로 政治犯을 引渡하지 않는 規則을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이라 부른다.

政治犯不引渡의 原則은 프랑스革命 後에 成立하였으며, 그 以前에는 反對로 政治犯

을 引渡하고 普通犯을 引渡하지 않은 慣行이 보통이었다. 원래 犯罪人引渡의 慣行은 外國政府에 對한 一種의 奉仕로서 外交的 效果를 目標로 한 것이기 때문에 外交적으로 效果가 가장 큰 政治犯의 引渡로부터 犯罪人引渡가 始作되었다는 것은 自然의 順序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프랑스革命에 이르러 一方으로는 專制와 壓迫에 反抗하는 政治犯의 庇護가 人道上的 見地에서 要請됨과 同時에 他方으로는 오늘의 政治犯은 來日의 主權者가 되는 轉變無常의 政治情勢下에서 自國에 亡命한 政治犯을 現在의 主權者에게 引渡하는 것이 과연 外交的 功利主義에 相應하는 것인지 의문시되었다.

이리하여 먼저 1793년의 프랑스 憲法은 自由를 위한 外國의 亡命者에게 庇護를 부여하였으며, 다른 여러 나라도 恐怖政治로부터 逃亡한 프랑스 亡命者에게 庇護를 부여하였다. 그後 1830년까지 英國을 위시한 自由主義 諸國이 政治犯不引渡의 原則을 먼저 國內法에 채용하고 다음 犯罪人引渡條約 中에 채용하여 反動諸國(러시아, 오스트리아, 普魯士)과 抗争하였다.

即 1833년에는 벨지움이 유명한 犯罪人 引渡法을 制定하여 처음으로 政治犯의 引渡를 禁하였다. 1834년에는 벨지움과 프랑스間의 犯罪人引渡條約에서 처음 國際적으로 채용되었다. 그 後에도 不引渡原則은 점차로 광범하게 채용되어 가장 反動的인 러시아도 1867년부터 이 原則을 채용함에 이르렀다.



Mis O,

2. 政治犯罪

政治犯不引渡의 原則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行為가 규정상의 不引渡대상인 政治犯罪에 該当하는가의 문제이다. 傳統的으로 政治犯罪의 概念上 類型은 純粹政治犯罪과 相對的 政治犯罪로 区分되며, 前者에 關하여는 不引渡의 原則을 一般的으로 受諾하고 있으나, 後者に 있어서는 그 處理上 相當한 慣行의 不一致와 混亂이 있다.

가. 純粹政治犯罪

純粹政治犯罪은 犯罪行為의 대상이 國家, 具體적으로는 政府 또는 政府組織인 犯罪로서 普通犯罪의 要素를 缺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反逆(treason), 煽動(sedition) 및 間諜(espionage)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Harvard Draft참조) 이들 純粹政治犯罪은

(1) 普通犯罪로서의 基本的 要素 例컨대 刑法上의 犯意가 없고,

(2) 犯罪의 目的이 現存政府의 公權侵害이며 不法의 手段으로 既存政治狀況의 變化를 誘導하는데 있으며,

(3) 犯罪의 目標가 政府이기 때문에 個人의 私權侵害가 없으며,

(4) 犯罪人이 主로 公的 關心の 동기에서 犯罪한 것이며, 復讐, 憎惡와 같은 個人的 고려가 아니라 利他的 愛國的 感情에 依하여 敢行되었고,

(5) 確信犯의 性質을 지니고 있다.

純粹政治犯은 自身이 굳게 믿고 있는 政治狀況을 變更시키려는 기도에 失敗한 것

이므로 引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相對的 政治犯罪

純粹政治犯罪 行為에 普通犯罪의 要素가 내포되어 있거나 關聯되어 있을 때 이를 相對的 政治犯罪이라고 부른다. 相對的 政治犯罪은 政治的 性格과 普通犯罪의 性格을 共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다. 왜냐 하면 本國으로 引渡되어지지 않기를 願하는 犯罪人은 普通犯罪을 모두 政治犯罪에 沒入시켜 主張할 것이고, 犯罪人의 引渡를 要求하는 追跡國으로서는 政治犯罪 性質을 排除하거나 別個의 犯罪로 分離할 것을 主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件을 취급하는 法院으로서는 政治犯不引渡의 原則을 違反하지 않으면서 同時에 普通犯罪에 關하여는 犯罪人을 處罰하여야 하는 立場에 서기 때문에 法院은 普通犯罪과 政治犯罪과의 關係를 特定事件에 當하여 個別的으로 또한 相對的으로 評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關하여 立法例 및 判例가 취하고 있는 基本的 方式은 다음과 같이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1) 英·美法界의 附隨理論 (Incidence-test)

1870년에 制定된 英國의 犯罪人 引渡法은 政治犯罪에 關한 條項에서 逃亡犯罪人의 引渡를 拒否하여야 할 경우로서 ① 政治的 性格의 犯罪과 ② 引渡請求가 實際로는 政治的 性格의 犯罪을 處罰하기 위하여 行하여 졌을 때로 規定하고 있다. 英國은 In Re Castioni 事件 (1890)에서 앞의 條項을 解釋함에 있어 Castioni와 같이 “犯罪가 政

政治的 動亂(騷擾)에 附隨되었거나 그 一部를 構成하는 경우”에는 引渡에서 除外된다고 判決함으로써 英國의 附隨理論을 判例로써 確立하였다. Castioni는 스위스인으로 政治的 騷擾 中에 州議會議員을 殺害한 後 英國으로 逃亡하였는데, 이 事態는 소수인의 騷亂狀態를 넘어 武裝集團이 政權獲得을 目的으로 州庁舍에 亂入한 內亂狀態에서 發生하였다. Castioni가 被害者 個人에 對한 敵意 또는 惡意의 動機에서 犯行한 것이 아니라 事實이 證明됨으로써 裁判部는 引渡除外대상인 政治犯罪에 該當한다고 判定하였다.

附隨理論에 依하면

첫째, 政治的 反亂 또는 暴動이 存在하고 둘째, 引渡請求된 犯罪가 反亂의 一部를 構成하거나 附隨되는 것일 경우 相對的 政治犯罪의 普通犯罪部分은 政治犯罪로 轉換하게 된다는 것이다.

美國의 附隨理論은 英國의 制度에 그 基礎를 두고 있지만, 一般犯罪과 政治的 行爲의 附隨關係가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犯罪人 不引渡의 事由로 고려된다. 1894年 In Re Ezeta 事件에서 政治犯罪란 “內亂(civil war), 反亂(insurrection), 政治的 煽動(political commotion)의 造장 또는 그 과정에서 犯行된 모든 犯罪”라 하였다.

(2) 仏蘭西의 政治的 目的理論(political objective test)

仏蘭西法은 傳統的으로 보다 엄격한 解釋基準을 扞하고 있다. 政治犯罪를 넓게 解釋할 때의 濫用을 막기 위하여 犯罪의 性

格을 그 被害받은 權利의 性質에 따라 決定한다. 犯罪의 結果가 國家의 政治組織을 向한 것이면 犯罪人의 범죄동기는 개의치 않고 政治的 性格의 犯罪로 看做한다. 政治犯罪가 되기 위하여는 犯罪의 目的이 統治機構 및 主權에 對한 權利侵害에 있고 政治機關에 損害를 끼치는 犯罪로서 國家의 基本法에 依하여 確立된 秩序에 混亂을 주고 權力配分을 攪亂하는 犯罪여야 한다.

(3) 스위스法上의 政治的 動機理論(political motive test)

In Re Ockert 事件(1933)을 비롯한 Swiss 判例의 立場은 相對的 政治犯罪가 普通犯罪의 性格을 갖고 있지만 附隨的 狀況 特別히 동기와 목적때문에 優越的으로 政治的 性質(predominantly political complexion)을 갖는 行爲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政治的 動機는 犯罪의 性質 決定에 支配的 作用을 하지만 犯罪人이 引渡대상에서 除外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두 가지 要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첫째로 國家의 政治組織에 變化를 주기 위하여 한 政黨이 追求하고 있는 目的과 犯罪人이 行한 普通犯罪行爲 사이에는 直接的인 關聯이 存在하여야 하고, 政治的 活動이 없는 경우에는 行爲時의 政治的 動機가 推定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相對的 政治犯에 있어 政治的 要素는 普通犯罪의 要素보다 優越하여야 한다는 우월이론(theory of predominance) 상의 要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3. 加害条項 等

国家元首의 殺害 및 그 未遂는 政治犯罪으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大部分의 現行 條約 및 国内法에는 “外国政府의 元首 및 그 家族의 身体에 對한 侵害가 殺人을 構成할 때에는 政治犯으로 認定되지 않는다”는 加害條項(Attentat Clause)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加害條項을 誕生시킨 原因은 法理論的인 妥當性에 있는 것은 아니고, 國家間의 外交關係上의 困境을 避하기 위하여 創案된 政策的 배려의 結果이었다. 이 加害條項制度의 直接的인 계기는 1854年 Napoleon 3세에 對한 殺害未遂事件에 있었다. 犯人인 Jacquin이 벨지움으로 도피하자 프랑스는 犯罪人의 引渡를 要請하였으며, 벨지움은 當時의 概念上 當然히 政治犯에 該當하였으므로 條約上의 義務로서 引渡를 拒否할 수 밖에 없었다. 法的으로는 正當한 引渡拒否이었지만 外交的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苦痛이었기 때문에 벨지움은 1856年 国内立法으로 加害條項을 新設하고 그 後의 國際條約에도 삽입하였다. 때문에 加害條項은 Belgium Clause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그後 많은 國家가 條約 및 国内立法에 이러한 취지를 規定함으로써 一般的인 慣行으로 成立하였다.

한편 集團殺害罪도 政治犯으로 認定되지 아니 한다(Genocide 條約 § 7①).

4. 結

以上 記述한 政治犯不引渡의 原則은 一般

國際法上 確立된 것으로 政治犯을 本國에 送還하는 것은 一般國際法에 對한 違反이 된다.

Ⅲ. 政治的 難民의 地位

1. 領土의 庇護

政治犯에 該當되지 않는 政治的 難民에 對해서도 退去를 強制하거나 本國에 送還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을 保護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1次大戰 以後의 國際法의 方向이다 (1933年의 「避難民의 國際的 地位에 關한 條約」, 즉 Nansen 條約 § 3, 1948年 世界人權宣言 § 13②, § 14①, 1951年 주네브에서 締結된 「避難民의 地位에 關한 條約」 § 31, § 32①, § 33①). 그러나 이런 政治的 難民에 對한 保護는 소수의 國家가 国内法上으로 保障하고 있을 뿐(1947年 Italy 憲法 § 10, 獨逸聯邦共和國 基本法 § 16②) 個個의 條約을 떠나서 一般 國際法上의 保障이 確立된 것은 아니다.

政治的 難民의 入國을 認定하여 領土內에 들어온 人을 保護하는 것을 領土的 庇護(territorial asylum)라 하는데 이에 關하여는 1967. 12. 24. UN이 채택한 外國領土上의 亡命權에 關한 宣言(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이 있다. 이 선언에서는 모든 人間은 다른 나라 領土上에 政治的 亡命權을 갖는다고 確認하며 이러한 亡命權 부여가 平和롭고 人道主義的인 行爲인 경우 다른 나라에 非友好的인 行爲가 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大部分의 國家는 政治的 難民의 入國을 認定하며 庇護를 부여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權利로서 行하는 것이고 庇護의 義務를 認定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外交的 庇護權의 問題

政治的 難民이 外國의 領土아닌 外國公館에 庇護를 請求하였을 때에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의 問題가 있는데, 이를 領土的 庇護權에 對하여 外交的 庇護權이라 한다. 즉 公館이 外交的 庇護權을 갖느냐의 問題이다(이것은 政治犯에 關하여도 同一하다). 16, 7世紀의 유럽에 있어서 苛酷, 偏頗의 인 裁判의 執行으로부터 保護하기 爲하여 公館에 犯罪人을 庇護한 例는 많으며, 政情이 不安한 中南美 諸國에서도 政治犯에 對한 庇護의 慣行은 거의 一般化된 形便이다. 그러나 公館의 不可侵은 外國代表에 對한 禮遇의 觀念과 使節의 職務遂行을 용이케 할 必要에서 나온 것이지 公館이 派遣國의 領土의 一部分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19世紀以後 各國의 國內法이 정비됨에 따라 이 慣行은 거의 廢止되었다. 다만 오늘날에는 內亂, 革命이 빈발하는 라틴 아메리카 諸國에 있어서 政治犯에 對한 庇護가 條約(ex, 1928年의 Havana條約)에 依하여 認定되고 있을 뿐이며 一般國際法上으로도 外交公館에 庇護權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美國은 19世紀 以來 暴徒群衆의 追跡을 받아 生命이 風前燈火格이 된 경우가 아닌 限 外交的 庇護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아왔었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大幅的인 政策旋回가 일어나 群衆暴徒의 追跡이 없는 경우라도 外交的 庇護를 認定하는 여러 先例를 남기고 있다.

例를 들어 1956年 헝가리暴動 때 민센티 樞機卿을 부다페스트駐在 美大使館에 庇護한 것이나 1978. 6. 政府施策에 불만을 품은 소련인 7명이 모스크바駐在 美大使館에 피난하여 대사관측이 이들을 庇護한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外交的 庇護는 領土國 主權과의 關係에서 항상 問題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武力衝突에까지 치달은 事例가 歷史上 많았다. 最近의 申相玉-崔銀姬事件에서 양인이 駐在 美大使館에 保護를 要請한 事實에 對하여 美國이 “그들이 도움을 청해와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庇護(asylum)란 表現을 쓰지 않고 도움(assistance)이라는 表現을 쓴 것은 外交的 庇護가 갖는 問題點과 領域國으로서의 오스트리아 主權에 對한 배려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外交的 庇護와 關聯하여 外國軍隊가 庇護權을 가지느냐가 問題되는 바, 外國軍隊는 外交使節과 달라 政治와는 無關한 國家機關이므로 兵營區域에 들어온 政治犯 등을 庇護할 수 없다 할 것이다. 反面 外國軍艦은 庇護權이 있다는 것이 通說이다.

3. 3件의 中共機事件

政治的 難民의 地位와 關聯하여 경우가 다른 3件의 中共機 亡命事件에 關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가. 吳榮根 事件

1982. 10. 16. 中共軍 操縱士 吳榮根이 MIG-19기를 몰고 ○○기지에 착륙하여 自由中國으로 亡命要請을 하였던 바,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하여 政治的 亡命意思가 있음을 認定하여 받아들인 後(領土的 庇護) 亡命希望國인 自由中國으로 送還하였다. 一般的으로 亡命意思가 확인되면 外交當局이 亡命希望國과의 交渉을 通하여 亡命을 主申하는데, 亡命希望國이 身柄引受에 對하여 積極的인 意思를 表明한 경우에는 그곳으로 送還하면 되나, 亡命希望國이 身柄引受에 對하여 諒解정도의 消極的 意思를 表明한 경우에는 제네바에 있는 UN 難民高等辦務官과 협의한 後 일단 UN 難民收容所에 보낸 후 그곳에서 亡命虜로 보낸다.

나. 中共民航機 事件

1983. 5. 5 卓長仁 等 拉致犯 6名이 政治的 亡命의 의도하에 中共民航機를 拉致하여 ○○基地에 不時着한 事件이다. 우리나라가 加入되어 있는 航空機의 不法拉致抑制을 위한 協定(헤이그協約)에 依하면 航空機 拉致犯에 對하여는 各 締約國은 嚴重한 刑罰로 處罰할 수 있도록 할 義務를 지고, 이와 같은 機上犯罪에서 刑事裁判管轄權은 着陸國과 航空機 登録國이 競合하여 管轄權을 가진다. 不法拉致는 犯罪人引渡條約上의 引渡犯罪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헤이그협약 § 8), 우리나라와 中共 間에는 犯罪人引渡條約이 締結되어 있지 않으므로 中共이 犯人引渡를 要求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管轄權을 行使하여 卓長仁 等에게 航空法, 航空機運航安全法 等 罪를 適用 拘束起訴하여 4~6年의 懲役刑을 宣告하였다.

위 裁判에서 卓長仁 等은 그들의 航空機 拉致行爲가 純粹한 政治的 動機에서의 亡命을 위한 相當한 手段으로 行하여진 것으로서, 世界 各國이 庇護權을 認定하고 있으므로 違法性이 없다고 主張하였으나, 우리 大法院은 卓長仁 等이 政治犯이 아닌 政治犯 避難民에 該當한다고 前提한 後 이러한 政治的 難民에 對한 保護는 소수의 國家가 國內法上으로 保障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이를 保障하는 國內法規가 없으며 個個의 條約을 떠나 一般國際法上 保障이 確立된 것이 아니고, 또한 헤이그협약 제 8조(前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卓長仁 等의 위 主張은 理由없다고 判示하였다(大法院 1984. 5. 22. '84도 39判決). 그러나 當局은 事件後 466日만에 “人道的 次元”에서 刑執行停止處分을 한 後 強制追放形式으로 亡命希望國인 自由中國으로 送還하였는 바 當時의 言論은 이같은 處理를 運營의 妙를 살린 “適當한 線”의 處理라고 表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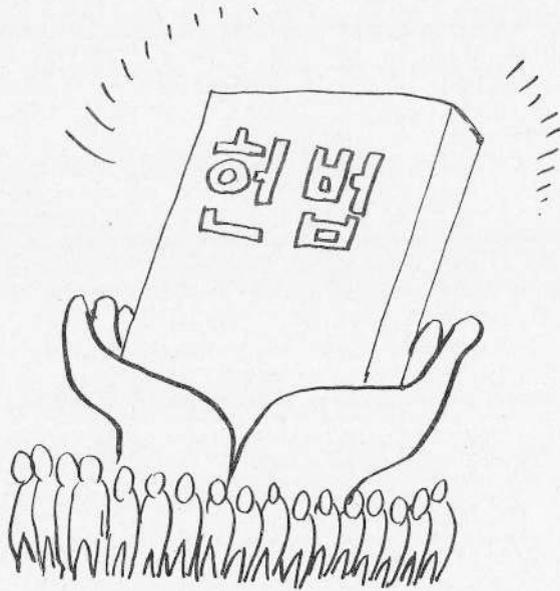
다. 中共機 裡里 不時着 事件

1985. 8. 24. 中共軍 操縱士 肖天潤이 IL-28기를 몰고 自由中國으로 亡命을 하기 위하여 다른 乘務員의 意思에 反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裡里에 不時着한 事件이다. 軍用機는 앞서 본 헤이그協約 대상에서 除外되므로(同協約 § 2) 위 肖天潤의 地位는 民航機 事件 때의 拉致犯과 다르고 吳

空 軍 漫 評

〈 7. 17 制限질 〉

법, 질서 준수하여 선진낙토 이룩하자



榮根의 地位와 同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肖天潤도 亡命希望국인 自由中国으로 送還 되었다.

IV. 맺 음 말

以上の 것을 要約해서 말한다면, 政治的 亡命者가 다른 나라의 領土에 들어 갔을 때 政治犯일 경우에는 政治犯不引渡의 原則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本國에 送還 하면 국제법 違反이 될 것이고, 政治的 難民의 경우에는 本國에 送還하지 않고 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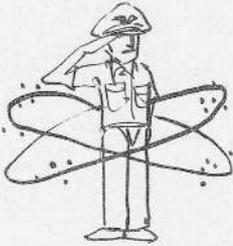
하여야 한다는 것은 國際法의 方向에 不過 하며, 또한 庇護를 부여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領土國이 權利로 行하는 것이지 庇護의 義務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政治的 亡命者가 外交公館에 들어 갔을 경우가 紛争의 소지가 많은 바 1950年 國際司法裁判所(ICJ)가 소위 Asylum Case 에서 내린 判決內容처럼 國際法上 使節團의 公館은 政治亡命者에 對하여 庇護를 부여할 권리는 없으나, 當事者를 引渡할 것인가의 여부는 當事國間의 交渉에 依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国民 精神
教 育
9 大 德 目

名 譽 心

나와 너의 이름을 빛내자



대 위 김 봉 학

제3579부대

국민학교 학창시절 때 일이다. 산수를 가르치는 호랑이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과 목소리를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좋다는 휴식시간의 신호가 울리자마자 우리반 급우들은 마치 해방이라도 맞은듯, 교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교실로 뛰어다니며 천진난만하게 휴식시간을 만끽 하고 있었다. 잠시 후, 휴식시간이 끝나고, 호랑이 선생님과 대조적으로 인자하기에 그지없는 국어 선생님 시간이었다. 상당히 연로하신 국어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교과서를 뒤적거리다가, 책자를 덮고 나서 수수께끼를 하나 낼테니 맞춰보라고 하셨다. '분명히 자기 것인데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제일 먼저 답을 맞추어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웅성웅성대며 떠들었지만 결국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선생님은 해답을 말씀해 주시기는 커녕, 교단 밑에 있는 출석부를 꺼내 펼치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60여명의 출석학생을 모두 부르고 나서,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그 해답을 모르겠냐고 거듭 질문하셨다. 상대방 얼굴에서 무엇인가 발견하려는듯, 서로의 얼굴만 빨리 쳐다보고 있을 때, 선생님은 그때서야 '이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은 너그러운 표정으로 껄껄 웃으시더니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것 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불쌍한 동료를 자기 일처럼 도와줄 때 비로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우리들은 힘찬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지만, 당시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너,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라는 제하(題下)의 소재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떠오르는 것은 본인도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들지 못한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선생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도, 껍이나 다행스럽게 여기고 위안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성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 아직도 나는 암탐(스스로의 행위)이 계란(명예)을 품었다기 보다는, 암탐이 계란을 품었는지 혹은 안 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 같다(물론, 자신의 행동이 계란의 양적·질적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인간 기본 욕구의 하나인 타인(他人)의 인정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명도 없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계란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계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란을 생각해 보자. 누구에게 내놓아도 몇몇하고, 건강한 계란이라고 자부(自負)할 수 있는지 잠시 반성하자.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 땅위에서 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매우 「자랑스럽다」는 답변이 서슴없이 나온다면 국민정신교육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이고, 반면에 머리를 긁적이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교육의 중요성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 될 것이다. 물론, 上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130여년 전의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에 와서는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숙명적인 위치에까지 왔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요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을 냉철히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요인이 지배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국민정신교육을 마음 속에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명예심과,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민족의 산 저력을 일깨우기 위해 부각된 국민정신교육의 설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업사회 속에서의 인간성 회복이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보잘 것 없는 후진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우리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고도 산업체제로 탈바꿈하였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우리의 복지생활은 윤택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산업 간의 불균형, 해외의존도의 심화 과도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적 풍토가 인간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문화, 조직화 분업화된 현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식구조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주의적 경향으로 빠져들어

따뜻한 인간미 다정한 이웃관계, 상부상조의 정신 등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의 미덕이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민족 고유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국민정신교육이다.

둘째는, 분단 상황 하에서의 체제 이데올로기 극복이다. 아시아의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국가를 살펴보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북으로는 소련, 중공, 북한과 접하고 있기에 한반도가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라는 것을 한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우기 우리는 불과 30여년 전에 6·25라는 민족의 비극을 통하여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지금도 허리가 잘린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이다.

셋째는, 우리의 독특한 민족주체성 인식이다. 主体라는 것은 몸으로 행동하는 실질적인 것이므로, 의식과 관련된 주관(主觀)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러기에 한민족에 있어서 주체성은 그저 관념이 아니라, 그대로 한 민족의 산 저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성이란 민족적으로는 혈통이요, 정치적으로는 주권이요, 문화적으로는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주체성의 산 저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단결이 행동에 의해서 생활화되고 습관화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설정된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은 우리 국민이 좀더 보람있는 삶, 좀더 건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며, 9대 덕목은 국민 기본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주인정신, 명예심, 도덕심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의지이다. 그 중 이름을 빛내기 위한 덕목은 바로 명예심이다. 명예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귀에 쟁쟁하다. 1개월 간의 가입교 기간동안은 Animal Training으로써, 즉 집단생활을 하기 위한 규정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자질을 소유케 하기 위한 훈련이다. 식사 한끼를 하더라도 직각 식사를 하고 보행 할 때는 부대행동이며 복도나 밖에서 보행할 때는 어느곳에서든지 직각 보행이었다.

1개월의 고된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 잠까지 설치던 어느날, 취침시간을 알리는 나팔음악과 함께 소등을 하고, 잠자리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비상집합 명령이 기지방총을 통해 생도대에 울려 퍼졌다. 우당탕…… 우당탕…… 군장을 꾸러 신속한 동작으로 점호장에 집합하여 인원보고를 마치자, 이윽고 ○선배님이 연단 위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귀관

들은 자랑스런 공군 사관생도다. 그러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듯 일부 혼련 메추리가(정식으로 입교식을 하기 전까지는 메추리라고 명함) 보이는 곳에서는 직각 보행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직각 보행을 실시하지 않는데, 그래서야 어찌 몇몇한 사관생도가 되겠는가!, 이는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하자」라는 말과 함께 정신자세(명예심)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따듯한 시간을 가졌다. 그날밤 많은 땀을 흘리고, 내무반에 돌아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남이 보든 안보든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행동하였는지………」가입교가 끝나고 정식으로 생도가 되었을 때에도 「명예」라는 두 글자는 항시 우리 눈앞에 있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 전대장 생도는 점호장에서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명예구호를 힘차게 말하자고 구령했다.

— 명 예 —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하고 있는
 행할 행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그리고 행하면 그것이 명예다.

시험 보기 전에 명예는 곧 Cunning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거두어 들이자는 것이다. 上記명예 구호만큼, 명예에 대해 짤막하고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구호도 없을 것이다. 물론,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 행위를 몇몇한 명예로 생각하듯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이 몇몇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몇몇하다고 자부하는 사고방식은 명예 구호에서 제외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명예와 體面을 혼동하고 있다. 웬만한 국어사전을 찾아 보아도 명예=자랑(Glory)=이름 높은 명관(Honour)=체면(Dignity)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명예란 체면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 어느 유명한 권투선수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손님과 싸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권투선수가 우세한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권투를 하지않은 손님이 권투선수를 떡 주무르듯 주물러 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화가난 권투선수는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후배, 동료들 전화로 불러내어 여러 명이 그 손님을 주물러 등심처럼 주물러 놓았다면, 그 권투선수는 권투선수로서의 체면은 어느정도 유지했지만 명예는 구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명예 체면이 된다. 그러면

명예를 개인의 이름을 빛낸다는 의미에서 조명해 보면, 흔히 우리는 남이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이 남을 부를 때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별명과 같은 고유명사가 있다.

이런데면 우등생, 자선가, 모범사원, 모범용사 등과 같이 좋은 의미에서의 고유명사와 낙오자, 실패자, 사기꾼 등 불미스러운 고유명사가 붙어다니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법 신빙성 있게 표현할 때에도, “공자, 맹자, 예수그리스도께서”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한다.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과 일맥상통한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혀야 하고, 남는 것은 이름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수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빛낸 민족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한국인이다. 나의 이름이 빛남은 곧 우리 한국인이 빛나는 것이다. 우리 민족도 슬한 異民族의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오늘날까지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이루어 온 저력 있는 민족이 아닌가! 남강 이승훈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7년 7월 평양에서 「교육의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라는 연설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오산학교를 세웠다. 1930년 5월 9일 67세의 나이로 고향 오산에서 별세하신 이승훈 선생은 생전의 유언으로 자신의 屍身을 학생들의 공부를 위하여 자신의 뼈로 골격표본을 만드는데 사용해 달라고 하셨다.

193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동우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을 때, 일본인 검사가 그를 심문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자 잠시 거리낌 없이 안창호 선생은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행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원래 비범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력을 바치신 분이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예는 개인적인 명예이기 보다는 한국인 모두의 명예이다. 선조들의 이름을 빛내고, 한국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데 뭉쳐야 비로소 빛나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위업을 숭상하고 후세에게 몇몇한 유산을 제승하기 위해서는 군인은 국토방위에 학생은 학업에, 예술인은 예술에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겠다. 원래 글이란 개인의 체험과 지식이 일치되어야 글로서의 생명력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횡설수설했어도, 다음에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명예는 아득히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 속에 「명예」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자.

병영생활 명랑화를

위한 장병상담과 선도



중 위 김 동 역

제 8639 부대

목 차

1. 군상담의 특징
2. 상담자의 태도
3. 상담을 이끌어가는 기술
4. 맺음 말

인간이 속해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사회 중에서도 군대사회는 일반사회와 다른 강한 폐쇄성과 행동제한, 상명하복관계의 계급질서요구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소속원이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입대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병사들의 문제는 그가 입대하기 전의 사회, 학교, 가정에서부터 근원되는 것이겠지만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휘감독관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각급 지휘감독관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병사들의 고민과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법 중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적 이해에 바탕을 두는 관계로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의 기본적인 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상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즉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자의 태도, 피상담자의 심리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군상담의 특징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상담을 피트로페사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내담자의 자기이해,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에 군상담이라 하면 「군집단 내 병사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가 그들의 훈련이나 업무수행 등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앞에 제시한 상담의 정의를 살펴 보면 일반상담이든, 군상담이든 문제를 지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군상담의 경우, 조직의 특수성과 임무의 중요성, 그리고 집단의 목표를 비중높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상담과 구별된다. 이에 따른 군상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피상담자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사춘기를 벗어난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는 사춘기 후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는 성숙되었지만 정신적, 인격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에 있는 미성숙 시기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급격한 환경변화와 역할변화에 따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적응상에 문제가 많

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이한 가정, 학교, 지역 등 성장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매우 복잡한 집단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생활과 공동목표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각자 제급이 다른 제복을 입고 대화를 하는 군상담에서는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대등한 입장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는 보고체계를 철저히 요구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피상담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피상담자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네째,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와 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군대사회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엄격한 규율과 구성원의 개인생활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로 설사 유익한 해결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곤란할 때가 많다.

다섯째,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군대집단의 구성은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징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부대배속과 임무를 부여받는 데도 군방침에 따라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구성원이 자유의사에 의해 부대를 이탈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허위로 꾸며서 휴가, 전속, 보직변경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2. 상담자의 태도

상담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상담자의 상담기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자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담자는 돕는 자이다

상담은 일반적인 훈육과 달라 병사 자신이 문제를 느끼고 도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며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 문제해결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담의 주체는 피상담자 자신인 것이다.

나. 주관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다. “군인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졸업자 보다 열등하다” 는 등의 편견이 일반화되어 있다. 편견이 강한 사람은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쳐서 상대방의 심정을 오해하거나 상대편 입장에서 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데 급급해한다. 상담자는 자기의 주관과 편견을 가능한 버려야 한다.

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을 처음 실시해 보는 초심자는 상담

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쉽다. 그러나 상담은 사고 예방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착각하면 상담은 실패하기 쉬우므로 상담자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피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피상담자의 말을 꾸준히 경청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여야 한다.

마. 수동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수동적 태도로 임해야 한다.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성급한 충고나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피상담자 자신이므로 상담자는 지나친 적극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

3. 상담을 이끌어가는 기술

가. 상담의 시작

군대에서의 상담은 피상담자가 스스로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상담자가 호출하여 상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상담을 진행하기가 수월하지만, 후자의 경

우에는 피상담자의 저항감 등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과정이 보다 힘이 들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상담자가 호출하여 왔든 피상담자가 스스로 찾아왔든 상담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일이다. 수용적이며 온화한 태도로 피상담자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차분하게 피상담자의 말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피상담자가 머뭇거리며 말머리를 꺼내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이야기라도 말하고 싶은대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가령 나를 만나자고 한 동기가 있을텐데”

“김일병, 요즘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불렀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등으로 피상담자가 말을 할 기회를 준다.

상담의 첫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은 피상담자가 상담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기대를 확인하고 적절한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와 영역을 밝히고, 피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도 교육하는 것이 좋다.

나. 경 청

상담에서의 경청은 단순히 듣는 작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외에 피상담자가 나타내는 말과 표현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피상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며 문제를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경청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선을 통한 접촉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의 자세이다. 약간 상담자쪽으로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상담자의 몸짓이다. 상담자의 몸짓으로 피상담자의 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넷째, 언어를 통한 반응이다. 피상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의 흐름이 보다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으흠”, “그래” 등의 반응으로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는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반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 질 문

피상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담자에게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의 질문이나 직선적으로 물어보는 것 보다는 간접적으로 질문하여 피상담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이야기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중적 질문, 예를 들면

“내일 오겠나? 아니면 모레 오겠나?”

와 같은 질문과 마구 질문을 퍼붓는 질문의 폭주, “왜?”라는 형식의 질문을 피해야 한다. 이중적 질문은 피상담자를 당황하게 하기 쉬우므로 하나씩 나누어 해야 하며, 질문의 폭주는 피상담자가 생각하고 반응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또 “왜?”라는 형식의 질문은 마치 피상담자를 꾸짖는 듯한 느낌을 주기 쉽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라. 반 영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이야기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 생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주면 피상담자는 상담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상담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반영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설사 그것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신상에 위협을 느낄 때는 피상담자에 의해 부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감정적 분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요 약

상담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지거나 혹은 1회의 상담이 끝날 때마다 그 동안에 오고 간 대화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할 때에 지난 번에 실시했던 상담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상담의 연속성을 확실히 인식하기로 한다.

바. 침 목

상담과정에서 대화가 중단되고 침묵이 계속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침묵은 그것이 언제 발생했으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 저항으로 인한 침묵

피상담자가 보기에 상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나 방향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피상담자는 종종 침묵으로서 저항을 한다. 그럴 때는 “이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군.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지” 등으로 피상담자의 감정도 수용하며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다.

(2) 혼돈으로 인한 침묵

피상담자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생각 또는 감정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혼돈이 일어나기 쉽다. 그럴 때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3) 탐색으로 인한 침묵

피상담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를 생각하거나, 피상담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느라 침묵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도 침묵하게 된다.

이런 때는 설불리 말을 하여 피상담자의 생각의 흐름을 중단시키지 말고 다시 상담할 태세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4) 기타 요인에 의한 침묵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침묵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담자를 안정시켜 편안히 말하도록 격려해 주고 때로는 종이와 연필을 주어 글로서 표현하도록 도와주거나,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화제를 찾아야 한다.

사. 조 언

군상담에 있어서 그 주된 목적이 심리치료보다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병사들의 적응과 발달을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조언과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조언을 할 때에는 피상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입대 전 경력 등을 고려하고, 피상담자가 조언을 수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암시적인 형태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맺음 말

이상에서 상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상담 중에서도 군상담은 문제예방을 위한 방편임을 고려할 때 상담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 필자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병사 개개인의 신상과약이다.

신상과약은 문제예방의 첫 걸음이면서도 그 어려움은 누구나 이해하리라 믿는다. 필자의 소속대대에 J라는 방위병이 있었다.

평소 반항적인 성격을 나타내긴 하였으나,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집해제는 1개월 가량 남겨 둔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군무이탈을 하게 되어 그 원인을 조사하던 중 신상과약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J가 평소 이야기하던 집안환경, 본인의 학력, 주변환경 등이 실제에 비해 엄청나게 과장되었던 것이다. 평소 과장됐고 또 되고 싶었던 자신을 군 생활에서는 남을 속이고 생활할 수 있었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비관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례였다.

이 사고는 보다 정확한 신상과약으로 적절히 상담하고 충고함으로써 예방도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며 신상과약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 사례였다.

둘째, 병사집단의 분위기이다. 같은 군인이라 하지만,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소속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군무지를 조정할 방위병이 2일만에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각 부서 간의 분위기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상 거론한 이외에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상담자에 따라서 또 피상담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상담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은 간부 개개인이 경험을 쌓음으로써 가능하리라 믿으며 본고를 읽어준 간부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는 바이다.

新左傾思想批判

新植民地主義論 批判

現代理念比較研究会 編



* 本論文은 現代理念 比較 研究会 (建国大学校 附設) 故 李承憲教授의 遺稿로서, 研究会측의 협조로 수록한 것임.

目 次

- I. 新植民地主義의 問題視角
- II. 戰後國際体制의 變動과 第三世界의 特殊性
- III. 新植民地主義에 대한 評價

I. 新植民地主義의 問題視角

1. 新植民地主義 擡頭的 國際環境

新植民地主義(neo-colonialism)는 1950年代末 以後 먼저 「아프리카」의 指導者에 의 해 提起되고 이어 亞細亞·「아프리카」 및 中南美에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 擴散됨에 따라 國際的 마르크스主義 陣營의 理論的 研究課題 및 實踐的 鬭爭課題가 되어 온 것이다. 以上 三個大陸의 「마르크스」 主義者 및 過激主義者들은 新植民地主義를 旧植民地 統治국이 植民地에게 形式的으로 獨立을 賦与하였으나 間接的 方法으로 新生國을 支配함으로써 事實上은 植民地統治를 繼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結果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2. 新植民主主義의 概念內容

다음으로 新植民主主義가 開始된 時期와 그 때의 國際情勢 및 그 概念內容을 살펴 본다. 1960年 2月 當時의 「맥미란」 英國 首相은 「케이프·타운」에서 다음과 같이 陳述하였다. 『變革의 바람이 大陸(아프리카) 全体에 불어 다니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間에 이러한 民族的 自覺의 成長은 政治的 事實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事實로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國家政策은 이 事實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미란」 演說에 대하여 「모스크바」 聲明은 帝國主義 諸國이 1950年代 末부터 亞細亞·아프리카 및 中南美 三大陸에서 民族解放運動의 高揚으로 因해 생긴 植民主體制의 危機를 現實로서 認定한 것은 民族解放運動을 武力으로 抑壓하여 旧來의 植民主支配를 繼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狀況 아래 그들은 그 植民主政策을 轉換하여 旧植民主에 대한 支配와 擄取를 새로운 方法과 形態로 繼續하려 하고 있다고 指摘하는 反應을 보였다.

이러한 帝國主義 諸國의 植民主政策의 變化에 대해 가장 敏感히 対応한 것은 이와 對決하여 完全獨立을 위해 鬪爭하고 있던 亞細亞·「아프리카」의 民族解放運動이었다.

즉 1960年 1月 「뉴니스」에서 開催된 第二次 全 「아프리카」 人民會議가 帝國主義 諸國의 새 政策을 「新植民主主義」라고 命名한 以來 「코나크리」에서 開催된 第二次 亞細亞·「아프리카」 人民連帶會議('60年 4月), 「카이로」에서 開催된 第三次 全 「아프리카」 人民會議('61年 3月), 「반둥」에서 開催된 亞細亞·「아프리카」 人民連帶委員會 第四次 理事會('61年 4月) 등의 諸會議에서 新植民主主義의 諸形態와 方式이 明確히 究明됨과 아울러 新植民主主義를 民族解放運動의 主要한 鬪爭 目標로서 認識하였던 것이다.

그中 新植民主主義에 관한 가장 包括的인 定義는 「반둥」에서 開催된 亞細亞·「아프리카」 人民連帶機構 第四次 理事會에서 採択된 다음과 같은 定義이다. 『新植民主主義란 帝國主義의 새로운 形態이며 新興國의 獨立을 形式的으로 承認하면서 政治的·社會的·軍事的·技術的으로 間接·巧妙한 支配形態에 의하여 이들의 나라를 犧牲에 供함으로써 새로이 獨立을 獲得하였거나 獨立을 爭取하려 하고 있는 「아프리카」 諸國에 대한 最大의 威脅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여 기서는 間接支配라는 政策形態가 強調되었다.

또한 東獨의 「돔다이」(K. H. Domdey) 라는 學者가 新植民主主義를 理解하는 前提로서 첫째 帝國主義의 本質 및 民族解放運

* 이 글은 1984年 1月 2日 作故한 建國大學校 政法大 教授 李承憲博士가 본 연구회에서 한 特講을 정리 제출한 遺稿입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動, 低開發國, 新興國에 대한 帝國主義政策의 本質은 變化하고 있지 않다는 것, 둘째 國際的인 勢力關係가 決定的으로 社會主義에 有利하게 變化하고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가 더욱 尖銳化한 가운데 帝國主義의 存在條件이 더욱 惡化하고 있다는 것, 세째로 本質적으로 變化하지 않는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帝國主義的 手法, 그 中에서도 特別히 亞細亞·「아프리카」·中南美 諸國에 대한 膨脹의 體制가 變化하지 않을 수 없고 事實 變化하고 있다는 것의 三點을 들어 '60年代 前後의 歷史的 段階에 있어서의 國際的 勢力關係의 脈絡속에서 新植民地主義를 把握한다는 觀點을 提示한 것이 注目된다.

그런데 植民地主義란 元來가 帝國主義의 植民地體制에 對한 政策體系를 意味하는 歷史的 概念이므로 新植民地主義의 概念을 보다 明確히 하기 위해서는 現代에 있어서의 植民地體制의 狀況을 考察할 것이 必要해진다. 一般적으로 植民地體制라는 概念은 單純히 植民地 만을 包含하는 것이 아니라 植民地·半植民地 從屬國의 總體를 意味해왔다. 그런데 半植民地란 「레닌」이 指摘한 바에 따르면 形式的으로는 獨立하고 있으나 金融的으로도 政治的으로도 從屬된 國家이며 金融的으로 從屬되고 있으나 政治的으로 獨立되고 있는 國家와는 區別된다.

이 경우 問題가 되는 것은 二次大戰後 亞細亞·「아프리카」에서 새로이 形成된 國家를 어떠한 基準에서 政治的 從屬國, 政治的 獨立國으로 区分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解答은 다음과 같은 第二次 亞細亞·「아프리카」人民連帶會議 宣言에 의해 一応 提供되었다.

『會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民族은 眞心으로 獨立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法令이 國民의 完全한 同意를 얻고 있지 않는데 그 國民의 이름으로 制定될 때

② 外國의 軍隊가 獨立國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나라의 領土에 駐屯하거나 또는 軍事基地를 設置하고 있을 때

③ 어떤 國家가 植民地主義國에 指導되는 共同體의 一員이거나 또는 帝國主義國과의 軍事同盟에 參加하고 있을 때

④ 어떤 國民이 政治·軍事·經濟·社會의 諸計劃을 實行함에 있어 民族主權에 隨伴하는 諸機能을 自己의 裁量으로 完全히 行使할 수 없을 때

⑤ 世界人權宣言에 規定된 個人의 基本的 自由가 尊重되지 않을 때.』

이를 基準으로 하여 생각하면 二次大戰後 植民地制度는 消滅해 왔으나 植民地體制 그 自体는 危機狀態에 있으며 아직 崩壞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日本의 左翼系 學者인 土生長穗는 1960年代 中葉의 時點에서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보다 正確히 말하면 戰前의 植民地體制가 植民地를 中心으로 하여 構成되고 있었는데 反하여 現代의 植民地體制는 半植民地를 中心으로 하여 再編成되고 있다. 新植民地主義란 이와 같이 새로운 局面에 對應하여 半植民地를 中心으로 再編成되고 있는 植民地體制에 對應하는 概念이며 危機的 狀態

에 있는 殖民地體制을 再編成 維持하고 나아가 이를 擴張하려는 帝國主義의 殖民地 支配의 體制을 總稱하는 概念이다. 이렇게 理解하면 改良에 의한 新殖民地主義의 手法과 暴力에 의한 舊殖民地主義의 手法과의 混在는 別로 矛盾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新殖民地主義의 理論을 最初로 體系化하였던 「가나」의 初代 大統領 「응크르마」(Kwame Nkrumah)는 1963년에 發刊한 「아프리카는 團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著書와 1965년에 發刊된 「新殖民地主義」라는 著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레닌」의 帝國主義理論과 同一한 理論的 立場을 取하여 新殖民地主義도 舊殖民地主義와 마찬가지로 經濟的 擄取를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新殖民地를 「레닌」이 말한 半殖民地(semi-colony)와 本質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그밖의 「아프리카」 指導者들은 舊殖民地主義를 政治的 帝國主義(political imperialism) 또는 思想的 帝國主義(ideological imperialism)라 부르고 新殖民地主義를 經濟的 帝國主義(economic imperialism) 또는 新帝國主義(new imperialism)라 불러왔다.

一般的으로 帝國主義는 霸權主義(hegemonism), 膨脹主義(expansionism) 등으로 表現되기도 하며 여러 學者의 所論을 綜合할 때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帝國主義는 한 國家가 다른 國家를 政治的·經濟的 또는 文化的으로 統治하거나(rule), 支配하거나(control), 影響을 미치는(influence) 行爲 또는 政策을 말한다.』 嚴密히 分析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類型을 取할 수 있다.

〈帝國主義의 諸類型〉

	目 的(A)	方法(B)	統 制 形 態(C)
1	政治的(軍事的)	政治的	完全統制(統治)
2	經濟的	經濟的	中間統制(支配)
3	文化的(理念的)	文化的	形式的統制(影響)

- ① 帝國主義 = $A_{1,2,3} + B_{1,2,3} + C_{1,2,3}$
- ② 殖民地主義 = $A_2 + B_{1,2,3} + C_1$
- ③ 新殖民地主義 = $A_2 + B_{1,2,3} + C_{2,3}$
- ④ 衛星國 = $A_{1,2,3} + B_{1,2,3} + C_2$
- ⑤ 勢力圈 = $A_{1,2,3} + B_{1,2,3} + C_3$

二次大戰後 帝國主義나 殖民地主義를 公然히 追求하는 나라는 없으나 共產圈에

서는 美國을 代表的인 帝國主義 國家로 規定하여 對決乃至 競爭을 일삼아 왔고 이

에 對抗하여 自由世界는 蘇聯을 共產(赤色) 帝國主義 國家의 總帥로 指目하여 그의 霸權主義政策을 封鎖하려 힘써 왔는가 하면 甚至於 中共도 中蘇紛爭 激化에 따라 蘇聯을 社會帝國主義 國家로 非難해 왔다.

다음으로 新植地主義를 우리나라의 學者인 朴尚植教授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한 國家가 다른 國家를 經濟的으로 擄取하기 위하여 政治的·經濟的·文化的方法으로 支配하거나 影響을 미치는 行爲 또는 그리하려는 政策이 新植地主義이며 그 擄取의 對象이 된 國家를 新植地라 한다. 植地統治國이 新植地를 直接 統治하지 않고 間接 支配하는 것이 植地와 다르다.』

3. 新植地主義 間接 支配의 方法

新植地主義가 實施하는 間接 支配의 方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追從政權의 樹立 - 新植地主義를 追求하는 國家가 支配하거나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個人이나 集團으로 하여금 政權을 掌握하도록 支援하거나 이미 執權하고 있는 個人이나 集團을 援助한다.

(2) 「발칸」化(Balkanization) - 新植地가 너무 強大해지는 것을 防止하고 또한 新植地끼리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하여 新植地를 可能한 限 작게 分割한다. 舊植地主義 國家가 使用한 分割統治(divide and rule)의 原則과 같다.

(3) 經濟的 依存關係의 樹立 - 投資, 經濟 및 技術援助, 貿易 등을 통하여 新植地인 新生國에 經濟的으로 浸透하여 新生國

經濟를 新植地統治國 經濟에 從屬시킴으로써 經濟的 利益을 얻고 新生國을 政治的으로도 支配하거나 그 影響下에 둔다.

이 經濟的 方法이 가장 흔히 使用되는 것이다. 그런데 新植地主義理論이 이 經濟的 依存關係를 強調하기 때문에 從屬理論과 混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두 理論이다 經濟的 依存關係와 經濟的 擄取를 強調 또는 警戒하는 點에서 同一하나, 從屬理論이 經濟的 依存關係가 新植地主義를 適用받는 新生國의 經濟發展을 阻害하고 權威主義 政治體制를 不可避하게 만든다는 點을 強調하는데 反하여 新植地主義理論은 經濟的 依存關係가 開發國과 開發途上國間의 貧富의 差異를 增大하고 新生國의 新植地統治國에 대한 政治的 依存關係마저 增大시킨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에서 區別된다. 다시 말해서 新植地主義理論은 經濟的 依存的 對外的 效果를 그리고 從屬理論은 對內的 效果를 強調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軍事基地化 - 新植地에 軍隊駐屯權을 얻거나 軍事基地를 獲得하여 新植地를 自國防衛上 軍事的으로 利用하거나 또는 武器·軍事技術의 提供, 軍事的 訓練 등 軍事援助를 통하여 新植地를 軍事的으로 植地統治國에 從屬시킨다.

(5) 地域團體의 組織 - 新植地인 新生國으로 하여금 經濟的 地域團體를 形成케 하여 보다 큰 地域을 新植地統治國의 經濟的 市場으로 利用한다.

(6) 經濟的 紐帶의 形成 - 開發先進國 들로

構成된 經濟的 地域团体에 開發途上国을 加入시켜 經濟的으로 搾取한다. 「응크루마」는 「유럽」共同体에 準會員国으로 加入한 「아프리카」国家를 그 例로 들고 있다.

II. 戰後國際体制의 變動과 第三世界の 特殊性

1. 第三世界와 水平的·垂直的 貧富隔差

国家를 分類하는 方法도 國際情勢의 變化 및 國際体制의 變動에 따라 달라진다. 理念 對決에 따르는 冷戰이 가장 激甚하였던 1950年代에는 地球上的의 国家들을 東(共產圈)과 西(自由陣營)로 分類하는것이 流行이었고 西歐 植民地가 大舉 獨立하여 新生国家로서 非同盟中立主義를 標榜해 나가게 된 1960年代에는 東·西 및 非同盟国家群으로

分類하는 것이 流行이 되었으며, 国家間的의 貧富의 隔差가 深刻하게 느껴지게 된 1970年代에는 南(貧国·開發途上国圈)과 北(富国·開發国圈)으로 分類하는 것이 流行이 되었다. 南을 第三世界라고 부르고 北을 第一 및 第二世界라고 부른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東·西·非同盟国家群으로의 三分法은 政治的·理念的 紛争과 關聯된 区分法이고 第一·第二·第三世界로의 三分法은 經濟的 葛藤과 關聯된 区分法이라는 点이다. 그러나 嚴密히 말하면 後者의 区分法은 經濟的 葛藤뿐만 아니라 政治的·理念的 紛争도 考慮한 区分法인 것이다. 왜냐하면 北에 屬하는 国家를 東西紛争에 따라 第一世界(西方工業国家)와 第二世界(東歐 工業国家)로 再分類하고 있기 때문이다.

第三世界 国家는 開發途上国家로서 經濟的 貧困狀態에 있다는 것이 共通된 特徵이

開發国과 未開發国과의 比較

社 会·經 濟 變 數	開 發 国	未 開 發 国
人口比率	30%	70%
世界總收入 比率	70%	30%
文盲率	3%	60%
營養失調·饑餓		10億名
1人当年間收入	3,600弗	250弗
平均寿命	71歲	52歲
幼兒死亡率(1千名当)	21	110
醫師1人当 人口	700	3,400
一人当 年間に너지 消耗量(kw/h)	5,140	200

(出處) Richard Falk, "Study of Future World", New York, 1975, p. 356.

다. 第三世界 國家의 經濟成長率은 最近에 이르러 第一世界 國家의 經濟成長率보다 大體로 높으나 1970년에 있어 兩者間의 個人所得差는 大略 15對 1이며 紀元 2000년까지 이 差異는 減少되지 않을 것으로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더구나 第三世界의 人口增加率은 第一·第二世界의 3倍 以上이나 된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第三世界의 經濟成長率도 第一世界보다 實質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圖表參照).

第三世界는 全般的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第三世界 國家內의 貧富差異도 第一世界 國家內의 貧富差異보다 一般的으로 더 크다. 다시 말해서 第三世界는 第一世界보다 水平的으로 貧困할 뿐만 아니라 垂直的으로도 貧困하다.

2. 第三世界 貧困의 理由에 관한 諸學說

그 原因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論議가 提起되어 오고 있으나 그 代表的인 것으로는 第三世界의 貧困의 原因이 第三世界 自体에 있다고 보는 理論(文化的 原因說), 第一世界에 責任이 있다고 보는 理論(新植民主義論, 從屬理論, 마르크스理論) 및 兩者에게 다 責任이 있다고 보는 理論(構造說)을 들 수 있다. 이들을 次例로 檢討해 본다.

(1) 文化的 原因說

美國의 社會科學硏究會議와 比較政治委員會가 1950年代에 主로 提唱하였고 그 後 行態主義 學者들이 支持하고 있는 이 學說은 經濟的 貧困의 根本原因을 第三世界 國家

自体의 文化에서 찾고 있다. 先進工業國家의 經濟發展史를 보면 이른바 理財的 文化의 要素, 即 創意性, 獨立性, 儉約性, 節制性, 妥協性 등이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되었는데 第三世界 國家에는 이와같은 要素가 缺如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政治的 安定이 必要한데 第三世界 國家는 거의가 政治的으로 不安定하다는 것이다. 政治的 不安定의 原因도 政治文化의 性格에서 찾고 있다. 즉 第三世界 政治文化의 共通된 特徵은 어떠한 社會集團도 正當性을 가지고 執權하고 있지 않다고 一般國民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모든 社會集團이 제 각기 執權의 正當性을 主張하고 있다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政治文化를 가진 社會가 政治的으로 不安定할 것은 確實하다.

第三世界 國家는 大部分 權威主義的 政治體制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政治體制는 그들의 傳統的 政治文化에 合當하다. 政治體制가 權威主義的이기 때문에 富의 分配도 權威主義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少數의 支配層이 多數의 被支配層을 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支配한다. 다시 말해서 政治的 權力은 富의 独占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文化的 原因說을 主張하는 學者들은 開發途上國이 後進性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傳統文化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第三世界는 經濟發展을 위해서 第一世界의 理財的 文化와 民主主義 政治體制를 導入하는

것과 富가 豊富한 第一世界로부터 富를 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勸奨하고 있다.

(2) 構造說

第三世界가 貧困한 根本原因은 現存하는 世界經濟秩序가 第三世界에서 不利하고 第一世界에 有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諸事實을 指摘한다.

첫째, 物品(消費材와 生産材)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資本·勞動力·技術者 및 原料가 必要한데 第三世界에는 原料는 豊富하나 資本이 없고 勞動力은 豊富하나 技術者가 없다. 그런데 物品을 取得하는 方法에는 生産과 購入이 있다. 그리하여 後進국은 物品을 自体生産하기 위하여 資本과 技術을 先進国에서 導入하고 物品을 即時使用하기 위하여 이를 또한 先進国에서 輸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原料를 先進国에 販賣하여 그 收入으로 導入한 資本·技術 및 物品의 代價를 支払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原料의 價格은 物品의 價格에 比하여 極히 低廉하고 國際市場價格의 變動이 甚함으로 開發途上国과 先進国間의 去來에서 開發途上国이 恒常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된다.

둘째, 開發途上国에 資本과 技術을 提供하는 先進国과 國際援助機構는 開發途上国の 經濟發展을 오히려 妨害한다. 開發途上国에 提供되는 援助는 有償·無償을 莫論하고 開發途上国の 經濟發展에 眞實로 貢獻하기 보다 援助国이나 國際援助機構를 支配하는 先進国の 利益에 더 貢獻하고 있다. 즉 援助国은 經濟的 擄取나 政治的 支配를

위하여 援助를 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世界銀行(IBRD)이나 國際通貨基金(IMF)과 같은 國際聯合專門機構에서는 投票權이 寄附金의 程度에 比例하여 決定되므로 寄附金を 많이 내는 國家의 發言權이 強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 機關의 政策은 寄附金を 많이 내는 國家에 의하여 左右될 것이 當然하다.

셋째, 先進国이 單獨으로 또는 國際援助機構를 통하여 開發途上国에 提供하는 援助金은 開發途上国の 經濟發展에 크게 貢獻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開發途上国에 内在하는 貧富의 差異를 더욱 惡化시킨다. 第三世界國家는 權威主義 政治體制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先進国이 提供하는 援助金은 主로 執權「엘리트」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先進国은 開發途上국을 擄取하려면 執權「엘리트」의 支持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執權「엘리트」에게만 援助의 惠沢이 돌아가는 것을 反對하지 않으며 여기서 先進国 執權者와 開發途上国 執權「엘리트」와의 結託이 이루어지게 된다.

(3) 從屬理論 또는 新植民主義理論

70年代에 이르러 脚光을 받게 된 從屬理論은 世界經濟의 構造를 中心(center=先進工業國家의 圈域)과 周邊(periphery=開發途上國家들로 이루어진 第三世界)의 圖式에서 照明하여 從屬과 相互依存의 關係 및 新植民主義 現象을 解明하고 対応策을 講究할 것을 試圖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諸點을 指摘한다.

첫째 國民總生産高로 나타나는 國富의 主源泉은 輸出 그 中에서도 農産品이나 鉱物을 包含한 原料의 輸出에서 오는 收入이다. 따라서 原料를 主로 輸入하는 第一世界의 需要에 따라 第三世界의 收入이 크게 左右된다.

둘째 第三世界는 工業의 未發達로 必要한 消費材와 生産材의 大部分을 第一世界로부터 輸入한다. 이같이 低廉한 原料의 販賣로 얻은 輸入으로 高價의 工産品을 購入하여야 하기 때문에 第三世界 國家는 恒常 外貨가 不足하다.

세째 第三世界 國家는 元來 資本이 不足하기 때문에 産業發展을 위한 資金을 支國 投資 및 借款과 같은 外資에 크게 依存한다.

네째 外國資本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을 위해 使用되지 않고 輸出 目的의 商品 生産에 使用된다. 그리고 輸出用 商品은 制限된 工業團地에서 生産되어 外國으로 輸出된다. 따라서 第三世界 國家의 極少數의 地域만 工業化되고 나머지 大部分의 地域은 傳統的인 農業經濟體制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다섯째 第三世界 國家는 産業發展을 위한 技術이 不足하므로 이를 第一世界에서 導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特許權 使用料는 極히 비싸고 또 使用權은 언제라도 回收될 수 있다.

위와 같은 狀況下에서 第三世界는 第一世界에 經濟적으로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고 從屬理論은 結論짓는다. 從屬理論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第三世界의 第一世界에 의 依存은 第三世界內에 不可避하게 貧富의 差를 가져 온다고 主張한다. 開發途上國의 執權「엘리트」는 先進國의 政府나 會社의 事業認可·收賄 등을 통하여 利得을 取하나 一般國民은 雇傭面에서나 賃金面에서나 利益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論理 아래 從屬理論은 先進國에 의 依存이 開發途上國에서의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의 登場을 不可避하게 만든다는 點도 指摘하고 있다.

(4) 「마르크스·레닌」主義說

「칼·마르크스」自身은 資本主義體制 自體의 成立과 沒落에 큰 關心이 있었으므로 後進國이 資本主義의 前段階인 封建主義階에 있음을 指摘하였을 뿐 그 以上 이에 關해 具體的 研究는 하지 않았다. 이어서 「레닌」은 「마르크스」가 予言한 것처럼 西歐 資本主義國家가 쉽게 沒落하지 않는 理由를 그들의 植民地 擄取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는 西歐 資本主義國家가 그 命脈을 維持할 수 있는 理由는 剩餘資本과 商品을 後進 植民地에 投入·販賣하고 後進 植民地에서 勞動力과 原料를 擄取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有名한 帝國主義理論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레닌」의 帝國主義理論은 後進國이 未開한 理由를 西歐 資本主義國家의 擄取에 돌리고 있다는 點에서 外部의 影響을 認定하나 後進國이 資本主義 國家와의 關係를 斷絶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後進性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自體內에서 歷史的 發展段階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다는 點에서 内部的 要因을 더 重要視한다 하겠다. 事實 傳統的 「마르크스」主義는 各 社會가 各其 다른 歷史的 發展 段階에 있는데 勞働者 階級이 支配하는 社會主義 段階 以後에 이르러서야 眞正한 發展이 있다고 본다.

3. 以上 諸學說에 대한 批判

以上에서 概說한 네가지 理論은 各其 明白한 誤謬를 犯하고 있는데 이를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文化的 原因說에 관해서 보면 第三世界에 屬하는 國家들이 그 文化的 特性 때문에 經濟發展이 遲延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그것이 經濟的 貧困의 根本 原因이라고는 할 수 없다. 西歐의 先進國들도 産業革命前에는 後進國과 類似한 文化的 特性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産業革命이 始作되었으며 어떤 傳統文化的 屬性中에는 産業發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經濟發展과 文化變遷 사이에는 原因·結果關係보다도 辨證法的 關係가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둘째로 構造說에 관해서 보면 그것이 現國際經濟秩序가 開發途上國에 不利하고 先進國에 有利하다는 事實을 指摘한 點은 옳다. 그러나 이와 같은 經濟秩序가 成立된 原因을 說明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說은 이미 貧困한 國家를 이미 富裕한 國家가 經濟的으로 搾取하고 있는 事實을 說明하는 理論이라 함이 옳을 것이며 後進國이 貧困하게 된 原因은 따로 究明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從屬理論에 관해서 보면 經濟的 從屬이 經濟發展을 阻害한다는 理論은 事實과 다르며 經濟的 依存이 經濟·社會的 不平等을 가져온다는 理論은 아직 確認되지 않았고 經濟的 依存關係와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와의 直接的 相關關係가 없다는 것이 一般的 見解이다.

네째로 「마르크스·레닌」主義說에 관해서 보면 共產主義理論은 ① 똑같은 植地地經驗을 가지고 있고 西歐 資本主義 國家와 똑같은 程度의 經濟的 依存關係에 있는 國家가 各其 다른 發展段階에 있고 ② 植地地 經驗이 있고 西歐 資本主義 國家와 經濟的 依存關係에 있는 國家가 똑같은 植地地 經驗을 가지고 있으며 共產主義國家와 더 緊密한 經濟的 關係를 맺고 있는 國家보다 더 經濟的으로 發展되고 있으며 ③ 植地地 經驗이 있는 國家가 同經驗이 없는 國家보다 더 經濟的으로 發展되어 있다는 등의 事實을 說明하지 못한다. ④ 또한 美國과 같은 資本主義體制의 影響下에 있는 國家가 蘇聯과 같은 共產主義體制의 影響下에 있는 國家보다 더 發展한 경우가 많은 理由도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Ⅲ. 新植地主義에 대한 評價

1. 諸假說과 關聯變數

新植地主義理論은 첫째 先進資本主義國과 開發途上國間의 經濟關係는 반드시 前者에게만 有利하고 둘째 後者의 前者에 대

한 經濟的 依存關係를 가져온다는 두 個의 假說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므로 新植民地主義의 妥当性 与否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以上의 두 假說이 果然 現實과 符合하는가 를 調査해 볼 必要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純粹한 經濟的 角度에서 提起되고 있는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 과의 關聯에서 考察하는 것이 効果的이다.

經驗的 經濟理論으로서 提唱되고 있는 從屬理論은 다음 세가지 假說에 立脚하고 있다.

① 中心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經濟的 依存은 周辺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低開發國 또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을 沮害한다.

② 經濟的 依存關係는 低開發國 또는 開發途上國內의 社會·經濟的 不平等을 惡化시킨다. (新植民地主義理論은 國內의 不平等보다 國際的 不平等을 더 強調한다)

③ 經濟的 依存關係는 低開發國 또는 開發途上國에 權威主義的 政治體制를 가져온다(新植民地主義理論은 이 外에 低開發國 또는 開發途上國의 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政治的 依存關係를 強調한다.)

從屬理論의 科學性을 證明하려면 從屬의 概念을 明確히 定立하고 從屬의 變數 乃至 經濟的 依存度를 測定하는 變數를 提示하여야 한다.

經濟的 依存度는 經濟市場의 依存도와 經濟力의 依存도로 分離할 수 있다. 그中 經濟市場의 依存도란 後進地域 또는 開發途上國家群의 經濟가 先進資本主義 經濟體制

에 全體的으로 依存하는 程度를 말하고, 經濟力의 依存도란 어느 特定한 後進國 또는 開發途上國의 經濟가 特定한 先進資本主義 國家의 經濟에 個人·會社·支社 등을 통해 依存하는 程度를 말한다. 從屬理論者가 말하는 經濟的 依存이란 主로 經濟力의 依存을 意味한다. 經濟力 依存의 概念이 經濟市場 依存의 概念보다 先進國과 後進國의 差異를 보다 明確하게 나타내 주고 從屬理論者의 主 攻擊 對象인 多國籍企業體(multinational corporation)의 機能을 보다 잘 說明해 주기 때문이다. 「맥가윈」과 「스미스」(Patrick McGowan and Dale Smith)가 使用한 諸變數는 다음과 같다.

◇ 經濟市場의 依存度 ① 商品集中度: 總輸出中 세 個의 重要商品이 차지하는 比率 ② 貿易比重度: 總貿易量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率 ③ 1人當 外國投資額 ④ 總外國個人投資額

◇ 經濟力의 依存度 ① 援助集中度: 特定 援助國의 經濟·技術 援助額이 總援助額에서 차지하는 比率 ② 貿易集中度: 特定 貿易對象國에 대한 輸出額이 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比率 ③ 投資集中度: 特定 投資國으로부터의 投資額이 總外國個人投資額에서 차지하는 比率

◇ 經濟的 發展度를 測定하는데 흔히 쓰여지는 變數 ① GNP (國民總生産高) ② 1人當 GNP ③ 1人當 에너지消耗量 ④ 1人當 醫師數 ⑤ 總活動人口 中 賃金勞動者가 차지하는 比率 ⑥ 文盲率 ⑦ 人口 10萬名當 營業用車輛數

여기서 注意할 것은 經濟的 依存(econo-

mic dependency)과 經濟的 未開發(economic underdevelopment)과는 서로 다른 概念이라는 것이다. 經濟的 未開發國家가 大概 先進資本主義國家에 經濟的으로 依存하고 있기는 하나 經濟的 未開發國家이면서 先進資本主義國家에 經濟的으로 依存하지 않는 國家도 있고 또한 經濟的으로 開發된 國家이면서 外國에 經濟的으로 依存하는 國家도 있는 것이 實情이다. 따라서 新植民地主義理論과 從屬理論은 經濟的 依存성과 經濟的 低開發성과의 關係에 관한 特殊理論이고 低開發의 原因에 관한 一般理論이 아니므로 이들 理論의 妥当性を 確認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依存國家이자 經濟的 低開發國인 亞細亞·「아프리카」 및 中南美國家들을 研究對象으로 하여야 하며 世界 모든 低開發國을 研究對象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2. 理論的 妥当성에 관한 實証

(1) 後進國의 先進國에 대한 經濟的 依存關係는 先進國에게만 有利하고 後進國에게는 不利하다는 假說

가. 經濟的 依存과 經濟發展과의 關係

現在까지의 行態主義 方法에 의한 研究結果에 따르면 先進國에 대한 經濟的 依存이 後進國의 經濟發展을 阻害한다는 新植民地主義理論이나 從屬理論의 假說이 事實에 反한다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 어떤 學者들은 低開發國이 先進資本國家와 經濟的 依存關係를 維持함으로써 오히려 經濟發展을 促進할 수 있다는 新古典的 發展理論이 事實과 더 符合함을 發見하였다.

나. 經濟的 依存과 經濟·社會的 不平等 「아프리카」와 中南美 開發途上國에 관한 行態主義的 方法에 의한 研究結果에 따르면 經濟的 依存도와 經濟·社會的 不平等間에는 多少 相關關係가 있으나 經濟的 依存關係가 經濟·社會的 不平等을 가져오는 直接原因은 아니고 經濟的 依存이 急速度의 經濟成長을 가져오면 이것이 다음으로 經濟·社會的 不平等을 招來한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2) 經濟的 依存關係는 國內的으로 權威主義的 政治體制를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先進資本主義國家에 대한 政治的 從屬關係를 가져온다는 假說

가. 經濟的 依存과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와의 關係

이 假說은 從屬理論이 主로 強調하는 것인데 中南美國家에 관한 몇몇 行態主義的 方法에 의한 研究 結果에 따르면 經濟的 依存은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와 何等 直接的 關係가 없다는 것이 發見되었다.

나. 經濟的 依存과 政治的 依存과의 關係

主로 新植民地主義理論이 提唱하고 있는 이 假說도 아직 行態論的으로 確認되지 않고 있다. 黑「아프리카」國家에 대하여 이 假說을 檢証한 「벤그로프」(Richard Vengroff)는 經濟的 依存과 政治的 依存間에 相當한 相關關係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의 檢証法은 問題를 남기고 있다. 그는 政治的 依存도를 測定하는 尺度로서 오직 「유엔」에서의 票決動向만을 使用하였던 것인데 「유

엔」總會 票決時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國家와 前植民地統治國間의 團結度는 票決에 부친 問題의 種類에 따라 다르고 또한 問題의 種類에 關係없이 一般的으로 얕은 것이다.

4. 結 語

新植民地主義理論은 1960~70年代라는 最近의 特定한 歷史的 時期에 強大國과 中·小國 또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政治·經濟關係를 考察對象으로하여 既往에 植民地統治를 받다가 戰後에 獨立을 達成한 第三世界의 開發途上國들이 植民地主義의 再現을 警戒하려는 意圖에서 提起하여 現實적으로 影響力을 發揮해 왔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 事實 第三世界의 開發途上國들은 非同盟中立主義路線을 取하고 新植民主義에 反對함으로써 國際政治와 國際經濟의 現實속에서 그들의 權益을 保護·增進하는데 많은 成果를 거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70年代 後半期 以後 이들 國家의 新植民主義에 대한 見解가 달라지게 되어 南北問題가 發生한 責任이 北의 先進國

들에게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南의 資源 保有國側에게도 있다는 見解가 擡頭됨으로써 新植民主義理論의 妥當性이 再檢討됨에 이르렀다. 그런 點에서 新植民主義理論은 모든 時間的·空間的 狀況에 適用될 수 있는 普遍性을 가진 것이라기 보다 어떤 特定狀況 下에서의 政策目標에 奉仕하기 위한 時限的 効用性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強大國과 先進國間에도 權力 政治를 止揚, 理念과 體制와 國家利益을 超越하여 人類全體의 平和와 繁榮과 福祉를 위한 새 世界秩序를 構築하며 이에 이르는 道程에서 互惠平等 및 國際正義에 立脚한 새 國際經濟秩序부터 形成하려는 움직임이 國際聯合 內外에서 힘을 얻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鼓舞的인 趨勢라고 하겠다. 이러한 努力이 本格化될 때 新植民主義理論은 그의 歷史的 役割을 다하고 보다 次元높고 未來指向的인 世界政治經濟秩序에 관한 理論과 構想에 그 자리를 넘겨 주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朴尚植著, 「國際政治學」, 서울, 集文堂, 1982. 第4章 第3節 帝國主義, 第4節 新植民主義 部分.
2. 崔鍾起著, 「現代國際關係論」, 全訂版, 博英社, 1983. 第2篇 第10章 마르크스主義 世界政治論, 第3篇 第14章 小國·發展途上國, 第4篇 第23章 資源·에너지問題.
3. 朴尚植著, 「第三世界의 解剖」, 서울, 集文堂, 1982. 第V章 第三世界의 政治過程, 第VII章 第三世界의 政治經濟.
4. 嚴홍철編著, 「제3 세계와 종속이론」, 서울, 한길사, 1980. 序論, 第2部, 第3部.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A. A. LA칼 新植民主義」 「아시아 아프리카講座」 第1卷, 東京, 勁草書房, 1964.

5. 土井長穂, “植民地体制の崩壊と新植民主義” 「アジアアフリカ研究」1962年 3月号, 東京.
6. 西川潤著, 「第三世界の構造と動態」, 東京, 中央公論社, 1977.
7. Kwame Nkrumah, *Neo-Colon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65.
8. Kwame Nkrumah, *Africa Must Unite*, Prager. New York, 1963. , ,
9. Patrick McGowan & Dale, L. Smith, “Economic Dependency in Black Africa : An Analysis of Competing Theo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XXXII, No.1, (Winter 1978).
10. Richard Vengroff, “Dependency and Underdevelopment :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XV, (October 1977), Benjamin J. Cohe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New York, 1973.
11. Gabriel Almond and James Coleman, eds., *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 J., 1960.
12. N. S. Fatemi & G. W. Williams,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roblems and the Prospects*, A. S. Barnes and Co., Inc., N. J., 1975; 金民彩訳, 「多国籍企業論 - 問題와 展望」, 法文社, 1976.
13. Wassily Leontif,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7.
14. Dieter Senghaas, “Self-Reliance and Autocentric Development : Historical Experience and Contemporary Challenges”, *Bulletin of Peace Proposals*, (January 1981).

한 마음 한 뜻으로

88 큰 일 치러내자

北傀 對南戰術의 變化樣相



중 위 김 기 국
제 5315 부대

목 차

- 序 論
- 本 論
- 1. 8·15해방에서 6·25 남침까지
- 2. 6·25남침 이후 휴전제의까지
- 3. 휴전제의 이후 휴전성립까지
- 4. 휴전성립 이후 4·19 의거까지
- 5. 4·19의거 이후 5·16 혁명까지
- 6. 5·16혁명 이후 남북대화 개시까지
- 7. 남북대화 개시 이후 대화 중단까지
- 8. 남북대화중단 이후 버마사건까지
- 9. 버마사건 이후 현재까지
- 結 論

序 論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고 있는 이른바 공산화 혁명을 위한 전략·전술은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式化하여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탈린에 의하면 전략이란 “혁명의 해당 단계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主攻 방향을 결정하고 혁명적 역량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을 작성하여 혁명의 해당 단계 전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라 하고 있다. 또 ‘전술’이란 “운동의 만조 및 간조, 혁명의 양양 및 침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프롤레타리아가 행동할 노선을 결정하고 투쟁 및 조직형태, 그리고 표어를 낚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교체하며 또한 그것들을 배합하는 방식 등으로 그 노선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략이란 기본적인 지속성을 지닌 次元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단계의 혁명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며, 전술이란 종속적이고 가변성을 지닌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혁명단계에 있어서도 그 혁명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28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차 코민테른대회에서는 공산화 혁명의 기본 유형을 '강령'으로 결정해 놓았는 바, 그 하나는 선진국에 적용하는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중진국에 적용하는 혁명이며, 또 다른 하나는 후진국에 적용하는 혁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고 있는 혁명 유형이 바로 이 후진국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후진국에서는 공산화 혁명을 2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 이고 그 다음 단계가 주민의 재산권(생산수단)을 몰수하기 위한 이른바 '社會主義革命' 인 것이다.

북괴의 金日成 집단은 8·15해방 이후 소련 점령군의 지원 하에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일방으로는 소위 '民主基地노선'에 입각하여 6·25 무력남침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다음, 전 한반도를 同時的인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시키려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UN군의 개입에 부딪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남한을 여전히 인민민주주의혁명 대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15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북괴 공산집단에 의한 對南戰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는 것이며, 오직 변화된 것은 공산정권의 수립이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목표 달성에 북중하기 위한 전술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

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북괴가 오늘날까지 취해 온 대남전술의 행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本 論

1. 8·15해방에서 6·25남침까지

1945년 8·15해방으로부터 6·25남침까지의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북한)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그 객관적 여건(남한)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괴의 자체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대응역량을 약화시켜 무력남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세적 방어형 전술과 우회공격형 전술을 배합한 양면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북한에서는 소위 '민주기지노선'에 의거하여 공산주의식 정치·경제적 재개혁을 단행하고 소련의 지원하에 군사력을 육성하는 한편, 남한 각지에서는 무장유격전과 군내의 반란, 그리고 10·1 대구폭동 및 4·3 제주도폭동 등을 일으키게 해놓고서도 한편으로는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제안하는 술책을 썼던 것이다.

이 시기의 북괴의 대남전술적 지도과제는 우회공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合法 및 非合法투쟁, 경제 및 정치투쟁 등을 배합해 나가고 거기에 알맞는 조직형태와 표어를 취하면서 남침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중에서도 이 기간 중, 특히 그들이 전술적인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도록 공작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되기만 하면 그동안 준비한 압도적인 무력으로서 남한 정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로 그같은 타산에 의하여 소련과 공모하여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군이 선제 철수하면서 남한 주둔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하였고, 그런 가운데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도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2. 6·25남침 이후 휴전제의까지

다음으로 6·25남침으로부터 휴전제의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만조기 단계로 보고 彼我力量의 제산과 시험을 마치고 결정적 시기를 포착한 바탕 위에서 본격적인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1월 초에는 예치슨 美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으며, 더우기 남한 내부에는 정치적·사회적 불안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전 무장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무력남침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북괴는 만조기 전술단계의 정면공격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각지에 남로당계 당 간부를 파견하여 각 지구당을 양성화시켰으며 또한 호전적인 표어를 내걸어

남한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소위 '인민군'의 남침작전을 지원하도록 공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 각지에서는 각종 좌익단체가 雨後竹筍처럼 조작되었고 특히 '반동분자' 숙청이란 명분하에 수많은 양민을 처형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력을 다하여 성취하려고 했던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 전역을 조속히 강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한 전역을 무력으로서 강점하기만 하면 나머지 공산화 목적은 자동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3. 휴전제의 이후 휴전성립까지

세째로 휴전제의로부터 휴전 성립시까지의 기간에는 북괴에 의한 본격적인 정면공격이 UN군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자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간조기 전술단계로 보고 자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1950년 9월 UN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위기에 몰리게 되자 생존 유지책으로서 1951년 6월 소련의 UN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북괴는 한편으로는 타협적 협상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양면 전술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남한 내의 와해된 지하당을 5개 지구당으로 개편, 재건하고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5개 지구당 통제하에 유격전을 감행케함으로써 남한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전선에서의 보다

나은 전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휴전을 가능한한 유리하게 매듭지으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전선과 남한 내의 후방에서 전개하는 유격전을 결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과 보다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면서 휴전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휴전을 앞두고는 생존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어차피 일단 휴전을 하기는 하되 장차의 재남침을 위하여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지위를 격상시켜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유지함으로써 ‘침략자’의 오명을 씻고 현실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4. 휴전성립 이후 4·19 의거까지

네째로 휴전성립으로부터 4·19의거까지의 기간에는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적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그들이 자체 역량을 비축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와해된 대열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6·25남침 실패의 책임을 남로당계에 전가시켜 정적을 숙청하는 한편, ‘민주기지노선’을 재확인하고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행에 착수하였으며, 이어서 1957년부터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둔 5개년계획 실천에 착수했다.

그리고 1955년 5월에는 일본에 있는 ‘在日本 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을 ‘在日本 朝鮮人總聯合會’로 개편하여 남한 공산화의 간접기지를 만들어냈고 그들을 내세워 재일

동포 북송공작을 추진한 결과, 1959년 11월부터 재일동포의 북송이 개시됨에 따라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의 일부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대열정비와 역량비축이 이루어지자 1958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平和統一’을 내세워 대남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마치 남한이 호전적이며 그들은 평화지향적인 정권인 것처럼 위장하는 평화공세를 펴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동향은 수세적 방어전술에서 앞으로 공세적 방어전술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으며 6·25동란이 남침 아닌 ‘북침’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韓美 양국을 ‘침략자’로 조작하려는 적반하장격인 전술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앞으로의 재남침을 위하여 북괴 자체의 정치·경제·군사력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5. 4·19의거 이후 5·16혁명까지

4·19 이후부터 5·16까지의 기간에는 혁명의 객체적 여건은 만조기 전술 단계였으나 북괴의 주체적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4·19사태라고 하는 공산화 ‘人民革命’에 유리한 여건을 바라보면서도 정면공격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맹렬한 평화공세에만 의존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만 구사하였다. 즉, 공산화 혁명 성취에 직접 연결될 적극적 행동은 단행하지 못하고 4·19 학생의거가 마치 북괴를 지지하여 일어난 인민봉기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남북협상

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선동하는데 치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 조성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목적으로 그들의 공작원을 대량 남파시켰다.

그리고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대회 석상에서 金日成은 연방제 통일안을 제의하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남한의 정국혼란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였고 민선민주청년동맹(후의 産勞靑)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조직같이 ‘조선학생위원회’로 탈바꿈시켜 남한 학생들의 조직과 대등하게 꾸밈으로써 남한 학생들에 대한 선동·침투공작을 강화하였다.

더우기 북괴는 당시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남한의 혁신계열을 지원하여 국론분열을 주장하는 한편, 일방으로는 그들의 종속적인 당으로서의 지하당 조직을 서둘러서 걸어서는 ‘平和統一’을 요란하게 내세웠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괴는 이 기간 중에 자체 역량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한 내에 지하당 구축을 비롯한 용공세력의 부식을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고 간첩의 대량 투입과 평화통일론을 요란하게 선전하는데 광분하였던 것이다.

6. 5·16혁명 이후 남북대화 개시까지

여섯째로 5·16혁명 이후부터 남북대화

개시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정면공격 임무가 부여되는 만조기 직전의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彼我力量을 계산·시험하는 완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남한의 반공태세가 강화되자, 이에 자극되어 ‘4대 군사노선’을 서둘러 추구하였고 그 결과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1966년부터는 적극적인 폭력적 대남도발 공작으로 전술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1월 21일에는 31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청와대 기습을 시도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울진·삼척지역에 120명에 달하는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재남침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역량의 시험은 실패하였으나 서울의 심장부에까지 그들의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는데 고무되어 비정규전적인 폭력에 의한 남한 공산화를 본격적으로 획책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특수 8군단을 신설하여 10만명 내외의 특공병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게릴라 투입에 의한 대남 공산화가 뜻대로 진전되지 않자 金日成은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의 革命基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남한에서의 자체 혁명역량을 육성·강화시켜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合法·半合法 투쟁과 非法 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 투쟁, 대규모 투쟁과 소규모 투쟁 등을 배합하여 혁명은

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전술적 중심고리는 비정규전 방식을 위주로 하는 ‘人民戰爭’, 즉 게릴라 전술을 구사해서 만조기를 조성해 나가려는 것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7. 남북대화 개시 이후 대화 중단까지

남북대화 개시로부터 중단까지의 기간에는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고 남북대화라고 하는 우회적 방법을 써서 공산화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세적 방어형 전술로서의 우회공격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즉, 이 기간은 무력도발을 통한 남한 공산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계기로 남한 국민들이 통일의 기분에 들뜬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편승하여 용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한 국민들의 처공 경각심을 이완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법적 방법으로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드디어는 대화의 지속 및 진전의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획책하였다. 그와 같은 의도하에 내건 것이 바로 반공법·국가보안법의 철폐, 용공인사의 석방, 소위 ‘통일혁명당’을 포함한 각 정당·사회단체의 대화 참여 요구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은 것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로써 공산화 혁명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그러한 의도가 쉽사리 달성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남북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인 대화 중단 성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8. 남북대화 중단 이후 버마사건까지

남북대화 중단 이후 버마사건까지의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객체적 여건을 양양기 전술단계로 보고 남한 자체 내에서의 反美·反政府 운동을 조성하여 소위 ‘人民革命’의 여건을 고조시키는데 역점을 둔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약하였을 당시에는 대남전략 목표의 우선순위를 ‘先 주한미군 철수’에 두었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여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백지화하자 이번에는 전략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先 반공정권 타도’ 편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신축성있는 전술운동으로 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는 ‘대화에 의한 공산화 혁명의 여건 조성을 단념하고 남한에 의한 대화 및 통일방안 제의를 사리에 맞지 않는 구실을 붙여 반대하면서 ‘대민족회의’ ‘전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 ‘100인 정치인연합회의’ 등을 내세워 ‘연방제’안을 고집스럽게 내걸고 남한의 국론 분열을 기도해 온 것이다.

북괴가 이 시기에 전력을 다하여 붙잡고 끌어 당기려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한의 반공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정부 소요를 확산시키도록 공작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투쟁 형태를 배합하여 공작하며 남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약점, 특히 각계각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반정부적 운동을 고조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9. 버마사건 이후 현재까지

버마사건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침체기 전술단계로 보고 객체적 여건은 만조기 직전의 완전한 양양기 전술단계로 간주하여 한편으로는 북괴의 자체역량 비축 및 대열정비를 위한 수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혁명역량을 만조기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세적 방어형 전술을 구사하는 양면 전술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현 시점에서 혁명의 주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술적 중심고리는 남북대화의 유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혁명의 객체적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착하고자 하는 전술적 중심고리는 운동권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연결시켜 이들의 연계 투쟁에 의한 사회변란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인다.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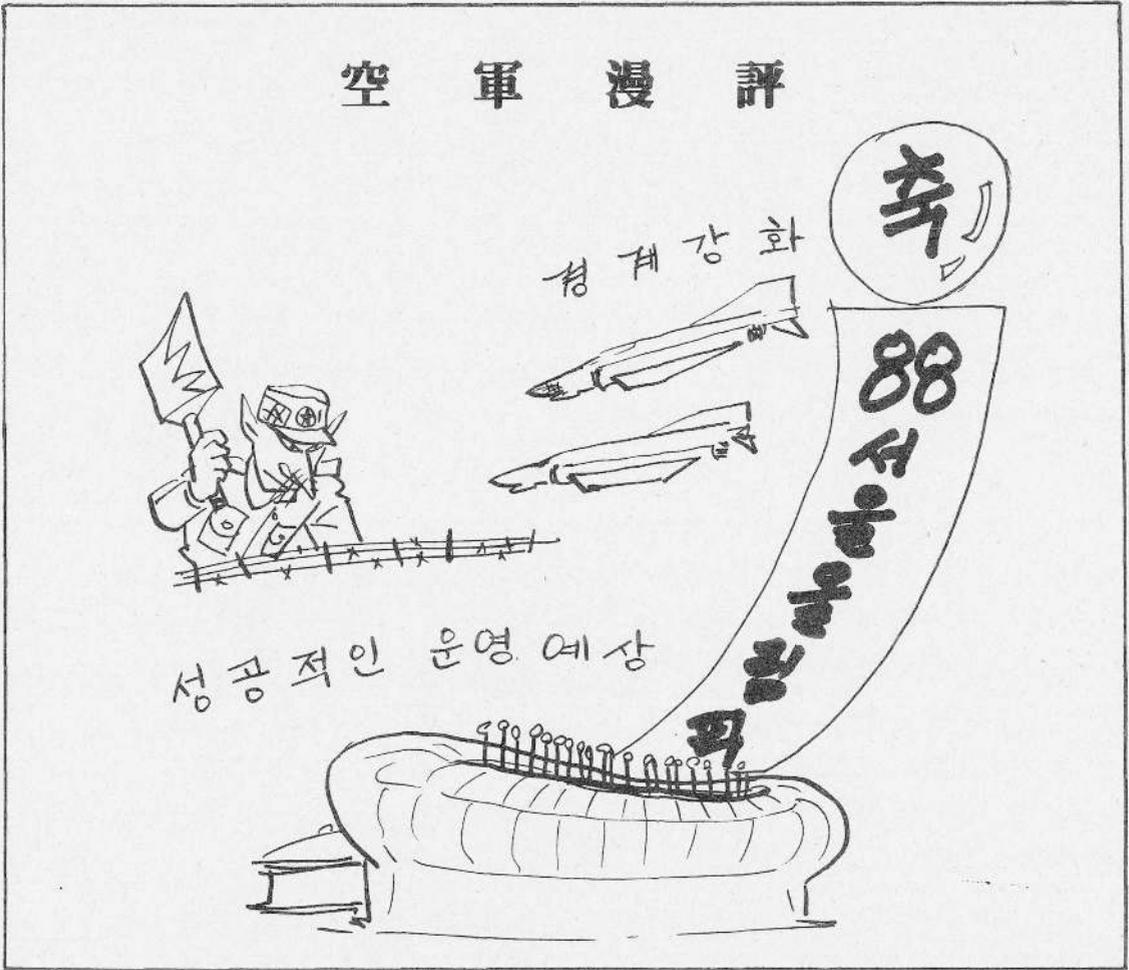
이상으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괴가 구사한 전술적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들은 일단 혁명의 만조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감행하고 그것이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면 후

퇴하여 재공격을 위한 대열 정비와 역량 비축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열 정비와 역량 비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세적인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어로 전환하여 彼我 간의 역량을 계산하고 시험하는 등 또 다시 만조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작에 임하게 된다.

이러는 동안 그들은 각종 투쟁형태·조직형태 및 표어를 배합해 가면서 이용가능한 모순과 약점에 파고들어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때에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합법적인 경제 및 소규모 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상황이 허용되면 비합법적인 정치 및 대규모 투쟁으로 戰列을 강화·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적 지도원리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동 체계는 휴식이 없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은 이 과정에서 혁명의 主力軍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장차 제거 또는 개조 대상으로 책정하고 있는 청년 인텔리층과 종교인들의 현실 비판의식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무·찬양·영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략이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의 前段階革命인 人民民主主義革命 전략단계의 특징인 전략적 지도에 따른 보조군 이용방법, 즉 統一戰線戰術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성취되고 나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들 인텔리 및 종교인은 마땅히 제거 내지 개조대상으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空軍漫評



그러나 현재는 人民民主主義革命 전략단계이기 때문에 장차 사회주의 혁명기에 속청하도록 책정된 계층까지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전술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모하면서도 해당 혁명단계의 전략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괴의 향후 동향에 있어서는 그 전술상의 변화가 있을 뿐

결코 전략적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골적인 무력남침 또는 남한 내에서의 혁명 유발을 위하여 그들이 어떻게 역량을 계산하고 시험하면서 혁명의 만조기를 조성하며, 소위 '결정적 시기'를 포착, 이용하려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생의 조그마한 의미



중위 신 준 상

제 6546 부대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축복하는 가운데 인간은 태어난다.

천진무구한 아이의 눈망울은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을 뒤덮는 백색의 눈처럼, 깊은 밤 홀연히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다.

아이들에게 적의를 품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또한 커오면서 적의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른 역시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푸른 하늘을 떠가는 뭉게구름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밤을 지새고 나면 모두 부질없는 일이거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짜증내고 가슴아파 하는가?

가슴을 비우고서 남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

추한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늙은 가운데서 생명력이, 바쁜 가운데서 한가로움이 비었던 가슴으로 되채워진다.

너를 보면서 나를 느끼고 나에게서 네 모습이 보이면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을 닦자.

보도블록 사이에 풀 한 포기들 들여다 본다.

비좁은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더니 사흘이 지나자 제법 줄기가 올랐다.

각박한 세상을 용케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주고 위로하던 내 부모님들의 모습이다.
먼 옛날 침략과 약탈 속에서 다시 허리띠고 일어서던 우리 선조들의 얼굴이다.
우리의 모습이 저 풀 한 포기일진대 나는 무엇을 아쉬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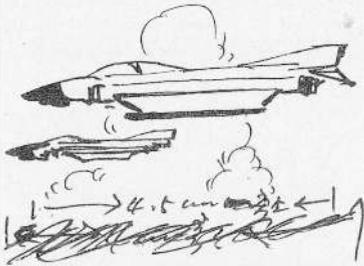
어린 시절 세계여행을 꿈꾸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나의 꿈도 세계여행이다.
조그마한 가방 하나를 들고 미련없이 훌훌 길을 떠나 배고프면 밥먹고 피곤하면 쉬어가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다.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픔을 느끼고 즐거울때 함께 웃으며,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걸, 그들이 바로 내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아직은 밤.
자동차의 낮은 경적소리를 멀리하고 조용히 상념에 젖어본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왔는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많은 어른들과 친구들 그리고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 하여 먼 훗날 내자식들이 어떤 생을 살아왔느냐고 묻거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적지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하려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인간은 죽어간다.
그때 나는 웃고싶다.

詩

하늘에 올라



중령 임관영
공군 제6751부대

여기는 하늘의 바다
고도 6천 피이트
기수는 남쪽으로
날으는 배를 타고
세상을 본다.

십층 육십층 높게만 보이더니
오천평 십만평 넓게만 보이더니
성냥갑 성냥갑 같은 집
벽돌장같은 건물 속에서
벌렌듯 벌렌듯 살아들 가지만

여기 와선 하찮은 광경

저마다 잘났다고 잘났다고
머리엔 천금을 이고
높고 낮음을 이루고
미움과 질투 사이를
뺏시고 뺏시게 살아들 가지만

여기 와선 하찮은 광경

빈부면 빈부가 얼마나 깊고
잘남과 잘남의 차이는 얼마나 되어
선과 벽을 이루고 살아들 가지만은

여기와선 하찮은 광경.

* 본 작품은 시인통신사 제 1 회 신인상 수상 작품임.

〈詩 作 所 感〉

구름으로 덮여진 맑은 한낮에 파아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더 없이 아름답던 날 나는 출장가는 길에 「하늘을 올라」를 썼다. 글을 끝냈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었다. 잠시라도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것 아무 생각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던가 가끔 여자가 있을 때는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즐거웠던 일 슬프고 괴로왔던 일 해야 할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곤 했다. 아직도 눈 내리는 날 초저녁에 부엉이 울음소리 들리면 1·4후퇴 때 떠나가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새로이 눈물이 나고 고드름이 질펀히 녹아가는 봄날이면 들로 파종을 나가시는 어릴적에 아버지가 그림고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총소리 들리는 날이면 강한 어금니를 물고 어찌다가 아는 이 訃報를 접하면 먹통으로 우는 가슴, 이런 저런 생각들



이 내게는 깨달음과 보람으로 이어져 풀씨처럼 나(飛)는 시각의 연속이곤 했다.

좋은 시를 읽게 되면 훌훌히 산과 바다를 찾아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온 뒤의 상큼한 기쁨과 같은 신선함을 느낀다. 감히 그런 시를 쓰고 싶은 생각을 했었다. 실은 자신이 없었고 오랜 군생활 속에서 임무를 항상 보람과 긍지로 실천하는 나날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보니 깊은 사고로 엮지 못한 글인듯 하다. 그러나 나의 임무가 무엇임을 알고 최소한 허물을 감싸주리라 믿는다.

(詩)

FALCON이 나른다

준 위 전 호 명

제 3 5 6 9 부대

Falcon이다.
Fighting Falcon이다.
하늘의 要塞 F-16
그 威容 命名하여
「必勝 보라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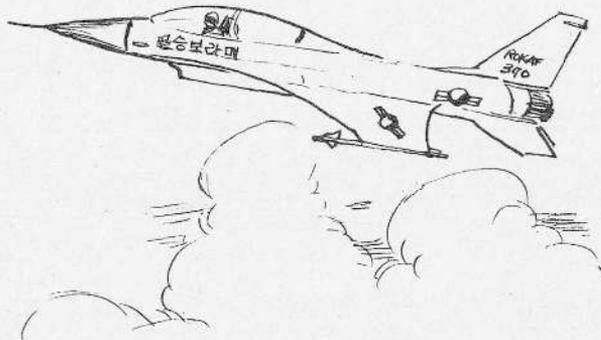
우리의 솜씨로
하늘을 날고
우리의 슬기로
높이 솟는다

구름을 갈라보는
祖国의 飛翔이려니
바람을 톱질하는
겨레의 飛翔이려니
音速을 가늠하는
自由의 飛翔이려니
멋을 創出하는
繁榮의 飛翔이려니

우리가 이룩한
歷史의 수레 위의
우리가 이룩한

世界 속의 大韓民國
우리가 이룩한
안보의 力量 위에
우리가 이룩한
올림픽의 歡喜에서
우리가 保有한
「必勝 보라매」

希望을 爲한
보라매가 되어
사랑을 爲한
파수꾼이 되어
Falcon이 나른다.
하늘 더 높이
더 멀리
더 確實하게
Falcon이 나른다.
Fighting Falcon이 나른다.



民族史的正統性

— 南北韓 比較 —



중 위 吳 光 錫

제 6972 부대

目 次

1. 序 論
2. 民族史的正統性的概念 및 判斷基準
3. 南北韓의 民族史的正統性 比較
4. 結 論

1. 序 論

分斷이 장기화됨에 따라 南北韓의 異質의 人 社會風土는 住民들의 精神生活에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와 事物에 대한 價值判斷의 基準과 精神的 發達을 달리하게 되었다.

自由와 福祉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곧 人類歷史이며, 이같은 노력을 통한 人類文化의 蓄積이 곧 人類歷史의 發展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民族의 普遍化된 歷史觀이다.

따라서 大韓民國은 이와 같은 歷史觀 위에 民族史의 正統性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며, 또한 무엇이 가장 보람되고 價值있는 것인가를 判斷하는 基本的인 價值體系를 수립하고 있다.

반면 北韓共產集團은 物質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價值觀을 내세워 소위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異質의 外來思想에 맹목적으로 도취되어 우리 民族의 思想的 傳統을 根本적으로 破壞시키고, 民族文化의 主体的 精神을 分裂시키는 한편, 主体思想이라 불리는 김일성 唯一思想을 集團 이데올로기로 채택함으로써 民族史의 正統性을 날조·왜곡하고 있다.

2. 民族史的 正統性的 概念 및 判斷基準

가. 概 念

正統性(Legitimacy)을 正當한 系統, 올바른 繼承을 意味하는 것으로 主体性이 文化的, 社会的 측면을 強調하는 民族的 概念인데 반하여 正統性은 政治的 측면을 강조하는 國家的 概念이다.

따라서 民族史的 正統性은 民主主義에 대한 民族의 自律基盤을 確認시켜 주며, 이러한 正統性이 확인될 때 그것은 곧 統一을 實踐하려는 國家的 正統性을 意味하기도 하며, 또 統一된 이후의 歷史를 담당할 國家的 正統性으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正統性은 民族統一이나 그 이후의 歷史에 있어서 그 主体를 大韓民國으로 確認시킬 수 있는 가장 根本的인 基盤인 것이다.

나. 民族史的 正統性 判斷의 基準

民族史的 正統性을 判斷하는 基準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普遍的인 基準으로 正當性의 여부와 정도, 空間에서의 中心性, 時間에서의 連續性과 承繼에서의 先位性을 든다.

正當性의 여부와 정도를 判斷하는 要素로는 國家理念의 民族主義에의 接近度, 均等한 政治的 社会的 參與의 機會提供, 公正한 社会的 原理과 法律의 테두리 안에서 平等한 自由를 향유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重

要視된다.

空間에서의 中心性은 人口, 國民의 對內外 活動의 量과 質, 集團의 能力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時間에서의 連續性과 承繼에서의 先位性 問題는 民族文化의 傳統繼承, 民族獨立鬪爭의 承繼者로서의 地位 등을 要素概念으로 하여 判斷한다.

다음 章에서는 이러한 基準에 입각하여 南北韓의 民族正統性 問題를 比較 分析하기로 한다.

3. 南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 比較

가. 正當性의 여부와 정도

正當性을 判斷하는 基準으로는 民族國家性과 異論의 여지는 있으나 民主性에 관하여 一般的으로 인정되는 參與의 기준에 의한 장기집권과 독재를 重要한 尺度로 삼는다.

(1) 民族國家性

● 南韓: 시민대중의 생산모태인 政治 社會化와 經濟發展을 통해 單一民族의 國民을 양성하고 現代國家의 基礎確立에 성공함으로써 國家의 民族化, 國家의 民主化를 效果的으로 달성하였다.

● 北韓: 階級意識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시민대중 간의 鬪爭과 民族構成員 간의 分裂로 合理的, 自律的 시민대중형성에 실패하였다.

또한 主体思想이라 불리는 김일성 唯一思想을 集團이데올로기로 채택함으로써 國民을 國家의 主体가 아닌 김일성의 客体로 轉落시켰다.

(2) 民主性

● 南韓 : 모든 國民에게 均等한 參與의 機會를 부여하며 民主主義 理念追究에 노력하고 있다.

● 北韓 : 남한과 비교가 안 될 뿐 아니라 共產圈內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기 1인독재 및 父子相續을 꾀하고 있는 實情이다.

나. 空間에서의 中心性

空間에서의 中心性은 民族活動의 中心地가 韓半島에서 歷史的으로나 現實的으로 南北韓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와 人口, 그리고 集團의 能力 또는 國家力量의 成就度를 基準으로 판단한다.

(1) 民族活動의 中心地 (평양의 서울에의 附屬性)

解放과 동시에 좌익세력이 日帝의 統治權을 인수함에 있어 서울에 中央建國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평양에는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결성 중앙건국준비위원회에 귀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解放直後 韓國共産黨 결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 진주 소련군과 김성주가 북한지역에 共産黨을 창설하기 위해 1945. 10. 10~10. 13까지 4일 동안 평양에서 소집한 「朝鮮共産黨 五道黨 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서 서울에 이미 設置되어 있었던 조선공산당을 中央黨

으로서 法統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組織을 北朝鮮分局으로 스스로 결정하였다.

이같은 그들의 活動에서조차 서울이 歷史的으로나 現實的으로 民族活動의 中心地였음을 알 수 있다.

(2) 人口

지금 남한의 인구는 약 4,200만, 북한은 약 2,000만으로 추산되는 바 남한이 북한의 2배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口比較는 그 자체만으로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韓國人의 활동무대가 압도적으로 남한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1945. 8. 15~1949. 8. 까지 330만명이 자유를 찾아 월남했는데, 이것은 남한에게는 北韓住民의 30% 이상이 월남하여 民族國家의 合法性을 提高시킨데 반해, 북한에게는 주민의 30% 이상이 政權을 外面하여 民族史的 正統性을 박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3) 集團의 能力, 國家力量의 成就度

集團의 能力 및 國家力量의 成就度는 經濟, 外交 등 다방면에서 남한의 優位로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84년 말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經濟力을 比較해 보면 GNP는 남한이 811억弗, 북한이 147억弗로 5.5 : 1, 1인당 GNP 역시 1,999弗 : 962弗로 2.6 : 1 등 각 부문에서 그 격차를 넓혀가고 있다.

經濟成長率 또한 '84년에 남한이 7.5%를 기록한데 비하여 북한이 3.9%에 머물렀으며, 북한은 특히 '84년이 그들의 제 2차 7

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임에도 期間中 生産計劃目標에 대한 実績이 약 40~50% 수준에 그쳐 새로운 經濟計劃의 수립에 차질을 가져왔다.

外交面에서도 남한은 傳統的인 友邦과의 결속을 한층 강화하고 共產圈 및 第3世界에도 門戶를 開放하는 한편 각종 國際行事 및 國際競技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國際社会에서의 地位와 公信力을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테러수출과 밀수를 일삼아 自由世界는 물론 共產圈內에서도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時間에서의 連續성과 承繼의 先位性

時間에서의 連續성과 承繼에서의 先位性은 民族獨立鬭爭의 승계자로서의 위치와 民族史的 主体性, 民族文化의 傳統繼承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獨立鬭爭運動의 承繼者로서의 位置

● 南韓：上海臨時政府의 이승만, 김구 등 民族指導者가 거의 서울로 귀국하여 獨立鬭爭指導勢力의 中心性을 독점하였다.

● 北韓：독립투쟁사를 김일성혁명운동사로 날조하여 獨立運動의 승계자인 양 꾸며 宣傳하고 있다.

(2) 民族史的 主体性

● 南韓：한때 外勢의 이데올로기적 지도하에 國家를 建設하는 등 問題가 있었으나 '60年代 이후 民族力量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民族史的 主体性을 確立해가고 있다.

● 北韓：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教條的

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主体性的 斷絶을 가져왔다. 이러한 歷史的 斷絶은 反民族的 意識의 象徴的 表現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社會主義者의 祖國-소련」이라는 말이 이러한 사정을 명료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3) 民族文化의 傳統繼承

● 南韓：傳統文化를 바탕으로 한 自主的인 文化를 育成하여 民族文化가 社會統合과 國民의 一體感 形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北韓：社會主義的 民族文化를 외치며 民族文化를 퇴폐적·자본주의적 잔재로 매도하며 우리 민족의 思想的 傳統을 단절시키고 김일성 개인을 偶像化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6. 結 論

모든 國家가 個人的 幸福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正當한 國家만이 國民 전체에게 個人的 自我實現과 幸福의 터전을 提供하는데, 우리가 大韓民國을 수호하는 것은 앞에서의 論議를 통해 大韓民國이 正當한 國家實現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民族正統性을 계승한 나라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단 하나 밖에 없는 祖國이요, 民族史的 正統性을 이어받은 오직 하나의 國家이므로 지키고 發展시키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의 絶실한 課題이며 軍人은 이 課題를 제 1선에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韓國知識人的 使命과 任務

— 3·1革命 이후 知識人的 意識構造 —



李 炫 熙

교수·성신여대 (한국사학)

目 次

- 知識人과 民族運動
- 國內에서의 民族運動과 그 推進定向
- 海外에서의 獨立戰爭과 그 性向
- 知識人的 爲國活動과 그 繼承問題

知識人과 民族運動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식인은 어떤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여 오늘날까지 의식구조 면에서 연결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3·1 민주혁명은 우리 지식인의 혼신적 참여로 성공한 최대의 세계적이고 민족적 환희의 연속이었다. 이는 東學革命(1894) 이래 두번째 맞이하였다. 우리 근대사의 승리한 민중역사의 한 표본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로소 민족운동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며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진 것이다.

3·1정신이 우리 민족 앞에 제시한 그定向과 性格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로 외교자립주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체제로서의 우방과의 국교정상화를 끈질기게 추구하여 일제강점을 국제적으로 무색케 하였으며 그 총회기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민족의 저력-국력-이라 지칭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구체적인 위업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었다. 이 실력-국력 비축의 운동은 그 이후 교육, 문화, 산업진흥에 그대로 맥락지어질 수 있었다. 물산장려 - 국산품 애용운동 - 경제민족주의 운동 - 과民主大学(종합대학 규모) 설치 운동이 범국민운동 - 교육민족주의 운동 - 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무 환기되었던 산업진흥 - 민족기업운동 - 운동의 분위기가 바로 3·1정신이 잉태케 한 민족적 위업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 공산주의자와 그 이념이 침투하여 민족주의 색채에 염색이 가해지는 혼란과 무분별이 잠시 개입 준동되어 민족진영을 당혹, 혼미케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었을 때 우리가 얻은 이득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민족진영의 단결을 혼돈케 하였던 것이다. 각종 서클과 개인의 투쟁이 그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혼란을 청산할 수 있었다.

세째는 독립전쟁 - 무장투쟁 · 시위 · 응징 - 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는 특히 중국 일대와 동삼성 - 만주지역에 전쟁기지 설치, 무장군의 양성, 지식인의 무력투쟁 열기 등의 제도적인 장치로 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백락짓는 한국군의 정통성이 여기에 그 근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는 문화투쟁으로 우리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전통문화의 선양과 그 수는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기반을 조성해 주었던 것이다. 문화민족과 그 능력의 수렴이 일

본의 흑독 간교한 식민통치책을 中心개념으로부터 청산 결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월의식을 지식인은 견지하고 있었다.

国内에서의 民族運動과 그 推進定向

1. 6·10학생운동

3·1혁명 이후 고조되었던 민족주의 지성운동은 이 시기에 침투 조직화하기 시작한 마르크시즘 - 공산주의에 압도되어 한 때 그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도착된 의식 속에서 그 진로 모색에 부심하였다. 더우기 한때 민족주의 투쟁에 앞장섰던 인사가 이 운동과 주의에 솔깃하여 즐기찬 민족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향하는 성향마저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족자치운동이나 학생들의 盟休가 1920년대 초반의 민족주의운동을 대변하거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무력감 속에 빠져 그 진로가 불확실한 가운데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민족진영은 오히려 팔장만 끼고 주변 정세 등을 살피거나 일제 총독부 당국자에게 매수되어 변절, 이탈, 은둔, 협력, 자포자기하는 이변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탈민족운동성향 가운데 조선조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승하 - 서거는 또 한 번의 3·1혁명과 같은 양태(樣態)를 연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었다. 국내 학생들의 목표있는 움직임과 해외 임시정부의 파견원에 의한 대대적인

독립투쟁의 기운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차례에 있었다.

이때 6·10학생운동에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되어 그들 특유의 거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직화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사전 발각 구금당함으로써 사실상 6·10학생운동에 공산주의 색채가 깊이 물들어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필자가 학술논문으로 학계에 보고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이때 학생층에 가담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공산주의계는 거의 사전에 봉쇄 소외됨으로써 이 운동은 항일민중학생의 승리로 진행되어 1926년 6·10학생운동을 가능케 하였다.

2. 신간회

1920년대 민족 공산주의자들의 합작적인 항일운동으로 최대의 결사항쟁이 바로 1927년 2월에 조직되어 1931년 5월에 해소된 신간회의 투쟁이었다. 이 결사운동은 마침 上海 臨政의 좌·우 합작적인 민족 유일당운동의 영향과 그 지도에 의하여 태동하기 시작한 민족주의운동의 한 가지 유형이기도 한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과 단결, 기회주의를 배격하면서 진정으로 지성인의 대동단결과 화합만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그 진로를 민족 앞에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신간회는 정치가는 물론 교육가, 의사, 변호사, 실업가, 종교인, 언론인

등 각계 대표 30여명이 발기인이 되었으니 가위 지성인의 광장이며 지적(知的) 행동의 결의와 자극을 주기 위한 각성의 모임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좌·우합작에 공산주의계가 의도적으로 적극 침투하여 지성인을 상대로 공산운동을 퍼나가게 되자 민족진영에서는 6·10운동의 자극과 영향에 따라 소명의식으로 모였는데 이런 엉뚱한 작태가 일어나니 내심 당혹치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일제에 항거함과 동시에 공산주의계의 침투공작 및 이념확대에 적지 않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극복 타개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을 펴보일 수 없게 되자 국제공산당의 지령에 의하여 신간회의 해소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결국 “못다한 말의 아쉬움을 그대로 노출시킨” 결과가 되었거니와 합법적인 조직이며 결사라는 한계상황을 인식할 때 신간회운동이야말로 1920년대 뿐 아니라 일제 강점하(1910~1945)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민족주의적 결사항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진로를 새로운 차원에서 규정하고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의의가 자못 크다 아니 할 수 없겠다. 여기에 참여한 지성인은 대개가 3·1혁명 때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항쟁과 민족실력 양성운동에도 적극가담한 순수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3.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별동결사대와 같은 임무를

자담해 온 순수 여성의 모임을 우리는 근우회(權友會)라고 한다. 무궁화꽃동산을 가꿀 여성 벗님네의 굳건한 단결을 표한 여성 애국주의운동가의 최대 결사라고 평가해 본다.

벌써 이들은 국내외에서 신식교육을 받은 인테리여성들로 뭉칠 수 있었다. 신간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성되었다가 비슷한 때 해소된 4년여의 활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역시 이들도 좌·우익계의 여성이 손잡고 이끌어 나간 여성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겠다. 이들도 신간회의 결성과 같은 이념의 궤도를 달렸다.

특히 신간회나 근우회는 다 같이 최고의 민족지성이 자주적으로 집결되어 있었던 단체로서 그 지적인 진로는 이미 분명하게 설정되었고 목표를 향해 일로 매진하였던 것이다. 정치·경제적 작성과 단결을 추구하면서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것은 소신과 의지가 가득찬 지성인의 행동성을 보여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3·1혁명정신이 결여된 인사가 다수 변절, 이탈, 방관, 협력자로 변신 전락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자 이에 경종을 울리고 민족지성의 향방을 의지와 절개로 지킬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상연의 자유를 획득해야만 참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다는 강조점으로 촛점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부인 衡平

운동의 지원과 실질적인 민족운동으로의 지향을 매우 진박하게 추구하고 있음도 그의 식구조상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인 것이다.

파벌주의의 배격, 만주동포의 구제, 내핍생활의 체질화, 동양척식회사의 철폐, 민족혼의 재발견, 재생산의 강조점도 신간 근우 두 남·녀 모임의 공통적인 성격이며定向이라 지적할 수 있겠다.

근우회는 여성의 단결과 지위향상을 내세우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독립 투쟁이라는 적극적인 단계보다는 「여성해방」과「사회참여」의 폭을 그만큼 넓히자는 의도가 다분히 잠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4. 광주학생운동

민족주의운동의 일환으로 폭발한 광주학생 항일운동(1929. 11. 3)은 곧 6. 10운동의 맥락이며(1926) 한국 민족주의 민중운동의 재현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 운동은 그 배경이 3·1혁명 이념과 의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적어도 6·10운동의 정신과 성진회, 독서회 등의 설립의지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광주학생운동은 「단순폭발」이나「감정적 발발」은 아닌 것이다. 그 사상적 배경과 지성적 자극이 이 학생운동을 가능하게 뒷받침하였고 전국적인 규모와 열기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신간회·근우회와의 연관에 의하여 이 운동이 가능해 질 수 있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민족지성의 양심, 정의, 자유, 진리가

이때 복합적으로 노출로의 작용을 감내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1혁명 이후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좌·우의 개별행동 내지는 합작적인 형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종래에는 공산진영에서의 끈질긴 침투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지성인의 민족사적 의기나 양심에 따라 그들에게 부화뇌동하거나 흡수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 민족주의운동의 선명성, 확실성, 지속성을 강렬하게 발산하였던 것이다.

海外에서의 獨立戰爭과 그 性向

1. 臨政의 수립과 정책구현

3·1혁명의 최대 성과는 중국 上海에 민족정통성을 잇는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 민주공화체제의 수립은 군주제의 청산인 동시에 민족의 진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이후 일본의 강점 속에서 모진 고문, 피체, 구금, 악형 등을 당하였으나 그래도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느라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시기에 3권분립 형태의 민주공화체제의 출범은 민족운동의 새로운 활력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정은 1919년 4월 13일 上海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가 그 이후 9월 초 국내의 각지의 6개의 임시정부와 통합을 협의하

여 단일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때의 지도체제가 제 1차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중심제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1945년까지 국무령(2차 개헌: 1925), 국무위원(3차 개헌: 1927), 주석(4차 개헌: 1940), 주·부석지도체제(5차 개헌: 1944)로 의회민주정치가 제도화된 것이다. 국무원, 의정원, 사법부의 3권이 분립된 민주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독립노선은 8가지로 나누어 강력하게 민중적 뒷받침 속에서 실시되었다.

내정교통, 군사외교, 재정사법, 교육문화가 그 주요정치의 방향이었다. 내정과 교통은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국내외를 통할 통치하는 비밀 행정연락기구를 구비하였다. 즉, 국내외를 체계적으로 통제 통할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민족운동의 방향과 성격이 보다 뚜렷해졌다.

군사와 외교면에서는 임정의 직할군대를 양성하여 독립전쟁-한일전쟁으로 확대 승리할 수 있었다. 독립군의 맥을 이은 임정 직할의 광복군의 항일투쟁이 그러하였다.

외교정책면에서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하여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개별 접촉까지 전개하여 중국, 프랑스의 승인과 폴란드 등의 동구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그 외 태평양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규모의 대회에 독립청원을 호소한다든가 구미위원부 등 외교의 제도적인 보장을 통하여 군사금의 모집 등 실로 성과있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펴나갔다.

재정 사법분야에서는 임정의 예산결산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큰 고

민에 빠졌다. 그리하여 군자금의 모집과 인 구세, 호구세, 특별성금, 독립공채의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사법업무는 남의 나라, 도시, 그것도 프랑스 조계에서의 집행 때문에 제도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과 문화면에서는 의무교육의 실시와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신문과 사료편찬소를 두어 독립정신을 고양하였으며 잡지, 주간지, 단행본 등을 출간하여 국내외 동포에게 민족사상을 고취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의 어려운 경우를 설득하면서 독립에의 열망을 퍼나갔다.

임정은 上海로부터 重慶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을 하루같이 의회민주정치를 전개해 나가면서 국내외를 통치하였으므로 일제강점 35년사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 적어도 35년 통치 중 27년은 우리가 그들의 지배하에서나마 민주독립정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2. 해외운동의 성격

임시정부의 활동을 제외한 각지의 민족운동은 3·1혁명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나게 하였다.

일본에서는 제2의 2·8선언 등 보다 강렬하고 저돌적인 민족운동이 1945년까지 줄기차게 각 분야와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왔다. 응징적인 항쟁이 전개되었는가 하면 설득적인 투쟁, 문화민족의 긍지를 알리는 민족자존의 행사가 일본의 자존심을 심히

동요케 하였던 것이다.

중국 만주에서는 무정부주의 운동과 함께 의열투쟁의 양상을 강하게 표출시켰다. 무엇보다도 중대한 투쟁은 1937년 中·日전쟁 이후 1945년까지 무장전투형태가 투쟁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를 계속 볼 수 있게 하였다.

미주지역에서는 국민회와 동지회가 민족구국운동의 중심을 이루어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여기에 여성단체까지 대두하여 남성을 지원하면서 투쟁을 보다 자신감에 차도록 유도해 주었다.

좌절, 방황, 의기소침 속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 신념, 의욕 등을 북돋아 줌으로써 3·1정신의 계승을 착실하게 맥락짓고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미주 하와이 지역에서는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비중있게 지원하고 있어서 임정 후원에는 매우 흡족하게 되어 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범 김구는 미주지역에서 들어오는 성금-군자금을 정성스럽게 저축하여 유효적절하게 이 성금을 사용하였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에 투입 활용되었던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구라파, 대만 등지에서 민족투쟁도 3·1혁명 이후 현저하게 활기를 띠었고 자신감에 짝 차 있었다. 계몽적인 민족사가들의 저술-조선상고사 독립운동지혈사 등이 방황하고 찌든 지식인-국민을 일깨우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욕구에 부응하는 참신한 저술이 민족

의식 고취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3·1혁명 이후의 민족운동은 그 방향과 성격이 보다 확실해졌고 체계화로 자신감을 성취 지향적인 면에서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知識人の 爲國活動과 그 繼承問題

1945년의 민족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해 주었다. 지식인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를 생각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족해방투쟁의 핵심세력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과정에서 소외되고 대신 친일, 매국, 변절, 기회주의 정상배가 이승만의 單選 單政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민족정기나 사회정의가 퇴색 마모되어 갔던 것이다. 오늘날 사회정의의 회복을 강조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자유당 12년(1948~1960)의 독재와 부패 무능으로 나타나 4·19를 불러 일으켰다. 4·19는 미해결의 혁명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마무리지어야 했으나 그 담당체 역시 사회혼란의 외면, 통수체제의 미성숙, 지나친 자유, 방종의 구가 미조정 등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5·16은 시행착오적인 것도 있었으나 그것을 마무리짓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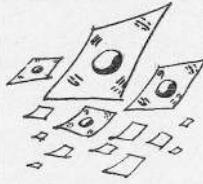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식인은 어떤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가를 결론적으로 평가해 보겠다.

첫째, 일제강점하의 지식인이 구국과 외세 도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듯이 오늘날의 지식인은 / 이의 민족적 역량과 의지를 조국근대화와 세계화로 전환해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정의 구현과 청렴도, 기강의 확립 그리고 건전한 의식의 국력수렴화가 바로 지식인이 선도적으로 취해야 할 오늘날의 최대 과제이며 임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과감히 나라 부강과 세계속의 한국지식의 이미지 재생산에 투입, 건전상 확립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인의 의식구조는 곧 위정자와 국민간의 민족적 단합과 국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맥을 이어왔다. 따라서 위정자의 국민우선적인 정치의식이나 그 구체적인 통치의 사례가 비정상적이고 상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지식인의 임무는 다못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과감한 시정이라는 단체적 행동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은 자유, 정의, 진리, 양심의 가치관과 그 기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第2의 光復으로 가는길

— 分斷 41년 統一意志를 더욱 굳히자 —

馬

郁

전우신문논설위원

목 차

- 序
- 現實을 直視, 冒險主義 警戒하자
- 統一에의 뜨거운意志·信念을
- 忍耐와 誠實하게 지속하는 姿勢
- 偉大한 世代로 民族史의 登壇되자

序

하나의 民族으로 南北韓으로 갈라진 이른바 分斷時代에 살고있는 우리가 뼈 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社會의 苦痛의 뿌리가 곧 그 分斷에 있다는 평범하고도 深奧한 사실이다.

서로 다른 思想的 갈등과 서로 다투는 體制아래서 살게됨에 따라 民族의 底力은 날이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浪費가 심하며 받는 아픔도 커진다.

그러나 우리들의 統一意志는 꺼질줄 모르고 오히려 강렬히 계속 불타고 있다.

그것은 그 무엇 보다도 소중한 바꿀 수 없는 民族의 念願이며 또 活路이기 때문이다.

全斗煥대통령은 '82년도 國政演說(1·22)에서 祖國統一의 근본원칙과 그 실천방법, 또 統一까지의 과정 및 統一祖國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것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다.

이 統一方案은 분단 이후 南北韓당국이 제

시했던 어떤 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方案이었으나 北은 오늘까지도 호응함이 없이 오히려 分斷의 벽을 두텁게 하고 있다.

결국 祖國의 分斷은 남북 모두에게 국방비는 물론 外交의 대결에까지 적지 않은 心血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내부改革의 강렬한 意志는 分斷으로 制約을 받게 되며 또한 社會의 모순과 苦痛, 나아가서는 어려움이 바로 分斷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制約·苦痛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分斷이란 두 글자를 이 民族의 辭典에서 없애야 한다. 곧 統一을 앞당겨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祖國分斷 41년, 統一로서 진정한 民族을 건설해야 하고 國家 건설을 완성해야 우리 모든 民族의 에너지와 지혜를 발전적이며 生産的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이 東아시아에 平和를 가져오는 첩경이며 民族이 雄飛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現實을 直視, 冒險主義 警戒하자.

오늘의 세계는 강대국의 征服을 통해 지배하고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블록을 형성하던 時代는 지났다.

오늘의 國際社會는 어떻게 보면 自由盟邦의 개념도 信賴하기 어렵고 프롤레타리아 共產主義도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冷戰구조와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퇴조하고 있다.

여기서 資本民主主義, 국가이기주의, 그리고 經濟的 實用主義가 판을 치는 새로운 時代가 뒤 따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現實은 과연 어떠한가. 南北은 이같은 세계의 흐름에서 밀려난 死角地帶로서 아직도 冷戰구조가 낳은 民族分斷을 조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우리 民族을 갈라놓은 冷戰구조와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의 유럽식 지배논리로 作用했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우리 民族의 통합에 장애가 됨은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이익과 국제적 平和秩序에도 有害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

우리 民族이 光復 41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이러한 冷戰時代의 잔재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北傀集團의 시대적 착오와 非民族性에 기인한다.

光復 41주년을 맞은 오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北이 南北對話를 거부하고 赤化統一노선과 軍事的 冒險主義에 매달림으로써 南北의 긴장은 더욱 높아져 가고만 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를 民族和合問題로 보지 않고 民族 내부의 갈등 내지는 階級鬭爭문제로 보고 있는데서 더하다. 그들은 分斷의 역사와 南北의 현실을 완전히 歪曲하고 이른바 「南朝鮮 해방」이니 「남조선 革命」이 統一의 전제 조건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그릇된 정세판단 내지는 統一觀이 이른바 「駐韓美軍 철수」니 「전민족대회」니 하며 트집을 잡고는 對話를 거부하면서 속셈으로 武力赤化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까지 南北韓 간에는 좁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41년 동안 으르렁대며 아프리카大陸의 모든 나라 軍隊를 합친 것과 맞먹는 방대한 규모의 兵力이 대치하고 있다.

또 그것은 언제 어느 때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감돌게 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된 南北대치 속에서 우리民族은 자신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하여 나라의 安全保障과 反共에 전념하는 사이에 어느덧 41년이라는 分斷의 衰史가 피로 點綴돼 온 이 땅에도 새로운 世代가 자라서 이제 全人口의 80%가 해방 이후 출생세대가 됐다.

여기서 이른바 既成世代의 경험적인 安保觀 만으로는 새롭게 자라나는 그들을 說得하고 이끌어 가는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실에 비판적이고, 不義에 저항하며, 이상적 미래 지향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世代는 이제 기성세대의 안이한 현상유지주의를 비판 내지는 무너뜨리려고까지 한다.

이것은 世界가 직면한 문제이며 南北이 다 같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光復 41주년을 맞는 오늘, 아직껏 南北이 대치하고 있고 또 언제 열리리라는 기미조차 찾을 길 없는 우리나라에서 世代 간의 安保觀, 統一觀의 차이는 그 무엇 보다 중요하고 또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다른 대내적 문제라면 다소의 施行착오가 容納 내지는 수정될 수도 있으나 국가존립의 바탕이 되는 安保와 統一

문제에서는 한치의 國論分裂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장차 이땅의 統一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젊은 世代들이 어떠한 統一觀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겨레의 내일을 위해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 하면 統一문제 속에는 民族과 國家 발전문제가 모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既成世代의 경험적 安保觀이나 안이한 現實主義 등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며, 民族이나 國家발전 문제를 모두 포용하는 통일지향적인 비전과 指導力을 요구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南北 간의 統一주도권 경쟁은 어느 쪽이 이 같은 새로운 비전과 指導力量을 가지고 민족의 화합과 對話를 주도하느냐가 문제이다.

언제든 마찬가지였지만 우리民族의 和合과 對話의 문을 열자면 무엇보다도 이를 가로막는 冷戰구조의 잔재와 낡은 이데올로기의 껍질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思想과 制度를 뛰어넘는 對話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쌍방 모두가 그 기본 전제로 包容力을 발휘해야 하며 開放的 자세로 對話의 廣場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北傀集團은 더 이상의 생트집이나 이데올로기의 무쇠껍질을 벗어던지고 진정 民族의 良心으로 되돌아와 民族의 내일을 위해 허심탄회 나서야 한다.

統一에의 뜨거운 意志·信念을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統一의 길은 어떤 것일까.

그 출발점은 첫째로 統一에 대한 뜨거운 信念과 굳은 意志의 자세이다.

은 民族이 統一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달아 모든 슬기와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分斷상태에 安住하려는 安易한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對話함을 기꺼이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姿勢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自主의 原則이다.

統一문제는 어디까지나 南北 당사자 간의 일이고 우리 民族의 일이기 때문에 소위 強大國이 조정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때문에 統一정책은 外交정책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統一政策의 수단이 外交政策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이며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自主의 원칙과 포리관계를 이루는 것이 民主의 원칙이다.

統一문제가 어떤 계층이나 소수 엘리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民族의 개발적 성원의 진정한 念願과 意思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自主, 民主의 원칙과 더불어 重視해야 하는 것이 平和의 原則이다.

쉽게 말해서 統一은 戰爭이나 暴力이 아닌 平和的 수단에 의해 成就돼야 한다.

평화적 수단이 곧 對話와 協商이란 뜻이다.

인간은 말(言語)이라는 다른 動物과 다른 소중한 수단을 갖고 있다.

뜻 있고 앞서가는 社會, 人間이란 바로 暴力이나 강압이 아니라 그 말로 모든 紛爭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知性의 자랑인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北傀는 戰爭과 暴力으로 統一을 達成해 보려다 실패했다.

또 그들은 그 失敗에도 '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그 暴力路線을 포기하지 않고 妄想에 걸려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또 다루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작년 봄 이후 잘(?) 진행돼 오던 對話(國會·經濟·赤十字)가 연초 年例的이고 어디까지 방어작전훈련인 「팀·스피리트 '86」을 트집잡은 그들은 그 훈련이 끝나자 이번엔 「民防衛훈련」을 기화로 對話에 불응하고 있다.

민족의 통일이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 즉 동족을 살상하고 국토의 파괴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의 생명과 삶 그 자체야말로 어느 명분이나 어느 이데올로기 보다 소중한다는 것은 두 말 할 여지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民族大團結의 원칙을 지지한다.

分斷 40년으로 민족 사이의 뿌리깊은 不信任感을 청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청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 접촉하고 理解되는 데서 民族異質이 아니라 同質을 실감케 해야 한다.

왜냐 하면 統一은 어디까지나 어느 한쪽에 의해 다른 한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統一과 征服을 같이 보는데서 부터 戰爭이나 暴力에 의존하려는 性向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忍耐와 誠實하게 지속하는 姿勢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대로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을 향하는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남북한은 「兄弟」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그 「형제」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벨과 카인」같은 형제가 돼서는 안된다.

우리 傳來의 友誼로운 형제이어야 한다.

제 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81년엔 「남북한 最高当局者의 서울, 평양 교환방문」案이 나왔다.

北이 이 제의를 거부하자 '82년에 들어와서 제의와 역제의에서 1월22일 全대통령은 「民族和合 民主統一 방안」을 제시 「남북대표 자회의」(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한 「統一憲

法」안을 제의하고 2월 1일에 孫在植 통일원장관이 「南北의 交流와 協力을 위한 20개 示範事業」안을 제의한데 대해 北은 2월 10일 「남북한 政治人연합회의」안을 내 놓고 맞섰다.

이에 孫長官은 2월 25일 「남북 고위대표 자회담」안을 제의, 상대방의 제의에 묵살로만 일관하던 제의의 일방통행시대는 중단되는 듯한 인상마저 주기도 했다.

물론 이런 「제의의 역제의」는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낸 것 같지는 않으나 서로 統一問題를 이해시키고 「다룬다」는 국제적 표시에는 기여했다고 본다.

또 그것은 상대방의 제의에 대하여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만 없게 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 뉘야 할 것은 北이 제의한 「남북 政治人연합회의」안 등 그들이 제의하는 모든 案들이 現實을 떠나고 또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은 真心으로 民族統一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평화선전용 내지는 국제조류에 호응하는 듯한 手段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年初에도 그랬지만 全斗煥대통령은 유럽 4개국 巡訪에서도 「연내 남북 고위회담 실현을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우리의 平和統一意志를 거듭 밝혔다.

민족분단의 비극을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또 능동적 역량으로 해결하자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물론 40년 分斷으로 異質化된 오늘, 그 統一이 쉽게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던 좋아하던 간에 그것은 분명히 몇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때문에 統一問題는 忍耐와 誠實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偉大한 世代로 民族史의 등불되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바로 이와 같은 민족의 非運과 不幸을 극복해주는 유일한 길 이기에 참고 견디며 對話에 임해 가능한 것 부터 교류를 갖고 信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두 동강난 国土와 겨레를 하나로 묶어 번영되고 복된 統一祖國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적 召命이요, 자유, 평화·번영으로 치달는 世界史의 흐름에 대한 韓民族의 적극적인 참여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적 悲運과 不幸의 원천이 비록 우리의 責任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겨레의 앞날을 밝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責任이요, 반드시 해야 할 課題인 것이다.

祖國의 分斷으로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또 統一되어 영광과 발전을

누리게 될 것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서 平和統一을 이룩한 先例는 없다.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평화 통일의 위업은 새 역사 창조의 빛나는 기록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統一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요, 우리들의 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統一祖國의 미래상은 결단코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

分斷 40년에서 얻어진 教訓이라면 우리의 統一意志와 노력이 약하고 소극적인 때에는 자칫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赤化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韓半島가 赤化된다면 우리 자신의 억울하고 비통할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후손, 나아가서는 우리를 지원하고 아껴주던 세계의 모든 自由民에게 背信이 되고 만다.

또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비극이 이 世紀를 넘어 또 한 世紀를 넘어가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 볼 수 만은 없다.

民族躍進의 '86년 光復節을 맞아 우리는 한 민족의 「위대한 세대」가 되어 우리 民族史 아니 세계사의 등불로 간직되도록 노력하자.

現代 化学戰의 特性과 对策



소령 白 昌 雨

〈제3726부대〉

목 차

- | | |
|---------------|------------------|
| 1. 개 요 | 7. 화학작용제의 성질 |
| 2. 화학전 역사 | 8. 화학작용제의 침입경로 |
| 3. 복귀위협 | 9. 탐지 및 식별 |
| 4. 화학작용제 살포방법 | 10. 제 독 |
| 5. 화학작용제의 특성 | 11. 보호장비 |
| 6. 화학작용제의 분류 | 12. 화학전하 개인행동 절차 |

1. 개 요

최근 북괴의 5~7일 전쟁 형태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화학전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들은 개전 초기에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병행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침략 야욕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들의 말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화학가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군은 벌써부터 이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해 왔고 앞으로 몇 년이면 백% 완비가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화학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화학전 정의

전력(인명, 재산)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독성 화학작용제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한다.

나. 화학작용제란?

화학적 성질에 의해 살상, 자극, 연막, 소이, 신호 효과를 일으키며 적을 무능화하거나 살상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화학전 역사

가. 동 기

초기 고대인은, 성과 요새지 몰락을 목적으로 독성물질을 사용하였으며, 1차대전 시는 요새진지 속 교착상태에 빠진 전쟁을 타개하기 위하여 화학작용제를 사용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다.

나. 발 달 사

(1) 고대 : B. C. 428년경 아테네 전투에서 송진과 유황을 불에 태워 사용

(2) 중세 (15세기 말) 독성 연막 사용

(3) 1차대전(근대 화학전이라 칭함)

○1915년 : 벨기에의 YPRES(지명) 전투에서 화학무기인 염소가스가 독일군에 의해 최초 사용

* 프랑스군 오만명 사망, 만오천명 후송.

○1917년 : 수포가스 출현

당시에는 방비가 불가능하여 겨자가스를 가스 중의 가스라 일컬었다.

* 1925년 제네바 협정 체결(화생무기 사용 금지)

(4) 2차대전

○신경가스 출현 : 많은 국가들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호 보복을 우려 사용하지 않았다.

(5) 2차대전 이후

○국지전에 사용 : 아프간, 캄보디아, 이

란 · 이라크 전

○생화학무기 출현(황우)

○세계 각국은 자국보호 목적 화학무기 생산 비축

3. 북괴 위협

가. 배 경

북괴 김 일성은 1961년 12월 25일 북괴 전역에 화학화를 선언, 이에 대비하였다. ① 시설 지하화, ② 대피 방호시설 확충, ③ 소련 화학장비 도입, ④ 화학부대 / 연구소 창설 등

나. 생산시설 및 능력

1970년대 초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10여개의 생산공장에서 각종 화학작용제 및 보호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화학작용제는 14톤을 생산, 현재 250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투발 수단

북괴는 중 장거리 포, 미사일 및 항공기를 이용, 화학무기를 공격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라. 공격 예상시기

북괴는 개전 초 기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주로 기온 경도가 역전층이 형성되는 여름 / 박모

시에 사용할 것이다.

마. 공격목표

공군기지는 시설의 부동성, 노출성, 병력 설비의 집약성 등으로 1차 기습 공격목표(응징보복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4. 화학작용제 살포(공격) 방법

가. 탄약에 충전

야포, 로케트, 폭탄, 수류탄, 지뢰 및 전술 탄도 미사일에 충전하여 공격할 수 있다.

나. 살포 탱크

항공기, 지상 차량 등의 물탱크를 이용 살포한다.

다. 은밀 사용

음식물 등에 은밀히 사용(오염)

5. 화학작용제의 특성

가. 선택성

대인, 대동물, 대식물, 대장비, 물자 오염과 같이 선택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나. 지속성

기체 상태의 경우 쉽게 효과를 상실하지

만 액체인 경우 상온에서는 1~2일간 지속하나 아주 추운지방에서는 1주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다. 광면지역 오염

화학작용제는 바람을 따라 표류하여 넓은 지역을 오염시킨다.

○화학무기 피해 반경 : 풍상/측면 1마일, 풍하 2마일

* 신경가스 5톤으로 200km² 오염 가능.

* 대량살상 유발 : T₂(황우) 500G/L으로 1천여명 살상가능(집단 인원)

라. 침투 효과

공기가 통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침투할 수 있으며 피부조직도 침투 파괴한다.

마. 비 파괴효과

시설물, 장비, 물자 등을 파괴하지 않고, 인마살상을 주로 한다.

6. 화학작용제 분류

가. 물리적 상태에 의한 분류

화학작용제는 상온, 상압하에서 고체, 액체,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1) 기체 : 포스겐, CO, 비소 등

(2) 액체 : 겨자가스, 청산, VX 등

(3) 고체 : ADAMSITE 등

나. 전술적 용도에 의한 분류

- (1) 살상작용제
- (2) 혼련 및 폭동진압 작용제 : 최루가스, 구토가스
- (3) 연막작용제
- (4) 소이작용제

다. 생리적 영향에 의한 분류

화학작용제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인 효과에 따라 분류한다.

- (1) 질식작용제
- (2) 신경작용제
- (3) 수포작용제
- (4) 혈액작용제
- (5) 최루작용제
- (6) 구토작용제
- (7) 무능화 작용제

7. 화학작용제의 성질

가. 질식작용제

주로 호흡기관, 코, 인후, 특히 폐를 상하게 하여 극단적인 경우 점막이 붓고 폐에 액체가 충전되어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망토록 한다.

- (1) 작용제의 종류 : CG, 염소, CP
- (2) 증상 : 호흡곤란, 두통, 기침, 메스꺼움(보통 3시간 이후 증세 나타남.)
- (3) 방어 : 방독면 착용

- (4) 치료 : 신선한 공기 흡입, 인공호흡
* 질식작용제는 가스상태이며, 무색이다.

나. 신경작용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 균형에 의거 신경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나, 가스가 부교감신경계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잃게 한다.

- (1) 작용제 종류
○기체상태 : GA, GB, GD
○액체상태 : VX
- (2) 증상 : 콧물 흘림, 가슴답답, 동공 축소, 근육 경련, 혼수상태, 무의식중 방분·방뇨.
○호흡시 : 급속 효과
○피부 침투시 : 지연 효과
- (3) 방어 : 방독면, 보호의 착용
- (4) 치료 : 자동 아트로핀 주사
필요시 인공호흡 자동 옥심주사
- (5) 제독 : 액체일 경우 KM₂₅₈(KM₁₃) KIT로 제독

다. 혈액작용제

호흡에 의해 체내에 흡수되어 체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며, 대단히 신속한 사망(15분 내)을 초래한다.

- (1) 작용제 종류 : AC, CK, SA.
- (2) 증상 : 경련, 피부변색, 두통, 현기증
- (3) 방어 : 방독면
- (4) 치료 : 아질산아밀(대체 치료제 개발 중)

라. 수포작용제

액체나 증기상태에서 체내 효소 단백질과 보조 효소를 공격하여 염증,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신체조직을 파괴한다. 눈이 가장 침해를 받기 쉬우며 폐나 기관지에 손상을 주어 호흡을 방해한다.

- (1) 작용제 종류 : HD, HN, L. H.
- (2) 증상 : 수포 형성, 눈에 염증
- (3) 방어 : 방독면, 보호의
- (4) 치료(제독) : 눈은 물로 세척한다. 피부는 KM₂₅₈ (KM₁₃) KIT 이용 피부를 제독한다.

마. 구토작용제

일반적으로 고체상태로 존재하며, 야전에서 주로 적군에게 불쾌감을 주며 폭동 진압 작용제로 사용한다.

- (1) 작용제 종류 : DM, DA, DC
- (2) 증상 : 심한 구토, 메스껍고 가슴 죄임
- (3) 방어 : 방독면
- (4) 치료 : 크로로포름 냄새를 맡음.

바. 최루작용제

최루작용제는 살상효과는 거의 없으므로 훈련이나 폭동진압 작용제로 사용한다.

- (1) 작용제의 종류 : CN, CS, CNC
- (2) 증상 : 눈과 피부에 심한 자극, 눈에는 계속 눈물이 나오도록 자극한다. 재채기.
- (3) 방어 : 방독면
- (4) 치료 :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눈에다 바람을 쐬다. 심한 경우 물로 세척,

* 주의 : 눈을 비비지 말 것.

8. 화학작용제의 침입경로

가. 호흡기

대부분 기체 또는 에어로졸 상태의 화학작용제는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침입하며, 즉시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나. 소화기

오염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침입한다.

다. 피부

액체상태나 고 농도 증기상태의 신경 및 수포가스는 노출된 피부에 흡착한다.

라. 눈

신경 및 수포작용제는 눈을 통하여 체내에 침투할 수 있으며 신경작용제는 눈의 동공을 축소, 수포작용제는 영구적인 눈의 손상을 일으킨다.

9. 탐지 및 식별

가. 주관적 탐지

인체 오관에 의거 탐지하는 방법으로 탐지에 도움을 주나 절대적인 탐지방법이 아니다.

* 취각 : 질식-플냄새, 신경-과일냄

새, 혈액-복숭아 씨 냄새, 수포-마늘, 생선냄새.

나. 객관적 탐지

탐지식별기구를 이용, 탐지하는 방법으로 작용제를 식별 및 제독제 사용후 방독면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현재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탐지 KIT는 다음과 같다.

(1) KM₈ 탐지지 : 백색 1권 (25매)으로 액체작용제만 탐지 가능

- 신경작용제 (V) : 황 색
- 신경작용제 (G) : 암록색
- 수포작용제 (H) : 적 색

(2) KM_{18A₂} 탐지키 : 화학탐지반의 주 장비로서 화학작용제를 정밀 탐지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3) KM₂₅₆ 신속탐지키 : 화학탐지반의 주 장비로써 화학작용제를 신속히 탐지하는데 사용한다.

(4) KM₈ 자동경보기 : 기지 전역에 화학작용제 오염 여부를 조기에 탐지하여 자동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사전대비조치를 취하게 한다.

10. 제 독

가. 제독책임

- (1) 1 단계 제독 : 개인
- (2) 2 단계 제독 : 각 부서
- (3) 3 단계 제독 : 제독부대에서 특수장비

와 제독제를 사용

981

나. 제독방법

- (1) 자연처치법 : 전술적 상황이 긴박하지 않은 곳은 기상조건에 맡김
- (2) 유세법 : 견고한 표면 등은 물과 비눗물로 세척
- (3) 용해법 : 구조가 복잡한 장비 등은 휘발유, 알콜, 석유 등으로 용해
- (4) 매몰법 : 장차 필요치 않을 물자 등은 매몰
- (5) 폭발법 : 오염지역을 파괴 및 분산
- (6) 가열 및 소각법 : 오염물질을 가열 또는 불태움
- (7) 화학적 처치법 : 화학약품으로 중화

다. 제독장비

- (1) KM₁₁ : 휴대용 제독기
- (2) KM₉ : 제독차
- (3) M_{12A₁} : 제독기
- (4) 기타 : 삽, 도저, 비, 솔, 걸레, 살수차 등

라. 제 독 제

- (1) STB : 백색 분말 (KM₉ 제독차 용)
- (2) DS₂ : 맑은 용액 (KM₁₁ 휴대용, 제독기용)
- (3) 기타 : 가성소다, 알콜, 석유, 휘발유 등

마. 인체제독

- (1) 따뜻한 비눗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샤워순서

- 손 및 손톱을 솔로 씻는다.
- 머리 및 머리카락을 완전히 씻는다.

다.

- 인체에 충분히 비누칠
- 씻는다.
- 인체에 다시 비누칠
- 씻는다.

(2) 인체 제독절차

○개인장구 벗음(방독면 제외)

○신발 제독

○신을 벗어 용기에 넣음

○장갑, 양말, 바지를 벗어 용기에 넣음.

○내의를 벗어 용기에 넣음.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정화통 입구를 막고 샤워

○오염 여부검사(필요시 응급처치)

○방독면 벗음

○피복 및 장구 재 지급

11. 보호장비

가. 조종사 : 조종사 보호의 세트(ACE)

나. 일반장병 : 지상 근무 요원 보호의 세트(GCE).

다. 특수요원 : 불침투 보호의 세트(KM, SUIT)

12. 화학전하 개인행동 절차

가. 기본행동은 다음과 같다.

(1) 공격 전

- ① 경보와 동시에 보호장구 착용
- ② 지휘본부 지시 확인

(2) 공격 중

- ① 호흡중지, 방독면 착용 및 검사
- ② 경보 전파
- ③ 응급처치 및 제독
- ④ 상황 허락시 뒷바람 쪽으로 이탈

(3) 공격 후

- ① 오염표지판 설치지역 회피
- ② 사상자 응급치료 및 지휘계통 보고
- ③ 오염된 피부, 피복, 장비 제독
- ④ 인체 제독 후 피복 교체

나.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경보에 관계없이 방독면을 착용한다.

(1) 집중적인 항공기 폭탄, 야포, 박격포, 로케트에 의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2) 항공기 살포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

(3) 출처가 불명한 연막이나 안개를 보았을 때

(4) 의심스러운 액체나 냄새를 맡았을 때

(5) 명백한 이유없이 생리적 이상을 느꼈을 때

- 콧물이 나온다.

- 시력이 약화

- 호흡곤란

- 질식감을 느낀다.

- 눈과 피부를 자극한다.

蘇聯의 戰略的 欺瞞 (Maskirovka) 概念



중 위 任 忠 植

공본 정참부

* 訳者 註：蘇聯은 今年 四月 末에 Chernobyl에서 發生한 核發電所 事故內幕을 오랫동안 隱蔽하여, 全世界로부터 많은 非難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蘇聯이 채택하고 있는 Maskirovka를 理解하면 쉽게 首肯이 간다.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1985. 8) 에 실린 “The Soviet Service of Strategic Deception”이라는 題目的 記事中, 관련 部分을 拔萃, 翻譯해 보았다.

이 “Maskirovka”라는 用語는 매우 伸縮性있게 사용된다. 이것은 戰時나 平時에 敵을 眩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措置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蘇聯 陸軍의 攻勢는 강력하고 신속하며, 또한 奇襲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소련 육군은 이 奇襲效果를 얻는데 항상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傳統的으로, 오직 세 사람(三人) 만이 戰略的 作戰을 준비하는데 関与하여 왔다. 예를 들어, 第二次 世界 大戰 기간 동안에는, G. K. Zhukov 元帥, A. M. Vasilevskii 元帥 그리고 S. M. Shtemenko 大將이 이 三人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VGK(最高 總司令官)인 Stalin은 계획의 기본 idea만 승인하곤 했을 뿐, 普通 세부적인 준비에는 関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傳統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現今의 戰略的 企圖 亦是 少数의 人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徵候가 여러 가지 있다.

— 地形에서의 欺瞞 —

作戰을 開始하기 위해, 敵의 通行이 不可

能하다고 생각하는 地形을 選定한다. 예를 들어, 1944年의 主攻勢는 Belorussian 沼沢地에서 이루어졌으며, 1945년의 滿洲 作戰時의 主力 탱크부대도 이론적으로 탱크 뿐만 아니라 歩兵에게도 통행이 불가능한 大 Khingan 山脈을 통과하여 공격을 가했었다. 오늘날의 觀点에서 본다면, 오스트리아의 一部 地域이 機動하기에 어려운 地域으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地形이 利用될 가능성이 적다고 敵이 생각할수록, 蘇聯 司令部 立場에서는 더욱 좋다. 一旦 實際 地形이 選定되면 蘇聯 司令部는 다른, 좀더 機動하기에 有利한 場所들에 關心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또한 兵力을 그곳으로 集中시킨다. 兵力의 再編制는 可能한 最後의 순간에 보통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Belorussian 會戰의 경우, 6個 軍, 23個 獨立軍團, 數百個 獨立 師團, 旅團, 聯隊의 展開가 攻勢 二週 前에 極秘로 이루어졌었다).

— Paperwork —

어떤 作戰의 總計圖은 오직 하나의 地圖 위에 作成됐으며, 지금도 亦是 그러할 것이다. 또한 모든 計算은 매우 制限된 量의 종이 위에서 이루어진다(Stalingrad 作戰時에는, 單 1 권의 公책이 使用됐다). 各 戰略的 指示, 戰線, 軍, 師團, 旅團 및 聯隊 用 司令地圖가 各各 작성, 준비된다. 作戰 계획은 몇가지 變形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各 지휘관은 各各 다른 作戰계획이 들어있는 여러 개의 書類 봉투를 受領하여 그의

金庫에 보관한다.

司令地圖가 들어있는 봉투는 오직 VGK (最高 總司令官)의 命令에 依해서만 開封된다. VGK의 명령이 만약 내려지면, 戰略的 指示를 하는 總司令官은 作戰開始 30日 前에 이 명령을 受領할 것이며, 前線 司令官들은 20日 前에, 軍 司令官들은 10日 前에, 師團長 및 旅團長들은 5日 前에, 그리고 聯隊長들은 3日 前에야 명령을 수령하게 된다. 開封命令이 내려지면, 各 指揮官은 그의 參謀長과 그의 政治담당 副指揮官 立會下에 指定된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을 그 두 사람에게 알린다(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개봉된 봉투 이외의 다른 봉투에 들어있는 作戰 명령은 無效가 되며, 이것들은 未開封된 상태로 즉시 破棄된다.

各 지휘관은 그 자신의 부대, 인접부대 및 上位 編制의 課業 만을 明示하고 있는 하나의 地圖를 受領한다. 지시내용을 수령하고 나서, 지휘관은 그의 隸下 부대(포병, 공병, 정보, 군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에 各各의 임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各자가 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 만이 통보될 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명령이 發해진 後, VGK의 代表者들은 사단장급 以上の 예하 지휘관들과 비밀회의를 갖는다. 대대장, 보병 중대장 및 포병 중대장들은 24시간 前에야 口頭로 명령을 통보받는다. 이 순간 以後로는 戰略的 作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화기, 무전기, 전

신타자기 등과 같은 技術的手段은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攻勢”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移動”, “外出” 등과 같은 다른 用語, 심지어는 “防禦”라는 용어도 다른 말로 代替된다. I. G. Pavlovski 육군 大將은 체코슬로바키아를 解放시키기 前에, “우리는 하루 70km의 속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전의 최종 준비기간 동안에, 소련의 指導部는 계획된 작전의 준비사항, 장소 및 시간을 隱蔽하기 위하여 마련된 一連의 措置를 시행한다. 작전의 실제 시간은 敵에게 가장 不便한 시간으로 정해진다(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 侵攻 때에는 8月 末로, 아프가니스탄 侵攻 때에는 12月 末로 정해졌다). 이러한 소련의 慣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소련의 司令部는 방어작전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攻勢준비를 하도록 하는 I級 비밀의 命令(물론, 가짜의)을 發하게 된다. 이러한 명령은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下達되며, 모든 참모들은 이 명령을 시행하는데 참여한다. 하지만, 이미 口頭로 전혀 다른 指示를 받은 지휘관과 참모장은 이 “防禦”를 위한 갖가지 준비사항이 “攻勢”를 취하는데 活用되도록 그들의 참모들의 준비작업을 誘導해 간다.

— 個別的 接觸 —

가장 決定的인 순간에는, 소련의 指導者

들과 그들의 敵인 外國 지도자들 사이에 결코 攻擊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保證하는 내용의 個別的인 電話接觸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은 1956年 헝가리 侵攻時 Andropov가 사용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Brezhnev가 사용했었다. 아프가니스탄 侵攻 때에는, Brezhnev가 그의 “予定된 犧牲物”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Carter에게도 전화를 직접 했었다. 소련의 모든 보도기관은 그릇된 情報(逆情報)를 전파하는데 총동원된다. 소련의 司令部는 다른 地域에서 機動訓練을 실시하기도 하고, 비밀文書를 “紛失”하여 이것들이 敵의 手中에 들어가게 한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將軍들이 國境(실제 공격이 予定된 區域)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下級 步兵將校의 제복과 계급장을 착용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高位 司令部의 참모들은 잠정적으로 계급을 2 내지 3계급씩 낮추어 달며, 그들의 姓을 바꾼다. 지휘관들은 지휘관용 승용차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중요한 부대의 全要員들은(信號手 및 Rocket 射手 等) 좀 덜 전문화된 부대인 步兵, 탱크兵 및 工兵들의 제복을 입는다. 兵力은 오직 夜間에만 展開된다. 해당지역에 있는 兵力과 鐵道員 또는 그 지역 住民과의 여하한 접촉도 嚴禁된다. 물론, 無線 통화도 금지된다.

이처럼, 소련의 軍事專門 用語法에 있어서, 모든 이러한 措置는 “Maskirovka”라 불리운다. 이것은 “欺瞞”이라고 해석되고는 있지만, 西方 用語인 “Deception”과 “Cam-

ouflage”를 합친 것 보다도 훨씬 広範圍한 개념이다. 결국, “Maskirovka”는 실제의 모습을 仮裝하거나, 敵에게 거짓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措置를 뜻한다.

— Maskirovka에 대한 새로운

태도 —

소련 육군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모든 이러한 Tricks이 과거에는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상황 下에서도 충분한 것 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 소련의 最高 司令部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核武器의 발달은 在來式 兵力 隱蔽方法에 심각한 再考를 불러 일으켰다. 核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偽裝과 逆情報를 통해서, 敵으로 하여금 실제 目標가 아닌 거짓 目標에 공격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人工衛星의 출현으로 훨씬 복잡하게 됐다. 따라서, M. V. Zakharov 元帥에 의하면, “逆情報部 (Disinformation on Service)는 核무기처럼 莫強해야 하고, 衛星처럼 全世界를 Cover해야 한다”는 것이다.

核무기와 衛星의 시대에 지휘관과 참모장의 노력 만으로 逆情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不適當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任務를 수행하기 위해 소련에 특수 부서가 1968년에 설립되었다.

○敵 衛星에 관한 첩보를 수집, 처리하고, 소련의 영향권 內에 있는 육지와 바다 위

를 통과하는 衛星의 궤도를 예측하기;

○중요한 목표물을 偽裝하고, 미끼 (Decoy) 목표물을 구축하여 國家와 군사목표물을 敵 衛星으로부터 보호하고, 敵이 위성을 이용하여 중요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沮止하기;

○국제적인 모임에서 실제의 상황을 隱蔽하고, 거짓 상황을 제기함으로써 소련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소련의 言論을 통제 (군사적,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하고, 소련 및 외국 언론기관에 배포할 거짓 자료를 捏造하기;

○소련軍과 軍需産業 內에서의 비밀유지를 통제하고, 거짓 情報를 傳播시킴으로써, 國家秘密을 保護;

○敵이 우리에게 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收集;

○“敵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부터 올바른 結論을 導出하지 못하도록 거짓 情報를 捏造;

○모든 作戰에 있어서 奇襲效果를 얻기 위해 蘇聯軍이 취하는 모든 活動을 調整等.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部署가 總參謀部 內에 세워졌는데, 이 부서는 GUSM (Glavnoe Upravlenie Strategicheskoy Maskirovki; Principal Directorate of Strategic Deception)이라 命名되었다.

— GUSM의 成長 —

蘇聯 陸軍에는 Ogarkov將軍이 GUSM 을



GUSM의 創始者인 N. V. Ogarkov (右側 人物)

만들었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지만, 事實은 GUSM이 Ogarkov를 元帥로 만들어줬다. 1967년까지, N. V. Ogarkov 上級 大將 (Colonel General)은 Volga 軍管區 司令官이었다. Ogarkov를 제외하고는, 이 軍管區 司令官을 지낸 사람으로서 元帥로 進級한 將軍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Volga 軍管區는 元帥들이 이곳으로 追放되어, 나중에 逮捕, 処刑되는 곳이었다. M. N. Tukhachevski 元帥와 G. I. Kulik 元帥도 이곳에서 軍生活의 終止符를 찍었다.

蘇聯 共産黨 政權 創立 第50週年인 1967년에는, 前例없이 莫強한 힘을 對外에 誇示하기로 결정되었다. Ogarkov는 훈련 도

중에 鐵橋를 몇 시간 만에 건설하여, 西方側을 놀라게 해주고, 또한 有事時에는 蘇聯 戰鬥兵力이 라인江 (Rhine)을 건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안했다. 그러나, 當時의 소련 기술수준으로서는 그러한 橋梁을 몇 시간 以內에 짓는 것은 不可能했다. 따라서, Ogarkov의 감독하에 진짜 다리가 아닌 展示用 見本을 만드는 작업이 착수됐다. 얼마 후, 外國 參觀人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橋梁이 훈련 도중에 建設, 組立되었으며, 실제로 特別列車과 수십대의 貨車가 그 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모든 貨車는 비어 있었고, 機關車도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들어졌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橋梁은 示範運行中에 곧 무너질듯이 축 쳐졌었지만, 이것에 注目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 교량은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西方 Observers들을 놀라게 했다. 1968년부터, Ogarkov 一行은 GUSM으로 알려지게 됐다.

GUSM이 등장하기 前에는, 欺瞞에 관한 모든 문제와 이것의 企圖이, 總參謀部の 作戰參謀副長에 依해 수행되어 왔었다. 따라서, GUSM이 欺瞞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누가 누구를 통제해야 할 것인가”라는 基本的인 문제가 惹起되었다. “소련 陸軍의 未來 作戰은 正規戰이 우선인가, 또는 奇襲戰이 우선인가?”라는 순전한 理論 論爭의 口實 下에 權力鬭爭이 일어났다. Ogarkov는 이 권력투쟁에서 勝者로 浮上했다. 奇襲은 勝利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라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軍事企圖이 Disinformation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Disinformation의 통제 下에 놓이게 됐다. 이것은 Ogarkov의 Caree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勝利였으며, 그 이후에 실시된 모든 훈련에도 적용됐다. Ogarkov는 “만약 이것이 훈련이 아니고, 실제 作戰이라면, 敵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 충분히 說得力있는 답변을 얻지 못할 때는, 훈련을 取消하곤 했다. 이처럼 軍事企圖과 準備를 統制하게 됨에 따라, 全 蘇聯軍의 거의 모든 活動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Ogarkov는 軍事 産業委員會(閣僚 會議

副議長인 L. V. Smirnov가 이끄는 12人的 軍事-産業관련 閣僚들로 구성됨)에 대해 적극적인 攻勢를 폈다. 군사 산업위원회 소속 각료들의 통제하에 생산되는 모든 것의 量과 質은 비밀로 유지하고, 虛像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Ogarkov는 요구했다. 敵 人工 衛星이 上空에 있을 때는, 탱크, 항공기, 無線장비, 레이더 또는 잠수함의 試運轉이 절대 금지됐다. 이처럼 모든 技術上의 試驗은 GUSM이 承認한 日程에 따라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 GUSM의 同生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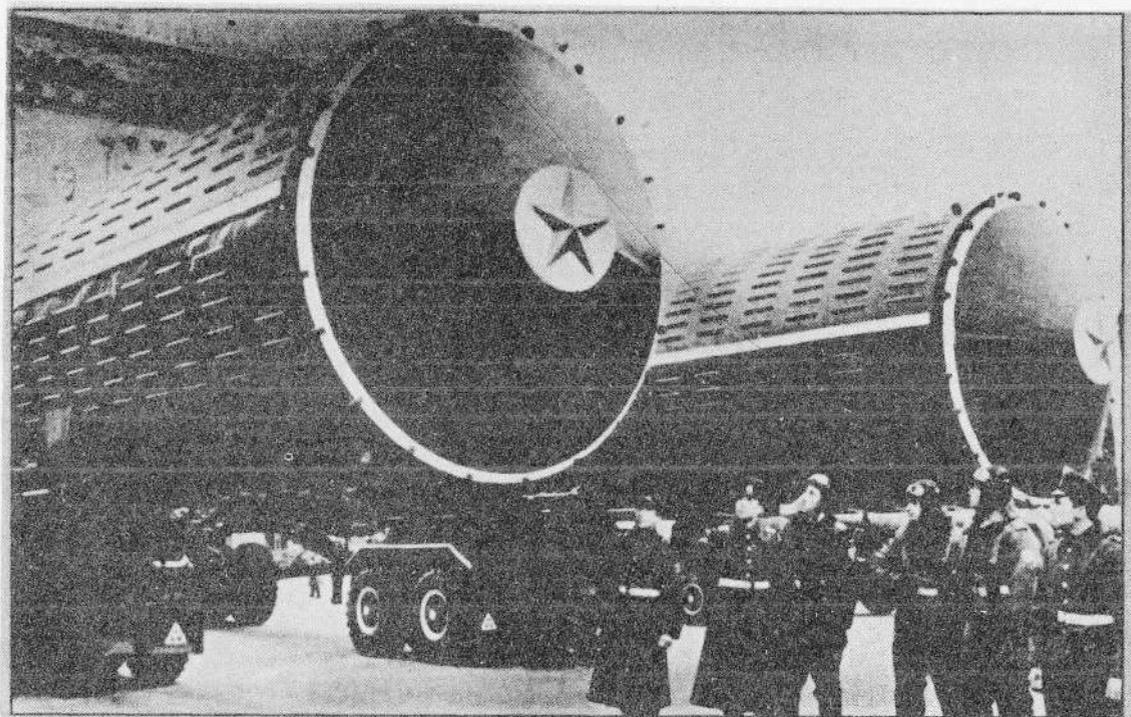
소련은 많은 國家들을 그의 統制下에 두고자 애쓴다. 소련의 통제가 특히 확고한 國家들에는 GUSM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部署가 설립되었으며, GUSM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 폴란드의 逆情報部는 아주 성공적인 Case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同生 國家”들의 逆情報部는 그러한 國家들에 共產主義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련의 道具이자, GUSM의 代辯者 노릇을 하고 있다.

— 未來의 展望 —

소련의 Maskirovka를 담당하는 GUSM의 조직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것의 權力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強化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2가지만 들자면;

○核무기 숫자의 增加와 그것들의 正確性



모스크바 周圍에 展開된, NATO Codename "Galosh" 미사일

은 敵 미사일에 거짓 目標物을 제공해줄 필요성을 낳게 됐다. 이것은 逆情報部가 엄청난 量의 活動領域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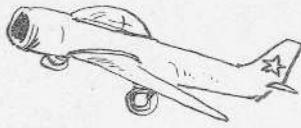
○蘇聯은 增加하는 經濟難때문에, 世界에

서 共產主義의 位置를 維持, 強化하기 위해 이미 휘두른 武器인 -으름장(Bluff) - 에 더욱 依存하게 될 것이다.

보다 빠른 기상

보다 높은 이상

보다 힘찬 전진



중공 전투기 개발 추세 및 전망

최 양 수
 군무원·공본
 정참부
 수
 記

목 차

1. 개 요
2. 중공 항공기의 명명법
3. 개발추세
4. 차기 전투기 개발
5. 항공기 생산 및 엔진현황
6. 중공군 현대화 움직임
7. 중공의 당면문제
8. 중공 항공산업의 문제점
9. 전 망

1. 개 요

중공은 최근('80년대)에 와서 군 현대화 및 중공 공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최신기술을 도입, 항공기를 중심으로 각종 무기를 개발 및 모방생산하는 한편, 무기수출국으로 지향하면서, 제3세계국을 대상으로 무기 판매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중공의 역사적 배경을 연대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960년

- 중·소 이념분쟁
- 소련의 군사 및 기술지원 전면 중단.
- 중공 항공산업 제트기 방제(倣製) 능력 보유(미숙)

○ 1966~1978년

- 모택동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
- 기술발전 전면 중단상태 : 10년간 지속.

- 1970년대 중반, 중공 항공산업 기술 수준 : '60년대 수준 약간 상회.

○ 1980년대

- 군 현대화
- 항공기 개발 집중 노력.

2. 중공 항공기의 명명법

중공은 '60년대 중반경에 MiG-17F를 방제(仿製) 생산, 최초로 파키스탄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공에서 방제한 항공기에

중공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임무별 기종 명칭은 다음과 같다.

3. 개발추세

중공은 1960년에는 중·소간의 이념분쟁으로 소련의 군사 및 기술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그후 6년 뒤에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약 10년 동안 기술발전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70년 중반의 중공항공산업의 수준은 '60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

韓國名	中 共 名	N A T O 名	備 考
戰鬥機	殲 擊 機 J : Jianjiji or Jian	Fighter Aircraft F : Fighter	A : Jia B : Yi C : Bing
攻擊機	強 擊 機 Q : Qiangjiji or Qiang	Attack Aircraft A : Attack	
爆擊機	轟 作 機 H : Hongzhaji or Hong	Bomber Aircraft B : Bomber	
偵察機	偵 察 機 Z : Zhenchaji or Zhen	Reconnaissance Aircraft R : Reconnaissance	
訓練機	教 練 機 JJ : Jianjiaoji or Jiao	Training Aircraft T : Trainer	
헬 機	直 乘 機 Z : Zhishengji or Zhi	Vertical Takeoff Aircraft H : Helicopter	
輸送機	運 輸 機 Y : Yunshuji or Yun	Transport Aircraft C : Cargo	

는 정도였으며, 기종별 개발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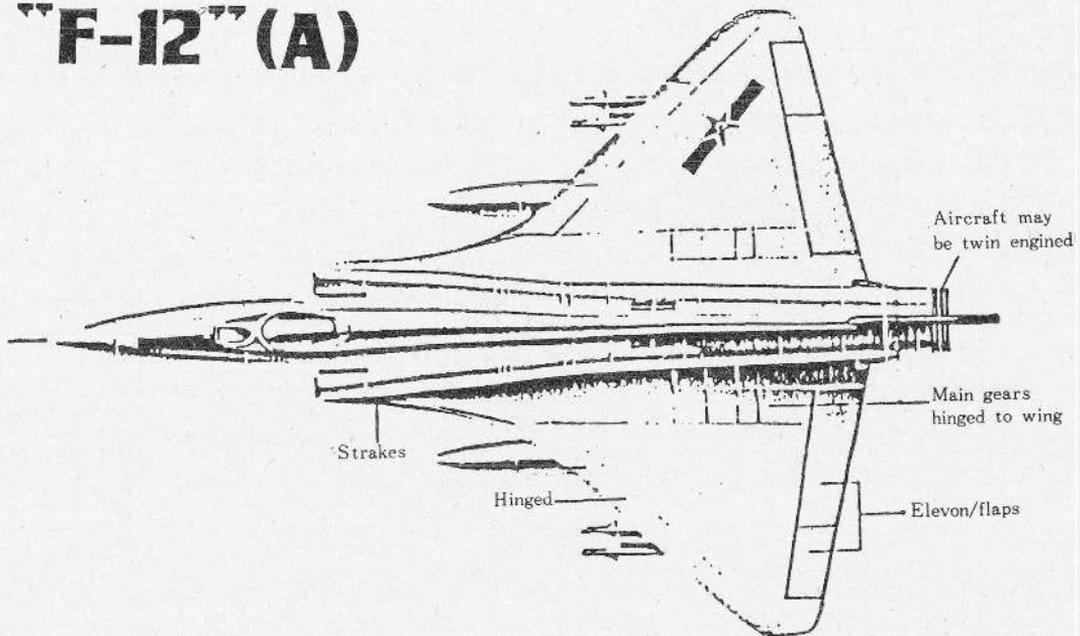
4. 차기 전투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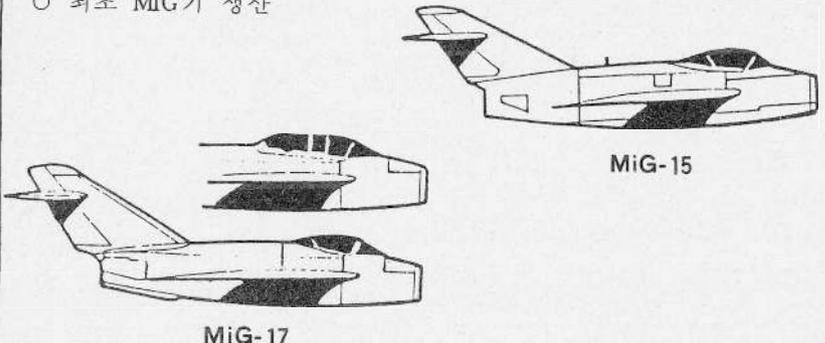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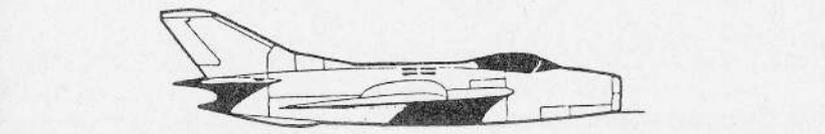
중공은 1960년대 초 2개 기종의 항공기,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J-6 및 J-7의 발전형인 Q-5와 J-8을 각각 개발하였으며, J-6/MiG-19에서 도출한 Twin-jet근접지원/대지공격기인 Q-5는 1971년에 생산이 절정에 달하여 약 100대가 생산된 후 1978년에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가 1981년부터 재차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J-8은 약 50여대가 생산되었으나, 취역은 하지 않고, 엔진, 기종, 공대공미사일 및 후퇴익 Wing에 대한 시험 및 개발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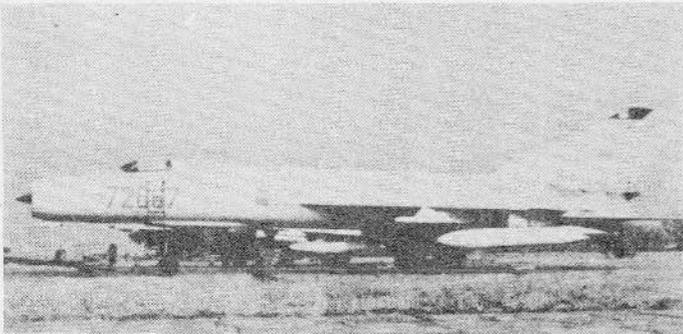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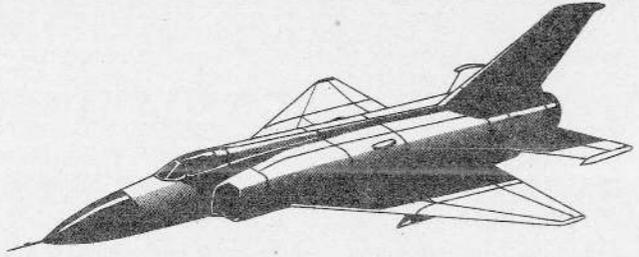
이외에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중공은 현재 구형의 항공기 생산량을 점차 감소시

키는 반면에, 그간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완전한 자체 설계방식에 의한 신형 전투기 F-12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하며 이에 사용하게 될 엔진은 1975년 Spey 200계열의 A/B터보팬 엔진(최대추력 약 20,500LBS)을 제작하기 위하여 영국 Rolls Royce사와 Licence협정을 체결하고, Sian 근처의 엔진공장에서 본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며, 기체는 1976년에 이집트에서 도입한 MiG-23의 설계기술과 그간에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을 토대로 자체 설계방식에 의한 고정익(F-12A)과, 가변 후퇴익(F-12B)의 2가지 형이 제작될 것이라고 한다. F-12A형은 Tailless Delta Wing Variable Camber Wing을 사용한 Mirage 2000 형의 전투기로 전투기동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반면에 F-12B형은 가변 후퇴익 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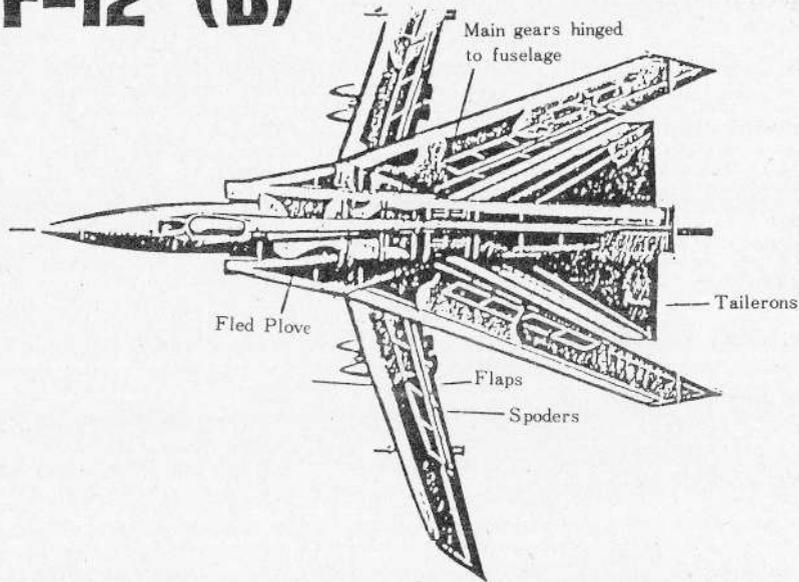
"F-12" (A)



기	종	생산 및 최초 비행 연도	일반 사항	개조 및 특성	비고
<p>○ 최초 MIG기 생산</p>  <p>MiG-15</p> <p>MiG-17</p>		<p>1950년대 중반 생산</p> <p>○ LICENCE 제작 - MIG-15 BIS (단좌) 및 MIG-15 UTI 복좌 훈련기 - 1956-60경 MIG-15 UTI 및 MIG-17F/PF 형 인도</p> <p>○ 최초 중공 독자적 생산(소련과의 LICENCE 제작 탈피) - J-5 UTI(JJ-5)형 - 중공 공군 훈련기로 채택</p>	<p>○ 소제 MIG-15 UTI형의 CANOPY 개조</p> <p>○ A/B 장착하지 않은 엔진 사용</p> <p>○ 고정식 기총 장탈식으로 개조</p>	<p>○ 중공 제작 전투기에 중공 명칭 부여 "예" MIG-17F : J-5 MIG-17PF : J-5A 수출형 : F-5 훈련기 : JJ-5 훈련기 수출형 : FT-5</p>	
<p>○ MIG-19 모방 생산</p> 		<p>1950년대 후반 생산</p> <p>○ 1960년 이전에 KNOCK-DOWN(분해조립식) KIT 형식으로 중공에 인도 (다수)</p> <p>○ 1958. 1 중공에 LICENCE 제작 승인, J-6 명칭으로 제작</p> <p>○ 1961. 12. 최초비행, 62년 중엽 중공공군에 인도</p> <p>○ 생산 가속화로 약4,000여대 생산</p> <p>○ 제한생산 계속(소모 및 수출주문대수 충족 목적)</p> <p>○ 노동집약적인 수제품(HAND-BUILT)이었으나, 소제 TUMANSKY R-9BF 엔진의 TBO(TIME BETWEEN OVERHAUL)를 연장하는데 성공</p>	<p>○ MIG-19, 6개 개조 기종 생산 - J-6 (소제 MIG-19S/SF형) - J-6A(" MIG-19 PF형) - J-6B(" MIG-19 PM형) - J-6C(" MIG-19 SF형) - J-6XIN (중공제 J-6A 개조형) - JZ-6 (소제 MIG-19 R형) ∴ 6개 기종 외에도 JJ-6 전투 훈련기 개발</p>	<p>○ 파키스탄 135대, 이집트 40대 수출 외에도 알바니아, 탄자니아 등 몇 개국에 100여대 이상 수출</p> <p>○ '79년에 JJ-6이집트 및 파키스탄에 수출 (명칭TF-6)</p>	
<p>○ Q-5 FANTAN 출현</p> 		<p>1965년 중엽 최초 비행</p> <p>○ J-6/MIG-19에서 도출한 TWIN-JET 근접지원 / 대지공격기</p> <p>○ 1970년대 후반에 최초확인</p> <p>○ 71년 생산절정, 약 100대 생산 후 78년 생산 거의 중단 상태</p> <p>○ 81년 재차 생산개시, 북괴 및 파키스탄에 수출 목적(추정)</p> <p>○ 현재 약600대 보유</p> <p>○ 최초에는 F-9 FANTAN 또는 F-6 BIS로 잘못 보도, 1980년 중공명칭 Q-5, 수출명칭 A-5, NATO 명칭 FANTAN-A로 확인</p>	<p>○ 서방측의 전자장비 사용</p> <p>○ 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 인기, 수출시장 확대</p>	<p>○ 1983년 파키스탄에 42대 수출된 후 약 100여대가 추가로 수출 중</p>	

기종	생산 및 최초 비행 연도	일반 사항	개조 및 특성	비고
<p>○ J-7 전투기</p>  <p>Fishbed, Finback and the Chinese future</p>	<p>1964 말 최초 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제 MiG-21F (FISHBED -C) 를 방제한 전투기 ○ 1965년 중공 공군에 취역 ○ 60-70대가 생산된 후 문화혁명으로 일시 중단 ○ 초기형은 체공시간이 짧고 공대공 무장능력 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O 확대 WOPEN - 7 : 약 100시간 WOPEN - 7A : 약 200시간 ○ 무장 적재능력 및 질적 조작능력 향상 ○ 이집트에서는 중공제 F-7 및 소제 MIG-21에 HEAD-UP DISPLAY 및 AIM-9P3/4 SIDEWINDER AAM 발사대로 개조하고 있다고 함. ○ F-7M(수출 개조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YPE 956 HUDWACS (HEAD-UP DISPLAY AND WEAPON-AIMING COMPUTER SYSTEM). - SKYRANGER RANGING RADAR, - DIGITAL IFF 등 서방측 전자장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형 : 알바니아 및 탄자니아에 수출 ○ F-7의 부품 및 엔진이 이집트로 수출된 바 있으나 약 160대가 추가로 주문된 바 있으며, 이는 일부는 이집트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이라크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p>○ J-8 FINBACK</p>  <p>J-8</p>  <p>J-88</p>	<p>1984. 5 최초 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에서 개발한 공중 우세 전투기 ○ 1960년대 초 2개 항공기 개발계획 착수 J-6 및 J-7의 발전형인 Q-5와 J-8가 각각 개발 ○ 약 50여대가 생산되었으나, 취역은 하지 않고 SPEY 엔진, 30밀리 기총, 공대공 미사일 및 후퇴익 WING에 대한 시험 및 개발기로 사용 ○ 당시 원형기는 TUMANSKY R-11 터보제트 엔진 1개를 사용하고 있었음(J-8참조). ○ 1985년 초에 신화사통신이 발표하므로 확인 ○ J-8 XIN으로 명명 ○ 대만 보유 F-5E의 대응기로 개발 노력 ○ INTAKE는 F-20 TIGERSHARK와 유사 ○ J-8 보다 성능 크게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에 INTAKE가 있음. ○ J-8 XIN은 기수부분을 개조 AI RADAR 장착 ○ 중량 증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량 고성능 엔진(TUMANSKY R-13-100 개조형, 중공 자체 개발형) 사용. 	

"F-12"(B)



로 우수한 다목적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첩보(JANE'S Defense Weekly 1985. 12. 25)에 의하면, 중공은 후퇴익 및 Delta익(Mirage 2000과 유사)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일환으로, 엔진은 이미 개발 시험 중에 있는 J-8과 차기 전투기(J-10, 1개의 엔진을 사용한 Mach 2급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의 PW1120(최대추력 10톤급) 엔진을 구입하려 하고 있으며, 기체는 중공에서 방제(倣製)한 Mig Model의 부품 및 항공기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수대의 MiG기를 이집트로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이는 방제기술의 발전과 경험을 토대로 한 가변기하학기술(Variable Geometry Technology)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다. 중공은 이를 기반으로, J-11과 J-12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추측되며, J-12는 후퇴익 Twin-Engine, 2차원 Intake식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5. 항공기 생산 및 엔진현황

중공은 중공공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신기술 도입은 물론, 엔진 및 전자장비 등의 도입교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개발한 항공기는 아직 방제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생산된 항공기 및 엔진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6. 중공군 현대화 움직임

중공은 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주요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hina's aircraft products

Chinese export designations	Type	Origin
Shenyang aircraft factory		
JJ-5/FT-5	fighter/trainer	MiG-17
J-6/F-6	fighter	MiG-19/
JJ-6/FT-6	fighter/trainer	Development of MiG-19
J-8/F-8	fighter	MiG-21 (twin-engined)
Xi'an aircraft factory		
J-7/F-7	fighter	MiG-21F
H-6/B-6	bomber	Tu-16
Y-7	transport	An-24
Design stage	supersonic bomber	(seeking partners)
Design stage	high-performance trainer	
Shanghai aircraft factory		
Y-10	transport (research)	similar to B707 (uses P&W engines)
Hanzhong aircraft factory		
Y-8	transport	An-12
Nanchang aircraft factory		
Q-5/A-5	attack	MiG-19
CJ-6	basic trainer	similar to Yak-18
Harbin aircraft factory		
H-5/B-5	bomber	Il-28
Z-5	helicopter	Mi-4
Z-6	helicopter	Mi-8
Z-9	helicopter	licence-built <i>Dauphin</i>
Y-11	utility	An-2 replacement
Y-12	STOL transport	Y-11

Current Chinese aero-engines

Piston engines (Huosai)	Factory	Derivation	Power plant/rating
HS-5	Quzhou	ASh-62IR licence	1000 hp
HS-5A	Harbin	ASh-82V licence	1700 hp
HS-6A	Quzhou	AI-14RF	285 hp
HS-16	?	Chinese design	16 hp
Turboprop (Wojiang)			
WJ-5A-1	Shanghai	AI-24A copy	2900 ehp
WJ-6	Shanghai	AI-20K copy	4250 ehp
Turboshaft (Wozhou)			
WZ-5	Shanghai	WJ-5	2400 shp
Turbojet (Wopen)			
WP-2	Harbin	RD-45 licence	2270 kg st
WP-5	Harbin	VK-1 licence	*3380 kg st
WP-5D	Harbin	VK-1A licence	2700 kg st
WP-6	Shenyang	RD-9BM licence	*3250 kg st
WP-7	Chengdu	R-11-300F copy	*6200 kg st
WP-8	Xian	RD-3M copy	9500 kg st
WP-?	Xian	Spey 202 licence	*9305 kg st

*with afterburning

○ 군의 감소

- 400만에서 300만으로 감소(공군 49만에서 35만으로 25% 감소).

- 보다 많은 무기구입을 위한 기금마련(경제적인 측면).

○ 주요 무기수출국으로 지향

- Xian 및 Chendu 공장 : F-7 수출

- Shenyang, Shanghai 및 Nanchang 공

장 :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많은 Huyer 확보.

- 1984년 무기판매고 : 20억불 상당.

- 6개 일류 무기수출국에 포함.

- 노후된 기술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 3 세계국가들에게 수출 달러 및 경화(Hard Currency)를 획득, 정교한 무기구입에 사용.

○ 장기간 기술획득 노력

- 단기간에 군 현대화시 막대한 비용 소요

- 필요한 군기술(최신무기 / 생산기술 등) 및 자급자족을 위하여 Long-Term Partner 추구

○ 미·중공간 군사관계 개선

- 고위급 대화(군 및 산업회사 고위급 포함)

- 군 교류(공군이 가장 활동적)

- 군기술 이전 등을 들 수 있다.

7. 중공의 당면문제

현재 중공은 기술기반 조성 및 군 현대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문제점

들을 갖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측면(Money Gap)

- 중공경제 압박(1985년)

- 인플레이 16%, 수입초과, 상품의 질저하

- 경제위기(Economic Brakes)

- 예산(국방비 포함) 삭감.

○ 기술적 측면(Technology Gap)

- 기술이용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결여.

- 정교한 무기체제 흡수능력 결여

○ 법률(국제법)적 측면(Legal Limitations)

- 무기판매 조종법(미국) 1,400 만불 이상 판매시 의회승인 요청

- 해외 원조법(미국)

국가이익 침해시 방어무기 판매액이 300 만불 이상일 경우 대통령이 승인하지 못하도록 제한

- 군수품 통제법(미국)

1983년 이후 중공에 판매가 해제된 품목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 통제

- COCOM법

NATO 이외의 국가에 방어무기 판매시 COCOM의 승인을 획득

○ 중공 공군측면

- 민간항공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군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국으로부터 강한 압력

- 예산 삭감

- 최신 항공기 및 장비획득에 어려움.

8. 중공 항공산업의 문제점

중공 항공산업은 방대한 잠재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및 엔진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해외 선진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1976년 및 최근에 이집트로부터 MiG-23을 도입하는 일 외에도, 서방측의 최신기술을 도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 및 엔진생산공장
 - '50년대 중반 소련에서 설립
 - '80년도까지 최신 생산기술 미구비
 - 부품 및 공구 등 자급자족상태
- 기술도입조건
 - 중공측에 유리하게 제시
 - 미국 및 서방 선진국의 비적극적 기

술지원

- 중공 경제성의 낙후

- 경제력 부족
- 도입되는 신 기술자원의 지원능력 부족
- 정 책
 - 신 기술 및 신 장비 일시 대량도입 금지

9. 전 망

○ 중공 항공산업은 그 낙후성을 면하기 위하여 미국 및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최신기술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망되며

○ J-8을 개발하는데 약 20년이 소요되었고,

○ 현재에도 항공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 당분간은 방제(倣製)능력에 불과할 것이며,

2000년 이후에나 독자적인 최신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1985.No.12.
- JANE'S Defense Weekly, 1985. 12. 14.
- JANE'S Defense Weekly, 1985. 12. 21.
- JANE'S All the World's Aircraft, 1985~1986.
- JANE'S Defense Review, 1983. No.9.
- The Chinese War Machine. 1979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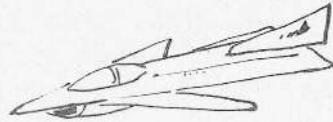
고성능 항공방송장비 소개



중령 서 호 창
(제3591부대)

목 차

1. 개 요
2. 필 요 성
3. 사용목적과 효과
4. 장비 소개
5. 장착 검토
6. 결 론



1. 개 요

현대 기계문명의 구조적인 발달과 생활의 복잡 Speedy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하고 특히 '86, '88 양대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안내 및 홍보방송, 공중초계, 긴급환자공수 등에 다방면으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항공기장착 고성능 방송장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필 요 성

특히 우리공군의 헬기는 그 임무가 다양하여 전·평시 탐색구조, 긴급인원 및 물자공수, 화재(고층건물 및 산불)진압, 수해 및 해난구조, 환자후송 등 장차 그 임무의 중요도와 난해도는 더욱 증가하여진다고 보겠다.

더하여 구조조종사라면 누구나 평소 탐색구조임무 중에 방송장비의 필요성을 절

실히 느껴왔으며, 지상 혹은 해상의 조난자에게 조종사의 의도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본다.

3. 사용목적과 효과

구조기 조종사가 탐색 혹은 구조임무 중 항공기로부터 지상의 인원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요구사항이 각 상황별로 몇가지 있으나 Mess Age Drop, Wing Rocking, 착륙등 사용, 연막탄 사용 등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이어서 이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본다.

이와 반면 확성기에 의한 전달은 가청거리 내에서 직접 전달되어 조종사의 의도나 요구에 바로 응신할 수 있다.

탐색 및 구조 상황별, 종류별로 보면 -

○ 육상탐색 구조임무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탐색을 통하여 조난자를 찾아내는 수 밖에 없다. 조난 탐색의 방법에는 현행 공군 탐색절차에 따르고 있으나 방송을 통하여 조난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조난자가 구조받기에 안전상 적합하지 못할 경우, 혹은 항공기에서 보내는 의도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 방송으로 작업하기란 훨씬 쉬운 일이다.

현재의 방법은 헬기의 Down Wash (로타에 의한 강한 바람)와 소음때문에 Mess

Age Drop 방법을 쓰고 있지만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확성기의 사용으로 조종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시하여 효과적인 임무완수가 기대되는 것이다.

○ 해상탐색구조 임무

특히 해상탐색구조에 있어 방송통신장비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항공기가 해면이나 선박 위에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난자나 선박의 상태 확인,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한 구조작업상의 안전장애요소(예: 마스트, 선, 위치 선정.....) 등을 제거한다거나 조난자에게 구조작업을 통제 지시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고층건물 화재 구조

점점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헬기의 구조작업 중 하나가 고층건물 화재이다. 건물의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열기(熱氣)와 심한 연기(비행시 극히 시정장애 요인), 회돌림 바람과 異常기류, 고압선, 건물의 안테나 등으로 인하여 건물에 접근하기란 몹시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이때는 구조낭이나 인양기, 로프(Rope)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전 통제와 질서유지 등 조치할 사항을 지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안전한 그리고 신속한 작업과 함께 지상 소방구조대원들에게 통신유지, 화재의 각종 정보제공 등 공중통제의 역할에 큰 잇점이 된다.

○ 심리전 적용

대비정규전, 대테러작전, 폭동진압 등 심리전을 위해 외국의 경우 이 확성기를 통한 Mess Age 전달 및 작전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적이나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심리적 불안 및 갈등, 행동의 制約을 야기시킴으로써 작전의 양상을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또한 전달살포 보다는 청각적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공군도 이러한 방면으로 研究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86, '88 행사 지원임무

대규모 군중이 집중될 양대 행사에 헬기의 다양한 지원임무가 예상된다. 방송장비의 장착으로 Air Patrol, 홍보, 안내방송, 질서유지, 신속한 환자후송 등에 크나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군중이 많은 현장에 직접 이착륙할 필요가 있을 경우 機上의 안내요원이나 地上통제관 없이도 방송으로 인원, 차량소개(疎開)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

4. 장비 소개

○ 제원 및 성능

항공용 고성능 방송장비 확성기는 세계 여러 회사에서 제작, 運用하고 있으나, 代

表的인 장비로 美国에서 生産된 Applied Electro Mechanics(A. E. M)社의 900W 및 1,400W이다.

다음 도표는 美 Bell회사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한 후 산출한 자료이다.

장비출력	900W	1,400W	UH-1 비행소음
거리 (m)	Sound	Level	(DB)
2.5	129.7	131.7	70.5
10	123.7	125.7	63.5
100	100.6	102.6	45.2
1,000	77.5	79.5	32.5
2,000	70.5	72.5	25.0
3,000	66.5	68.5	20.0
4,000	63.6	65.6	15.5
5,000	61.4	63.4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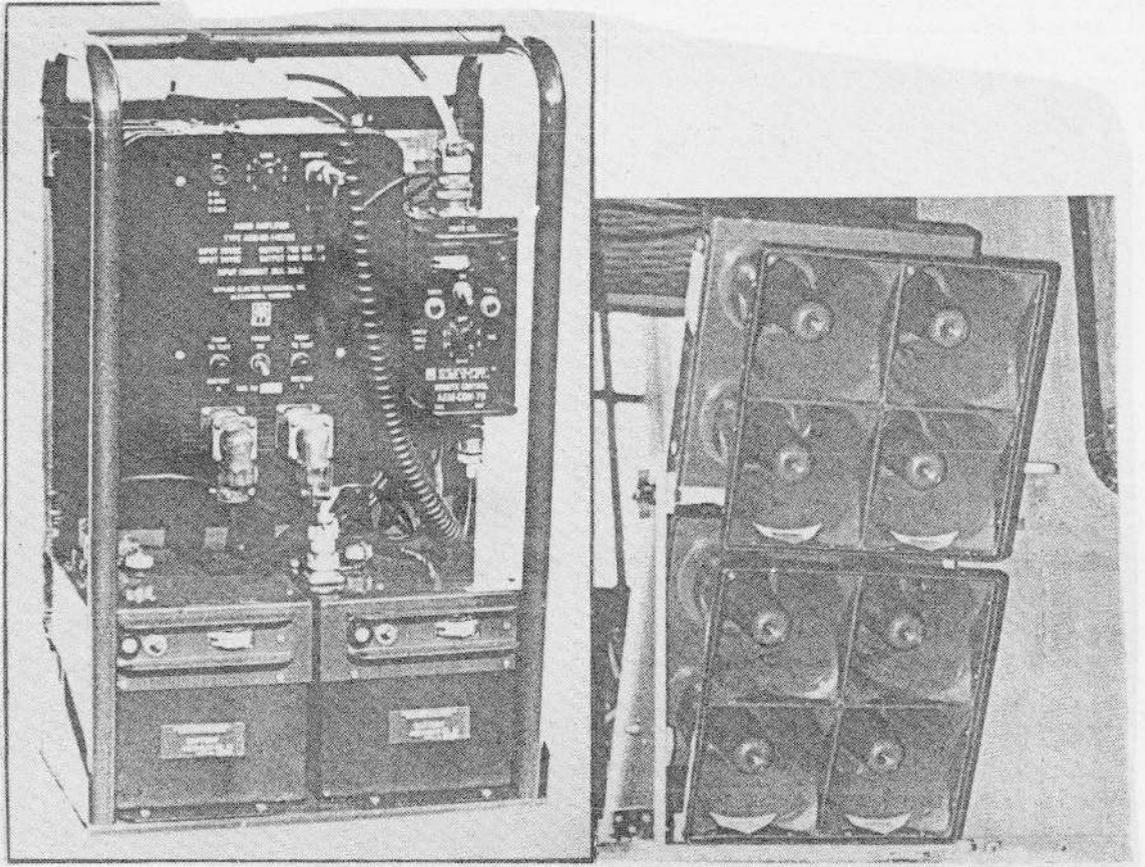
○ 특 성

- Compact 도안으로 장비의 중량은 150 LBS 이내로 되어 있으며 탑승인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항공역학적으로 비행자세 변화, 속도의 감속을 초래하지 않는다.

- 충전없이 3시간 이상 자체 전원으로 사용가능

- AC와 DC 겸용이며 항공기 자체 전원



으로 충전가능하며 충전 중 사용가능

- 고성능으로 장거리 통달, 고공확성기
청과 넓은 지역을 Cover할 수 있어 유사시
적의 사격 유효사거리 밖에서 운영가능하
며 초저고도 비행할 위험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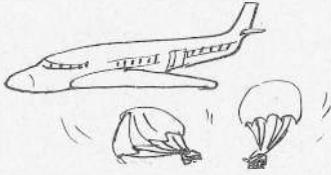
5. 장착 검토

AEM사에서 개발된 이 장비는 항공역학
적, 성능, 동력시험 등을 마치고 UH-1 항
공기에 장착 인가된 장비로 미국 뿐만 아
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육·해·공군, 해안

경비대 (Coast Guard), 해양경찰, 소방대,
산림청 등 각 부서에서 심리전, 탐색 및
구조, 공중방송, 인명구조, 공중순찰, 고속
도로 순찰, 진화작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6. 결 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헬기의 임무를 수
행하는데 조종사의 의도나 요구를 직접 전
달하고, 장차 크게 이용될 방송장비를 장
착한다면, 원활한 임무수행과 더불어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르린 공수(空輸)

소령 이귀형

제 5672부대

소련이 베르린을 봉쇄하던 1948년 6월부터 1949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베르린 시민의 생필품을 공수 함으로써 共産赤化의 음모를 모면케 했던 作戰, 空輸史上 淸목할 만한 이정표를 제시했던 그 作戰을 소개한다.

목 차

1. 역사적 배경
2. 작전의 세부계획
3. 작전 내용
4. 공수 취급업무
5. 베르린 봉쇄중지
6. 분 석
7. 결 론

항공기가 전쟁수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후 공수항공기의 역할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사시 공수항공기의 적절한 이용은 아군의 전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전쟁에서도 그 역할은 눈에 크게 띄지 않으면서도 아군의 손과 발로서의 임무를 훌륭하게 해냈던 것이다. 그 몇 가지 예로써, 원산 철수작전시 유엔군 3천여명의 공로철수와 장진호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미제10사단의 생필품 투하 및 공로탈출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그 당시 공수항공기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국부적으로 커다란 인명손실은 물론 유엔군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베르린 공수란

1948년 소련이 베르린을 봉쇄함으로써 '48년 6월부터 '49년 5월까지 1년 가까이 베르린 시민의 생필품을 공수했던 것으로서 공수항공기의 위력과 능력을 보여주어 공수 사상 팔목할 만한 이정표를 제시한 좋은 예이다.

1. 역사적 배경

2차대전의 결과로서의 독일의 분할은 대전국들의 전후처리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였다. 대전 후, 독일을 분할 지배했던 4개국(미·영·불·소)이 '47년(2월 런던에서 4개국 외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됨으로써 분할된 독일의 통일은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방측의 미·영·불 3국은 그 점령지역에서 독자적인 정부수립과 공업화로서 소련에 다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소련은 이것이 "4개국 협정위반"이라고 트집삼아 '48년 3월 「독일 관리이사회」를 탈퇴했으며 동년 4월 1일부터는 서베르린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철도에 대하여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베르린 봉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된 독일의 통화개혁문제는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서 서방측은 6월 18일 새통화 독일 마르크화를 발행하였다. 이에 당황한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의 신통화를 발행하여 그들의 점령지역과 동베르린에 적용하면서 서독의 신통화가 서베르린

지구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구실로 서방측 점령지로부터 서베르린에 이르는 육상 및 수상의 모든 수송로를 차단하였다. 따라서 미·영·불 서방 3국은 고립된 베르린 시민을 기아에서 구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베르린이 소련 점령지역 하에 있다는 것이었다, 즉, 서베르린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련 점령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미국측에서는 전차와 장갑차로서 소련의 봉쇄조치를 뚫고자 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측은 이것이 제3차대전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 때문에 미국측 의도를 반대했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결국 서방측은 공수항공기를 이용하여 서베르린에 생필품을 비롯한 제반 물자를 공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작전의 세부계획

베르린 공수작전(이 작전의 명칭을 미국은 비틀리스 작전 "Operation Vittles", 영국은 플레인 웨어 작전 "Operation Plan Fare"라고 불렀음.)을 위한 모든 계획은 당시 유럽 주둔 미공군사령관인 "리메이"장군이 담당하였고 군항공수송단장이었던 스미스(Joseph Smith) 중장이 「베르린 임시공수 특수임무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공수 항공기는 우선 유럽 주둔 미공군(본부: 프랑크푸르트 근교 비스바덴의 스파트타운) 산하의 C-47항공기를 동원하여 미군 점령지역인 비스바덴에서 서베르린 땀펠호

프기까지 우유, 소맥분, 의약품 등 약 8
 톤의 생필품을 공수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수
 를 위하여 “리메이” 사령관은 미공군본부에
 공수항공기와 조종사를 추가 지원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그 후 54대의 C-54항공기
 와 105대의 C-47항공기가 추가로 파견되
 었지만 베르린 봉쇄는 계속되어 서베르린의
 미국과 프랑스 점령지역에는 일일 3,000톤,
 영국 점령지역에는 1,500톤의 물량이 필요
 하게 되어 항공기는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반덴버그 장군(1944년부터 '45년까지
 유럽 제9공군사령관 재직)은 베르린 공수
 에 필요한 병력을 유럽 주둔 미공군병력 일
 부를 독일로 파견해 주도록 미항공수총단에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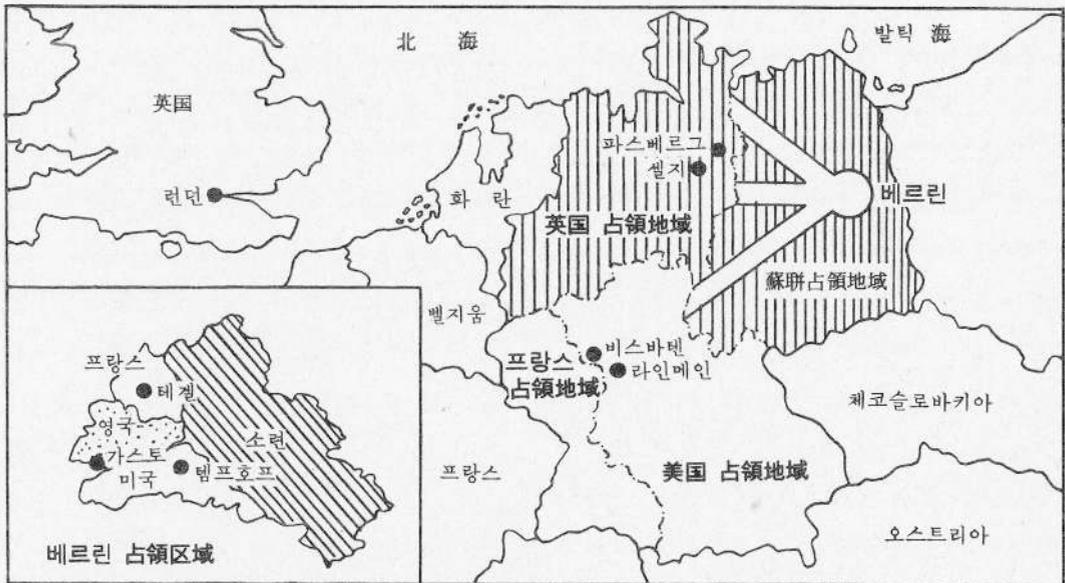
3. 작전 내용

당시 서베르린에 입항하는 경로는 미국
 점령지역에 1개 영국 점령지역에 2개 도
 합 3개 밖에 없었다(표 1참조).

가. 비행장

초기에는 미국 점령지역의 라인메인(Rh
 ein Main)과 비스바덴(Weisbaden) 기지에서
 공수하였으나,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미공군은 미국지역으로부터 베르린까지의
 경로가 대체로 짧은 영국지역 파스베르그
 (Fassberg)와 셀리(Celle) 기지로 적재기지
 를 옮겼다. 또한 화물량이 그리 많지 않던

〈표 1〉 베르린 空輸作戰中 베르린 接近路(1948. 6. 26~1949. 9. 30)



초기에는 주로 서베르린에서는 템펠호프기지, 영국에서는 가토우(Gatow)기지를 사용하였으나 항공교통량과 화물량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프랑스 점령지역 내의 테겔(Tegel)기지를 급조하여 사용하였다. 또 미공군은 이 작전을 위하여 총 7개의 비행장을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라인메인·비스바덴·파스베르그 및 쉘리기지는 적재임무를 주로 하였고 템펠호프·가토·테겔 기지에서는 하역임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다.

나. 비행절차

당시 독일 내에서는 항공기 운영에 적합한 각종 시설이 전후 복구가 되지 않아 계기비행 상태 하에서의 비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서부유럽의 특이한 악천후와 안개는 작전수행에 더 많은 장애요소가 되었다. 우선 각 항공기별로 지정된 고도와 속도가 주어졌다. 고도는 최저 5,000피트에서부터 최고 10,000피트까지 총 6개의 분리된 고도를 사용하였다. 이륙은 대략 3분 간격으로 하였으나 착륙기지의 접근관계 수용능력에 따라 다소 변경되기도 하였다.

◎ 비행경로

시제비행 상태 하에서는 경로가 별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계기비행 조건 하에서는 안전상의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계기비행을 위해서는 항공기를 관제하는 지상 관제소와 적절한 지상 보조장치가 필요하였으나 종전 직후의 독일에는 그러한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오늘

날 처럼 현대화되지도 못하였다. 조종사는 이륙 후 계기비행상태까지는 주로 지형지물을 참조하여 상승하였으며 수평상태에 다다르면 급조한 ADF항법장비와 시간계산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즉, 지정된 지형지물이나 도시 상공을 통과하여 ADF 무선국을 지나서 조종사간의 상호 위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시간을 점검함으로써 시간상으로 목적지까지의 잔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썼다.

◎ 접근착륙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서유럽에서는 운고 500피트 시정 1~2마일 이하의 기상 현상은 자주 발생하는 악천후이다. 당시 정확한 기상점검을 위하여 B-29항공기가 사전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예보를 말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오늘날 처럼 장비가 현대화된 조건 하에서도 대부분 기지의 착륙 최저치가 200~500피트 사이이며 시정도 2마일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 착륙에는 고도의 기량이 요구되었고 추측할 수 있다. 계기접근 착륙시에는 GCA접근을 시도하여 착륙에 실패할 경우(Missed App)에는 재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이륙기지로 되돌아 오도록 하였다. 이는 3분 간격으로 이륙하여 계속 접근하고 있는 후속 항공기와의 안전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특히, 활주로상의 조명장치는 접근 착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비행장 주변의 많은 고층 건물은 고도 강하에 비례하여 조종사의 긴장도를 높였고 이것은 활주로(Active RWY)가 접근하는 반대쪽일

경우에는 선회접근(Circling App')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4. 공수취급 업무

한국전쟁사에도 유엔군의 북진시 병참을 지원하는 공수항공기의 화물포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된 예가 있었다. 즉, 충격흡수기술과 낙하산 용량에 따른 적합한 화물포장 그리고 부피 감소기술 등이 대두되었다. 베르린 공수시에 대두된 문제는 화물의 부피가 큰 것,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자류는 탈수를 했고 곡물류는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포장없이 자루에 넣어서 적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석탄류의 공수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특히 이것은 검은 탄가루와 많은 먼지로 인하여 정비 작업에도 많은 애로점이 야기되었다. 또한 냉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항공기로서는 고기와 생선류 등 일부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 공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유류의 공수는 처음에는 드럼통을 사용하였으나 항공기에 기름탱크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생기면서 급유 전용항공기가 나왔다.

이것은 주로 영국측에서 담당하였으며 송유시설이 되어 있는 가토와 테젤기지에서 송유관으로 직접 베르린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

5. 베르린 봉쇄 중지

'48년 6월부터 베르린 공수를 시작하여 10개월여에 걸친 임무를 통해서 제반질차가 숙달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항공기가 베르린을 왕래하였으며 화물량도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봉쇄가 해제되기 한 달 전에는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수가 실시되기도 했다.

6. 분 석

베르린 공수에 사용된 미국측의 주기종은 C-54항공기였다. 초기에 C-54가 투입되기 이전에는 C-47항공기가 사용되었으나 적은 화물 탑재능력 때문에 C-47보다 3배 이상의 탑재능력이 있는 C-54항공기로 대체되었다. 베르린 공수에 사용된 항공기는 약 400대였으며 주기적인 항공기 정비, 고장을 제외한 평균 가동 댓수는 319대였다. 이 가운데 19대는 조종사 및 기타 승무원의 교체용(미본토로부터 서독까지)으로 사용되었고 75대는 급유기(Tanker)로 나머지 225대가 일반 생필품을 공수하였다.

원래 C-54항공기는 병력 수송용이었으나 일부는 화물 공수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였다. 영국은 민항기를 포함하여 74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었다. 이렇듯 서베르린의 생필품과 식량, 유류 등 일체가 11개월 동안 공수작전으로 공급되었다. 총 277,728소트의 비행으로 2,343,300톤의 물자가 공

수되었다.

한 때 공수임무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서베르린에는 평균 45초 마다 1대씩의 항공기가 착륙하는 셈이 되었다. 이 공수작전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미공군과 해군이 1억 8,130만불, (작전비용 570만불, 지원비용 6,470만불, 항공기 파손 750만불 항공기 감가상각 1,100만불)을 소모하였으나 그 목적은 훌륭히 수행하였다.

베르린 공수작전 중 발생한 비행사고는 공중충돌 1건과 지상충돌 12건으로 총 31명의 승무원이 순직하였다. 그러나 베르린을 방어했다는 커다란 업적에 비하면 극히 만족할 만한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당시의 공수체계가 미약했거나, 공수작전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서독과는 전혀 다른 서독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도 공수작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공수가 없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이 신무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러한 공수 전력의 적시 적절 한 이용, 투입, 후송, 재생산 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크나 큰 전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결 론

베르린 공수는 산악지방이 많아 전시에 고립되기 쉬운 우리 나라와 같은 곳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공수작전의 본보기인 것이다. 이 공수작전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예라는데 그쳐서는 아니되며 제반 비행절차, 항로이용방법, 승무원 휴식, 활주로 사용요령, 공수화물의 포장 등 세부적인 분야까지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유사시에는 항공지원 시설이 미약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고성능의 항공기가 있고 노련하고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도 있으며 각자 타고 난 소질도 갖추고 있다. 또한 임무수행 능력도 우수하다. 단지 현재의 제반 여건과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적으며 조금은 소극적인 면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감출 수는 없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배운다는 옛 말대로 잊혀져 가는 과거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력을 다질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더욱 노력하는 공군상을 정립해야 겠다.

오 천 년 에 처 음 기 회

지 혜 롭 게 이 용 하 자

兵務行政에 關한 綜合的 理解



중 위 한 석 규
(공 본 인 참 부)

목 차

- | | |
|---------------|---------------------------|
| 1. 兵 役 義 務 | 5. 空軍選拔 試驗制度 |
| 2. 服 務 形 態 | 6. 武官候補生 教育 中 退校된 자의 人事處理 |
| 3. 징 병 검 사 | 7. 碩士學位 所持者의 特殊專門要員 |
| 4. 空軍 現役兵의 入營 | 8. 兵役忌避者 등의 処罰 |

1. 兵役義務

“모든 국민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에 兵役義務條項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兵役法 제 3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男子는 憲法과 兵役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兵役義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女子는 志願에 의하여 現役に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 정하고 兵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兵役義務에 대한 特例規定을 둘 수 없으며, 6年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兵役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男子는 國民皆兵主義에 입각하여 징집 또는 志願에 의하여 17才~30才까지 兵役義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第5共和國 憲法은 병역의무이행으로 不利益한 処遇를 받지 않는다고 그 地位를 보장하고 있다.

空軍은 첨단과학을 이용한 高度精密裝備를 運用管理하는 技術軍으로서 全將兵의 兵役義務履行形態를 志願에 의한 制度를 採択하고 있다(표 1).

〈표 1〉

공군장병 입영형태

신분 \ 구분		학 력	연 령	진 형 방 법
장 교	사 관 생 도	고졸 이상	만 17 이상 21세 미만	학력고사, 내신성적, 체력검정
	학군 사관후보생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만 18세~ 22세 미만	학과시험(적성), 대학성적
	사 관 후 보 생	대졸 이상 (4년제)	만 20세~ 27세까지	적성검사, 전공시험
	특수 사관후보생 (법무, 의무, 군중)	"	"	국방부 선발
하 사 관	기 술 고 등 학 생	중졸 이상	만 15세~ 17세 미만	국, 영, 수, 과학, 사회
	학군 하사관후보생	"	"	국방부 선발
	하 사 관 후 보 생	고졸 이상	만 18세~ 25세까지	선발시험(국, 영, 수학, 과학)
병	기 술 및 일반병	"	"	"

2. 服務形態

各軍의 將校, 下士官, 兵의 복무형태와 特殊兵科, 轉任服務, 防衛兵, 特例服務의 유형별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표 2).

3. 징병검사

<표 2.> 각군 장병의 복무형태

종별	복무구분	군 별	복무기간	종별	복 무 구 분	복무기간
현 역 원 부 무	정집 일 반 병	육군, 해병	30 개 월	학 군 무 관	장 교 (R. O. T. C)	(육 군) 2 년 (공 군) 3 년 (해 군) 2 년
	사 관 생 도	육, 해, 공군	10 년		하 사 관 (R. N. T. C)	(금호고) 5 년 (목포해양전문) 2 년
	학 사 장 교	육 군	3 년			특 례 부 무
	사 관 후 보 생	공, 해군	3 년		특수전문 요원(석사)	
	정훈, 회계, 의정장교	육 군	3 년	자연계 교원 요원 (충남대, 공대 교육공학)	6개월+교사 2년 6개월	
	기술 장 교	"	3 년		(교육대학)	
	단기 사관장교	"	6 년	N. R. O. T. C(장 교) N. R. N. T. C(하사관)		
	군 법 무 관	육, 공, 해군	10 년		공 중 보 건 의	
	준사관후보생	육, 공, 해군	5 년	전 임		
	군 위 탁 생	육, 해군	3년+위탁기간		경 비 교 도 대	
	군 기술위탁생	육, 해군	5 년	방 위 부 무 (육, 해, 공군)		
	기술 및 일반 하사관후보생	육, 공, 해군	단기 : 4년 장기 : 7년			
	특진 하사관	육, 해군	4 년			
	현 병 하 사 관	육 군	4 년			
	전투기술하사관	육 군	4 년			
	일반 및 기술병	공, 해군	35개월			
	육군 기술병	육 군	30개월			
	카츄샤	육 군	30개월			
	특수 장 교 (법무, 군중, 군의)	육, 공, 해군	3 년			
5급공채(행정, 의무, 기술고시) 및 사법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미임용된 일반장교	육, 공, 해군	3 년				

가. 대 상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면 징병검사대상자인 第1国民役に 編入되고 19세가 되는 해에 兵役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判定받기 위해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区, 市, 邑, 面의 長이 指定하는 日時, 場所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징병신체검사를 30歲까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1歲부터 면제되고 補充役に 편입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正当한 事由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의거하여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표 3〉 신분별 징병검사 연기

연 기 사 유	구 분	연 기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한연령 내에 해당학교 졸업 가능자	고 등 학 생	연령에 무관하게 졸업시까지	○해당학교에서 매년 3.31까지 연기원 제출	
	전 문 대	2 년 제	22 세	○졸업전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다.
		3 년 제	23 세	
	대 학	4 년 제	24 세	
		6 년 제	26 세	
	대 학 원	4 학기제	26 세	○대학원졸업 전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5, 6학기제		27 세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인 자	사범연수원(사범)	26 세	현역 입영대상자는 군법무관, 또는 일반장교로 임관	
	중앙공무원 교육원(행정, 외무, 기술고시)	25 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현역 입영대상자	23 세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국외 유학생	국내 대학생 제한연령까지	1년 연장가능(추가로)	
	국외 체재자	"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	영주목적으로재 귀국할 때까지		

나. 징병검사의 연기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표 3).

다만, 연기대상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적변동자”로 되어 연기가 되지 아니한다. 즉 ①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자, ②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자, ③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 또는 입학한 자, ⑤ 복학, 전학한 자 등이다.

다. 신체검사의 判定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의 판정은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와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서 兵役処分이 내려진다(표 4). 이때 신체등위는 1급에서 7급까지로 나뉜다.

신체검사 판정기준

〈표 4〉

군 별	구 분	대 학	고 졸	고퇴, 중졸	중퇴, 국졸
육군(징집)	현역	1, 2, 3급	1, 2급	1급	
	보충역	4급	3, 4급	2, 3, 4급	1~4급
공군	사관후보생	1, 2급			
	하사관, 병	1, 2급	1, 2급		

여기서 공군지원신체검사시(사관후보생, 단기 기술하사관 후보생, 기술 및 일반병) 신체등위가 1, 2급에 해당되어 합격이 가능한 주요 항목별 합격기준을 살펴 보면(표 5) 와 같다.

〈표 5〉

공군 징병검사 합격기준

구 분	항 목	1, 2급 합격기준	비 고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시 력	나 안 : 0.1 이상 교 정 : 1.0 이상	
	혈 압	120~80(정상)	
	치 아	결손치아 2개 이하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신 장	159cm~185cm	체중에 비례
	체 중	46kg~88kg	신장에 비례

라. 家事事由 補充役 対象者

현역편입대상자로서 첫째, 생계유지곤란자(부양비율, 재산상태 정도 고려 → 표 6) 둘째,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즉, 가족 중 18세 미만, 70세 이상인 자만 있는 경우, 다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자 있어도 질병자일 경우에는 해당된다. 또한 종합소득액이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셋째, 父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의 독자, 넷째, 父 또는 형제 중 戰死, 순직자나 戰公傷(2급 이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의 1人 등에 해당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補充役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의 “家族”이란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인 3촌,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또한 본인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피부양자의 비율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생계유지곤란자의 보충역 편입기준

〈표 6〉

구 분	부 양 의 무 자	초과 피부양자수	비 고
남 자	25세~50세	4인 이상	
	20세~24세	3인 이상	18세~19세, 55세~59세는
	51세~54세	3인 이상	피부양자에서 제외
여 자	25세~40세	3인 이상	피부양자가 모두 6세 미만일 경우에는 2인 이상
	20~24세	2인 이상	18~19, 45~49세는 피부양자
	41세~44세	2인 이상	에서 제외

4. 空軍現役兵의 入營

가. 入營試驗

공군병은 원칙적으로 매월 끝 주에 접수하여 접수 다음 달 중순에 학과시험, 신체검사를 거쳐 학과시험 2개월 후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 합격자 발표시 2차전형을

위한 입영일자를 지정하여 발표한다. 보통 지정된 2차전형 입영일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이내가 된다. 따라서 입영대상자가 공군에 접수하여 2차전형 입영시까지의 개략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입영대상자가 학교재학생일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관계를 고려하여 입영일을 결정한 다음 逆算에 의하여 90일 이전에 접수하면 정확히 맞아들어 갈 것이다.

나. 入堂延期

현역입영대상자가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자 ④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 ⑥ 작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단,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자가 兵으로 지원한 때에는 입영기일 90일 전까지 지원한 자에 한하여 1回延期可能) 등으로서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관계

입영대상자가 공군에 지원할 경우에는 최종합격하여 입영할 시까지는 휴학하지 말아야 하며, 입영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군입대휴학처리가 된다. 그리고 입영하여 의무복무기간을 필한 후 학교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2월말, 8월 말까지 해당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3월 15일 또는 8월 15일 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와 3월 1일~15일 또는 8월 1일~15일자 휴가에정확인서를 구비하여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휴가에정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고 소속부대(행정계)에서 편의상 발행할 수 있다.

라. 교련이수자의 혜택

현역병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전문대 포함) 2년 이상 수료하고 입영한 자는 90일간, 1년 이상 수료한 자는 45일간의 복무기간 단축혜택이 있다. 다만, 1년 미만자는 혜택이 없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45일간 만의 단축혜택이 있을 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81년도 이후 입학자는 9월 복학이 곤란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하여 후기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공군선발 시험제도

공군은 전 신분이 지원제에 의하여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 신분을 필기시험(공군사관 학교는 제외)에 의한 전산채점 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분별로 본 시험과목은 표 7과 같다.

〈표 7〉 선발시험제도 총괄

신 분	선 발 시 험	문항수	소요시간	배 점	내 용
사 관 후 보 생	장교적성검사 (AFOAT) (객관식)	50	60분	100	낱말추리..... 6% 독해력.....18% Vocabulary..... 8% Structure.....4% Comprehension.....10% 산수추리.....18% 자료해석.....18% 논리분석.....18%
	전공선택 (객관식)	50	50분	100	31개 선택과목 (원론수준에서 출제)
	계	100	110분	200	
하 후 및 병	사병선발검사 (AST) (객관식)	60	60	100	국어, 영어, 산수추리, 일반과학상식(물리, 생 물, 화학, 지학) '87년부터 국민윤리, 국사추가
사관생도	* '86년도 입학자부터 학과시험 폐지 (학력고사(340점), 고교내신성적(110점), 체력검정(50점)으로 선발				

다만, 공군사관학교는 '8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전형, 내신성적, 체력검정, 학력고사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전형절차

1 차 전 형	2 차 전 형	3 차 전 형
가. 신체검사	가. 정밀검사	가. 학력고사 : 340점 (68%)
나. 고교내신성적에 의한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나. 고교내신 : 110점 (22%)
	다. 체력검정	다. 체력검정 : 50점 (10%)

나. 신검기준

- ① 신장 162.5cm 이상인 자, ② 체중 54kg 이상인 자(단, 연령별 표준체중표에 의함).
 ③ 시력 1.0 이상이며 색맹이 아닌 자(단, 성적이 우수한 자는 나안 0.6까지) ④ 결손치(지치 제외) 2개 미만, 충치 5개 미만인 자(단, 교정 후의 결손치와 충치는 무관함).

다. 체력검정

- ① 100m 달리기, ② 턱걸이, ③ 넓이뛰기, ④ 누워 윗몸 일으키기, ⑤ 1,500m달리기

사관후보생은 1차시험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을 치루는데, 학과시험은 장교적성검사와 전공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장교적성검사는 영어와 국어(속담, 논설문 해석, 한문), 산수추리(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상생활 정보자료를 제시한 후 그 수치분석), 논리분석(A와 B의 대화가 충분조건인가?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인가?의 분석), 자료해석(일반 경제, 사회 현상들의 자료를 제시하여 그들 상호관계의 분석)으로 형성된다. 즉 장교적성검사는 별도의 공부보다 신문논설, 생활통계자료 정보지의 숙독이 필요하고, 영어는 Toefl을 보면 족하다. 전공선택은 원론을 갖고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고득점할 수 있다. 즉 각 과목의 각론은 필요치 않다.

하후 및 병은 사병선발검사만 가지고 시험이 치루어 지는데, 국어, 영어, 산수추리, 일반과학상식과 '87년부터는 국민윤리와 국사가 추가된다. 국어는 논설문의 해석, 낱말상관관계, 문장채우기, 영어는 고교수준의 선택(문법, 속어, 회화), 산수추리는 일반적인 고교수준의 수학(전문적인 공식은 불필요하고 일반적인 수학자료분석), 일반과학(물상, 생물, 지학, 화학으로서 일상적인 것으로 고교교과서 수준), '87년부터 추가될 국민윤리는 공산주의의 경제, 정치, 철학의 허구성 및 전통적인 한국인의 사상과 이론일 것이고, 국사는 고교수준의 이론이 될 것이다.

라. 공군 전 장병의 전역 후 지도

사관후보생은 전원이 전역 후 병무처에서 대기업체에 취업 알선하여 전원 취업하고 있으며, 하후 및 병은 기술분야에 한하여 관련업체에 취업 알선하고 있다.

6. 武官候補生 教育 中 退校된 자의 人事處理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기술고등학생 및 단기 기술하사관후보생이 교육 중에 성적불량 등으로 인하여 퇴교되는 자는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즉 현역출신 퇴교자는 현역신분으로, 타군 현역출신 퇴교자는 타군 현역신분으로, 민간인출신 퇴교자는 민간인으로 복귀된다. 이때 퇴교된 자 중 “공본 현역편입 적부심사 위원회”(3~7인의 영관장교)의 의결에 의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표 8).

무관후보생 퇴교자 편입기준

〈표 8〉

신분	교육기간	현역편입	계급부여	비고
사관생도	1년 이상 재학자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	4학년-중사 2, 3학년-하사	병 편입된 자 →재학기간의 2/3를 환산하여 계급 부여
	3개월~1년 미만 재학자	단기 기술하사관 후보생 또는 병	후보생 또는 병	
사관후보생	기본 군사교육과정 이수자	“	“	병 편입된 자 교육기간의→ 100%에 합당한 계급부여
	병의 기본 군사교육 기간 경과자	병	병	
준사관 후보생	하후 총 교육기간 경과자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	하사 또는 병	
	기본군사~하후 총 교육기간 미달자	하후 또는 병	후보생 또는 병	
	병의 기본 군사교육 기간 경과자	병	병	

이때 복무하여야할 의무기간은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편입된 자는 제급에 관계없이
 병의 의무복무기간(현재 35개월) 만큼 복무하여야 하며, 단기 기술하사관후보생으로 편입
 된 자는 하사임용 후 4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술고등학생과 단기 기술하사관
 후보생이 교육 중 퇴교될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되며 제적된다. 기술고등학교 퇴
 교자는 학력미달로, 단기 기술하사관후보생 퇴교자는 자질미달로 인하여 공군병에 편입시
 킬 수 없다.

7. 碩士學位所持者의 特殊專門要員

법률 제3450호('81. 6. 5)와 대통령령 제10652호('81. 12. 26)에 의거하여 1982년부터 특
 수전문요원을 선발하고 있다. 특수전문요원의 지원자격은 연령상으로 만 20세~만 27세인
 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확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또한 특수전
 문요원의 선발에 관한 제반기준 및 절차는 표 9와 같다. 특수전문요원의 선발기관은 문
 교부 대학국 학무과에서 중앙교육평가원 교사 1과(Tel 서울 732-1966)로 1985년부터 변
 경되었다.

특수전문요원 선발기준

〈표 9〉

구 분	전 형 과 목	선발시기	선 발 기 준	선발인원	비 고
국 내 특 수 전 문 요 원	외국어(2개) 국사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	연 2 회 3월말 이전 8월말 이전	각 과목 40점 이상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 자 중에서 선발	석사정원의 20% 중 40%	인문, 자연 총 선발인원이 2,000 초과할 수 없음
	외국어(1개) 국사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	"	"	석사정원의 20% 중 60%	"
국외수학 특수전문 요원	재외공관장 위임	"	"	별 도	"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면 소정기간 군사교육을 이수한 후 예비역 소위로 전역하게 된
 다(기본군사훈련).

8. 兵役忌避者 등의 処罰

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期日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月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를 대리하여 징병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현역입영은 5일, 방위소집은 3일, 병역동원, 전시군무소집, 교육소집은 2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입영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지방병무청장,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현역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채용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영을 기피한 때에는 해당 군참모총장이 고발한다. 이에 따라서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군 입영기피자의 고발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장교후보생, 하사관후보생, 현역병인 경우에 입영일로부터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거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없이 고발하여 병역법 제7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군은 지원에 의하여 합격자의 입영불응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다만 2차시험을 위한 1차합격자에 불과하고 1차합격자 성적사정시 2차전형 불응자를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또한 2차전형 불응자에 대한 고발로 인하여 예상될지 모르는 우수자원의 지원기피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함에 있다.

따라서 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취소 및 불응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 또는 불응한 경우에 채용통지서의 효력은 무효가 되며, 재효력의 발생은 없다.

하절기 질병과 예방대책

—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열중증을 중심으로 —



대위 이 태 용
항공의학 연구원

운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온열 손상 등의 원인 및 증상과 그 예방대책 등을 설명하여 장병여러분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며, 나아가서는 국방전투력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목 차

1. 수인성 전염병 (Water born Disease)
2. 식중독 (Food Poisoning)
3. 열중증 (熱中症)

1. 수인성 전염병 (Water-born Disease)

수인성 전염병은 집단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급수원에서 공급되는 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한 집단에서 일시적으로 일제히 발생하며 발생하는 환자수는 많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 죽은 사망률은 다른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질병들을 보통 소화기 전염병이라고 부르며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적리)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질병의 공통적인 감염경로는 인체의 배설물, 파리, 쥐,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통해 일어나며 이중 특히 중

최근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한 여름처럼 무덥기만 하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운 음식을 멀리하게 되고, 찬 음식 또는 날 음식을 즐겨 먹으며, 냉수를 마시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순간에는 어떤 쾌감(?)이 우리의 오감(五感)을 자극하지 모르나 잘못된 경우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난에서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

요한 전파물은 인체의 배설물이다. 즉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을 공급받을 경우 끓이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고 마셨을 때 앞에 언급한 소화기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장티프스는 밀집생활, 불결한 생활 및 식품의 조리 또는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호발하며, 증상은 고열이 계속되며 장미처럼 빨간 점이 온 몸에 생기며 관절통, 구토, 복통 등을 동반한다. 예방 및 관리방법으로는 매년 봄 가을의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음료수의 소독, 파리의 제거, 환자 배설물의 철저한 소독, 본인은 증상이 없으나 배설물에 균을 내 보내는 보균자의 색출 및 이런 사람들의 식품취급 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식사 전에 손발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콜레라의 전파방법도 장티프스와 비슷하며 증상은 쌀뜨물 모양의 설사와 구토, 복통, 심한 탈수증이 생기며 심하면 근육경련, 의식불명 등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예방방법은 예방접종의 실시, 환자와 접촉한 자의 격리, 인분의 위생학적 처리, 급수소독, 식품위생, 개인위생의 철저 등 환경 위생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질은 코와 같은 점액 변을 누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다. 예방방법으로는 파리의 제거, 환자의 분뇨 소독철저, 물 또는 음식을 끓여먹고, 야채류의 생식을 금지하며 손, 발을 깨끗이 닦는 것이 중요하다.

2. 식중독(Food Poisoning)

식중독이란 세균 자체 또는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나 유해물질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여 주로 위장증세나 신경증세를 나타내는 급성질환을 통틀어 말하며 집단적으로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 化合物에 의한 식중독, 自然物에 의한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은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드물게 열(熱)이 날 수도 있다.

가.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물에 오염된 세균 자체에 의한 것과 세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毒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 전자를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하며 후자를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말한다.

감염경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식품자체가 오염 또는 감염 상태에 있는 것을 섭취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운반 도중에 오염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므로 食生活환경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전염병 못지 않게 문제가 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이며 원인식품으로는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우유제품들이 많다. 음식을 섭취한 후 6~48시간이 경과한 뒤에 앞에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장(腸)구균 식중독은 식사 후 4~5 시간 후에 발생하며 원인식품은 치즈, 소세지, 햄과 같은 가공식품에 많다.

호염균 식중독은 바다어류의 회, 말린생선 등에서 발생하며 원인균은 Vibrio균이며 증상은 콜레라와 유사하다. 작년에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해 국민을 흥분하게 한 비브리오(Vibrio)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도 역시 Vibrio균이며, 역학(疫癘)조사 결과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결핵, 당뇨병, 간기능이 저하된 40대 장년 층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이 고막과 같은 어패류, 생선회 등을 날로 먹거나, 상처를 입은 채 수영을 한 경우 상처를 통해 균이 체내에 들어가 약 20 시간 후 발병하게 되며 신체 외부조직이 썩는 등 패혈증을 일으켜 높은 치사율을 갖게 된다.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균이 자라면서 생긴 독에 의하여 발생하며 식사 후 2~6시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 감염원은 손 또는 인후(목구멍)에 화농성 질환-고름이 나오는 병-을 가진 사람이 조리하거나 취급하여 오염된 음식물, 우유 및 유제품 등에 의하여 전파된다.

보툴리즘(Botulism)은 식중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며-약 40%가 사망-역시 균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신경성 증상을 나타내며 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호흡마비를 일으킨다. 감염원은 소세지, 육류제품이 대부분이며 특히 밀봉된 식품 및 통조림에서 문제가 된다. 그

르므로 통조림이 원래 모양보다 부풀었거나 뒤틀 때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구미(歐美)에서는 통조림을 집에서 가공하므로 멸균이 제대로 안된 상태가 많아 보툴리즘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독소형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높은 온도로 끓이거나 삶아도 독이 거의 없어지지 않으므로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아 불쾌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 가공제품 등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

나. 자연물에 의한 식중독

자연물이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것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은 복어, 홍합, 굴 등이 있고 식물은 버섯, 감자, 청매(덜 익은 매실) 등이 있다.

복어 중독은 복어의 생식기, 간, 창자(腸)에 많이 들어있는 毒에 의하여 발생하며 섭취 후 30분~5시간 이내에 지각마비, 운동장애, 구토가 일어나고 중추신경계-특히 호흡기계-장애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한다. 복어를 음식점에서 먹은 후에 입, 또는 손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은 약간의 毒을 섭취하여 생긴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홍합중독은 삭시톡신(saxi toxin)이라는 홍합 속에 함유된 독에 의하여 발생하며 얼마전에 부산의 폐선 해체공장에서 15명의 공원(工員)이 사상자를 낸 것도 폐선 밀바닥에 붙어 있던 “담치”라는 홍합의 일종을

먹어서 발생한 것이다.

버섯중독은 독버섯을 먹었을 때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모양이 예쁘고 색깔이 화려한 것은 식용버섯이 아니다.

맥각 중독은 맥류에 기생하는 맥각 균이 생성하는 독으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임신한 여인의 조산,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감자 중독은 감자의 새싹이 나오는 부위, 또는 녹색을 띤 부위에 있는 독에 의하여 발생한다.

청매 중독은 술을 빚는 덜 익은 매실에 서 발생한다.

다. 화학적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안티몬,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아연, 파라치온 및 메칠 알코올 등으로 식품첨가물 또는 용기, 포장기구를 통한 것과 농사철에 사용하는 농약의 중독시 발생한다.

따라서 영리에만 치우쳐 불법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장난감, 식품포장 용기 등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된 경우 장기적으로 중금속물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어 거의 체외로 배설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어떤 한계 농도가 넘으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식중독의 발생양상을 볼 때 식중독의 발생시기는 6월부터 증가하여 8월에 제일 많으며 9월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절기에 대비하여 이처럼 무섭고 다양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첫째, 생식을 금하고

둘째, 식품의 보존을 철저히 하고, 청결하게 하고 보관시간과 보관온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셋째, 식품의 생산 및 가공, 조리과정의 청결, 식품저장고, 취사장 및 조리기구의 청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식품을 취급하는 취사병은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손 또는 인후에 화농성 질환이 있거나 전염병 보균자 및 피부질환자 등은 취사병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은 공군규정 160-56식품위생 관리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3. 열중증(熱中症)

열중증이란 高温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 임상증상(acute clinical condition)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분류방법이 다르나 임상적으로 열피비(heat exhaustion), 열경련(heat cramp), 열사병(heat strok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세히 구분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환자의 증상 및 원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류가 가능하며 군의관 또는 위생병이 아니더라도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열피비(heat exhaustion)은 계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된 결과로 발생하며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탈수현상이 동반되어 발생한다. 환자는 어지럽고, 피로감을 느끼며 두통을 호소하고,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

며, 오심을 호소한다. 외부적으로 체온은 정상범위,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진다. 피부는 습하고 때로는 덩거나 차다. 치료는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시키며, 소금을 가미한 부드러운 식사를 시키고 탈수가 심하면 군의관에게 연락하여 1,000ml 5% 포도당 주사액 또는 식염수를 공급한다.

열경련은 고온환경에서 심한 발한을 동반한 중노동시 잘 발생하며 체내 NaCl 의 현저한 감소 및 탈수가 원인이다. 주증상은 통증을 수반한 수의근의 경련 발작이 특징이며 현휘, 두통, 이명(윙-하는 소리), 호흡곤란 등이 있다. 예방법은 0.1% 식염수를 고온 환경작업자에게 마시게 한다. 1일 3~5gm의 소금을 섭취하면 되며 여름철 훈련시 소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는 즉시 군의관에게 연락하여 식염수를 주사하게 한다.

열사병은 체내의 땀을 내게 하는 기전의 마비로 체내에 열이 축적되고 체열조절의 실패로 발생한다. 체온이 급상승하며 중추신경의 장애를 일으킨다. 두통 현휘, 이명이 심하고 상태가 더욱 나빠지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체온은 상당히 높아지고 맥박은 빨라진다. 이 때는 체온의 하강이 급선무이므로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9°C 이하로 내리게 해야 되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 찬물로 몸을 닦고 바람을 쏘이며 팔, 다리의 격렬한 마사지를 필요로 한다.

열중증의 예방책으로 정상인은 1일 소금

의 소모량이 7~15gm이므로 음식물 이외에 소금정제 5gm~6gm씩 8회 복용을 하게 하고, 여름철 훈련시간을 단축하여 고온에 노출시간을 적게 하며, 열중증의 예비증상이 보이면 즉시 쾌적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온환경이란 30°C 이상을 의미하며 $33\sim 34^{\circ}\text{C}$ 부터 열중증이 발생 가능한 온도의 범위로 생각된다.

수인성전염병, 식중독과 열중증 이외에 하절기에 발생가능한 질병으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라리아는 우리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일본뇌염은 어렸을 때 잘 생기나 청장년 층에서 발생시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발생되지는 않는다. 예방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 하고,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한다. 모기의 구제 방법은 서식체의 제거, 방충망 또는 살충제의 사용을 들 수 있다.

군대는 특수한 집단으로 젊고 건강한 청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므로 질병의 발생이 다른 일반집단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불결하거나 개인의 위생이 나쁠 때는 언제든지 앞에 언급된 질병들이 발생가능한 것이며 다른 전우들에게도 질병이 전염되어 환자 본인은 물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86년 하절기에는 장병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해나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教養 / 戰史

— 空軍戰史의 英雄 —

不滅의 보라매 任宅淳 大尉



중 위 洪 性 範

공군사관학교

밤하늘의 유성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明滅해 갔지만, 조국의 안위가 흔들리고 민족의 생존이 頃刻에 달렸을 때 조국의 제단에 자기 한 생명을 기꺼이 바친 호국의 투사들은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빛나고 있다.

그 이름 任!宅!淳!

F-51 무스탕 77호와 함께 적진 깊숙이 자폭을 감행하여 치솟는 화염 속에서 전 생애를 불살랐던 故 任宅淳 대위!

오늘도 영공수호의 산실인 보라매의 새 요람터에 우뚝서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을

희구하며, 불굴의 보라매 투혼으로서 후배들을 굽어보며 찬연히 솟아 있다.

약관 24세, 8,481일의 전 생애에 종지부름 찍는 1953년 3월 5일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된 “삶과 죽음이 명에 달렸으니 죽히 논하지 말라. 사나이 조용히 하늘로 나아간다(死生有命 不足論 男兒縱容 征大空)”라는 문구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집념을 단적으로 나타낸 고 임택순 대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꽃같았던 그 생애의 첫 장은 1930년 12월 31일로부터 시작된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대사면 178번지에서 부 임학재, 모 민혜연 여사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덕수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어려서부터 매우 온순하였고 쾌활하였으며, 운동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태권도·기계체조·수영 등 각 종목에 뛰어나 선수로 출전하여 많은 기록을 세우기까지 하여, 만물박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다재다능하였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 또한 극진하였고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다.

1949년 6월 10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다가 護國飛天의 雄志를 품고 공군사관학교 제 1기생으로 입교하게 되었고, 생도생활의 바쁜 나날 속에서도 조용히 명상하며 정신수양에 힘을 쏟았다. 또한 仁愛精神이 뛰어나 단체행동에서 잘못되어 처벌이 내릴 때는 따뜻한 우정으로 동료들을 감싸주어 오히려 동기생들을 반성케 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임택순 대위는 학업면에서도 남다른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모범생도였다.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이 남침하자 외출나간 생도들을 비상소집하여 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원으로 야간행군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50년 7월 30일 대구에서 진해로 이동하였고, 9·28수복과 함께 성남중학교를 임시교사로 사용하였으며, '51년 1월 25일 제주도 모슬포기지로 이동하였고, 4월 26일 다시 진해 가교사로 이전하는 등, 이 때는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시기였다. 이러한 좋지 못한 여건과 전란의 와중에서도 꾸준히 학술교육과 비행훈련을 실시하여 1951년 8월 5일 역사적인 졸업식을 마치고 임대위는 전투조종사가 되었다.

1953년 3월 초, 이 무렵의 지상전선은 휴전직전의 對陣 속에서 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는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휴전성립이 가까워진 決戰期이기 때문에 피아 간의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반복되었다.

공산군의 인해전술은 더욱 더 극성스러웠다. 휴전성립과 동시에 군사적 이점을 장악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와 지형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마치 포탄대신에 인간을 투입하는 것과 같았으며, 이러한 인해전술은 중공군뿐만 아니었다. 동해안전선의 북괴 제 7군단도 국군 제 1군단의 방어 전면에 연일 대병력을 투입했으며, 국군 제 1군단은

남강계곡을 따라 편성된 주저항선에서 북괴의 증강된 제 7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351고지와 月比山을 중심으로 가장 치열한 혈전이 거듭되고 있었다. 이 두 고지가 동해안전선의 우열을 가르는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팽팽한 대결상을 이루는 지상전황에 따라 공군의 임무도 가중되기만 했다. 미국 지원의 F-51 무스탕전투기로 편성된 한국공군은 미 제 5 공군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로 한국지상군의 근접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동해안전선은 강릉에 기지를 둔 제 10전투비행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었으며, 미 제 5 공군의 출격으로 한국전선의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으므로 제공권에 대한 염려는 없다 해도,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적 대공포와의 대결은 더욱 가열되고만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10전투비행단은 高城으로부터 文登里·金城·金化·鉄原·板門店을 잇는 선의 북방전선에서 전투 중에 있는 우리 지상군과의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며 적에게 다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적의 보급품을 분쇄하여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적을 혼란상태에 빠뜨려 놓았다.

폭탄과 네이팜탄, 그리고 소나기같은 기총소사로 적진을 강타하는 근접지원은 지상군의 공격과 방어작전을 엄호하는 절대불가결의 임무인 것이었다. 따라서 보라매들은 나래를 펼 사이도 없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출격해야만 했다. 특히 F-51 전투기편대는 주로 적 후방의 물자집적소와 고지 정상 또는 正斜面의 적진을 때리는 포격의 死角지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대공포화에 의한 위험성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미 7함대소속 함정들에 의한 함포사격과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의 초토화작전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괴군 제 7군단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고성을 사수하라는 독전을 받고 기관총사수를 진지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월비산 방어를 독려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기관총이나 실컷 갈기고 죽자는 북괴군 최악의 발악에 국군 제 1군단 공격일선 중대들은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공격 정면에는 반영구의 견고한 진지에 자동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보병화기로는 물론 박격포로도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상군은 공군 제 10전투비행단에 출격을 요청하게 되었다.

1953년 3월 5일, 하늘은 대체로 맑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끼는 날씨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릉기지에서는, 고성지구에서 적과 접전을 하고 있는 제 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F-51편대가 계속 이륙하고 있었다. 이날도 고성지구에서 분전하고 있는 아군 제 5사단의 지상전투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임택순 중위는 10시 20분에 金萬鎔 중위를 선두로 강릉기지를 이륙하였다. 4대의 F-51전투기는 적진 상공으로 진입하기가 무섭게 새로 구축한 적의 자동화기진지와 포진지를 찾아내어 단숨에 로켓탄과 기총소사로 파손시켜 놓고 4대의 편대는 무사히 기지로 돌아왔다.

이 날의 일차 출격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조종사대기실에서 피로를 풀고

있던 임택순 중위는 15시에 제 2 차 출격임무를 받았다. 임무는 역시 1차때와 같이 고성 지구의 적진을 강타하는 것이었다.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사생을 초월하는 그는 李學善 중위를 선두로 기지를 이륙, 고성 상공으로 출격하였다. 편대는 적의 대공포화를 뚫고 적의 참호와 동굴을 파괴하면서 지상군에서 요청하는 목표를 강타하고 무사히 귀환하였다. 愛機 77호에서 내린 임중위는 동기생인 張昌甲 중위와 함께 전대본부로 발길을 옮겨가고 있었다.

“임중위! 이번이 몇회째 출격이었지?” 장중위가 물었다.

“내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출격회수도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몇 회나 돼?”

“이번까지 10회를 기록했어. 그런데 왜 그것을 갑자기 묻나?”

임중위는 장중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임중위의 그 사격술이 너무나도 우수해서 물어본 거야. 하여튼 백발백중이더군. 나도 이번 출격까지 치면 20회가 넘는데 나의 사격술은 아직도 엉망이란 말이야”.

“별소리도 다 하는군”.

“별소리가 아니야. 나는 정말 임중위의 그 사격술이 부러워”.

장중위의 말 그대로 임중위는 사격술이나 조종술에 있어서 뛰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조종사였다.

1953년 3월 6일 금요일, 제10전투비행단이 지상군을 근접지원키 위해 나래를 설 사이도 없이 출격에 이은 출격으로 바쁜 작전에 임하고 있는 이 공군기지의 새벽은 창망한 동해 수평선의 먼 空涯에서부터 밝기 시작한다.

날씨는 어제와는 달리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임중위는 이날도 역시 먼동이 트는 이른 새벽에 기상하여 피난지인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 요배를 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무사히 출격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재국 중위는 충분한 수면 뒤에 맛보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해밖은 새벽공기를 실컷 마시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바닷바람이 세차게 밀어닥쳤다. 창문을 도로 닫아야 했다.

“하필이면.... 오늘 따라 바람이 사납다니....”

기지 주변의 키 큰 포플러들이 휘청거리고 있었다. 꽤 강한 바람이었다.

“잘 잤나? 이중위”. 임택순 중위의 귀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굿모닝! 임중위”.

“뭘 보고 있나?”

“저걸 보게나. 과히 좋은 일진은 못 되는데”. 하고 이재국 중위는 창 너머로 포플러를 가리켰다.

“응! 보통이 아닌데. 자네의 99회 출격의 날인데 말이야”.

임택순 중위의 표정도 밝지 못했다. 매일처럼 한 편대에서 출격을 거듭하고 있는 두 사람은 남달리 친했다.

“글쎄 말이야. 하필이면…하지만 99회보다도 오늘의 출격이 보통은 아니겠는걸”. 이재국 중위는 자신의 출격 99회 기록보다도 편대장으로서의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공군의 主戰機種은 일명“무스탕”이라는 F-51형 전투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미공군 주전투기 였는데 프로펠러기였으므로 역시 강풍의 영향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

이 날, 제10전투비행단은 편제상의 승격을 자축했다. 그러나 조출한 자축이었다. 출격에 쫓기고 있는 근접지원의 임무때문에 이 기쁜 날에도 맥주 한 잔씩을 나누었을 뿐, 작전상황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날의 출격목표는 351고지의 正斜面을 비롯한 그 일대 적진이었다.

전날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괴 제7사단의 추진보급소에 새로운 물자가 쌓여 있다는 것이었다. 탄약을 비롯한 장비보강을 서두르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머지 않아 대규모의 공격으로 나올 징후인 것이다. 사전에 강타해야 할 목표였다.

그런데 상황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보라매들의 표정은 저절로 굳어지기만 했다. 공격목표가 너무나 잘 알려진 難所이기 때문이었다. 깊은 계곡에 묻힌 곳이었다. 남강이 북류하면서 깊게 굽이져 그늘진 死角을 파 놓고 있기 때문에 對地공격의 기수를 내리꽂는 순간부터 아슬아슬한 여러 고비를 겪어야 하는 “魔의 難所”인 것이었다.

더구나 지형이 교악할 뿐만 아니라 상황설명에 따르면 “적은 대공화력을 대폭 증강했으므로 오늘의 출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주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재국 중위와 임택순 중위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임중위! 조심하게. 오늘은 보통이 아니겠는데…”

“자네야말로 조심하게, 이중위! 1백회 출격의 바로 일보직전이 아닌가!” 하는 대화로 눈길을 주고 받았다.

서로의 무운을 비는 전우끼리의 마음이었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약할 수 없는 보라매들의 무언의 대화이자 격려인 것이었다.

“최근 적의 움직임에 비추어 이 일대에 대대적인 추진보급소를 증강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상전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때리지 않을 수 없다”.

단장의 상황설명에 이어 출격편대가 지명되었다. 李載國 중위와 任宅淳 중위, 高光洙 중

위 및 다른 또 1대의 4기가 제1편대로 출격케 되었다.

동해의 바람이 만만치 않은 氣象이었다.

“임중위! 오늘은 몹시 흔들리겠는데, 조심하게”.

이재국 중위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임택순 중위의 어깨를 다정하게 껴안았다.

“자네야말로 조심하게. 1백회 출격의 일보직전이 아닌가”.

임택순 중위도 전우를 격려했다. 이재국 중위는 이날로써 99회의 출격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었다. 1회만 더 채우면 영예로운 1백회 출격기록을 세우게 될 소중한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출격이 시작되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편대들은 계속 활주로를 이륙하여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임중위는 전우들의 비행기가 출격할 때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열심히 손을 흔들며 무사귀환을 빌었다.

그러던 11시 10분, 임택순 중위에게도 드디어 출격임무가 내려졌다. 이재국 중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4기 편대는 프로펠러 소리도 우렁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출격했다. 편대장 이재국 중위의 愛機는 제71호, 제2번기인 임택순 중위의 77호기, 고광수 중위의 愛機와 또 한 대의 4번기가 銀翼도 찬란한 편대를 이루었다. 티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 우측으로 펼쳐진 동해의 푸른 바다! 이날따라 모든 자연경관이 임중위에게는 신비롭게만 보였다.

고도 7천 피트를 취한 편대는 일로 부상했다. 태백산맥의 우람한 줄기가 왼쪽 아래로 바라보였다. 잠시후 한 줄기의 흰 띠처럼 계곡을 누비는 남강이 시야에 들어왔다.

“全機 들어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돌입시에 목표 주변의 역기류와 적의 대공포화에 주의하라!” 편대장 이재국 중위의 목소리가 各機의 리시버를 힘차게 흔들었다.

이미 여러 차례 겪어 본 일이지만 남강유역은 그 깊고 굽이진 계곡으로 인해 역기류가 극심했다. 기류의 魔所인 곳이었다. 동해바람이 태백줄기에 막혀 이 비좁은 계곡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역조에 휘말리는 선박처럼 비행기도 이 역기류에 걸리면 방향유지가 어려워진다. 편대는 10분도 못되어 351고지를 눈아래에 굽어보게 되었다. 고봉리 산악지대 상공에 4대의 편대가 진공했을 때 임중위는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피아간의 지상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준령과 준령 사이의 계곡은 포연으로 가득했다.

특히 목표 주변의 산세는 F-51전투기가 급강하한 뒤에 기수를 쳐들기가 어려운 지형이었다.

목표 상공에서 대기 중이던 모스키프(정찰기)한 대가 양익을 흔들면서 예광탄을 발사했다. “全機 들어라! 목표유도를 주시하여 목표를 잡아라! “편대는 즉각 중형으로 바꾸어 목표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였다. 모스키프의 예광탄이 다시 목표를 가리켰다. “各機의 무운을 빈다”. 이재국 중위의 제1번기는 두번째의 예광탄이 가리키는 목표를 향해

기수를 내리꽂았다. 이어 임택순 중위의 2번기도 뒤를 따랐다. 기체의 진동으로 봐서 역기류가 극심함을 직감했다. 조준경 가득히 떠오르는 목표, 상자며 달구지의 무리가 미처 은폐되지도 못한 채 폭격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내리꽂는 기수의 조준경 가득히 목표물이 커갔다. 기관포의 버튼을 잡으며 고도계를 주시했다. 계기판의 고도계는 6천 피트에서 5천으로 다시 4천 피트로 내려가더니 마침내는 2천 피트를 나타냈다. “받아랏” 가슴 속으로 외치면서 버튼을 눌렀다. “뜨르르르” 장쾌한 연사음과 그 진동, 1천 5백 피트에서 기수를 치켜드는 바로 눈 앞에 산마루 하나가 크게 다가왔다.

아슬아슬하게 그 가장자리를 스치고 상승선회를 이탈해 나갔다. 생과 사가 순간에 달린 폭예와도 같은 급상승이었다. 그 뒤를 이어 3번기, 4번기 순으로 250파운드의 폭탄을 한 개씩 투하했다. 계곡을 단번에 뒤흔드는 파열음과 더불어 네 줄기의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全機 들어라! 이번에는 네이팜을 깔긴다.” 상공을 크게 선회한 편대는 제 1번기를 선두로 다시 기수를 내리꽂았다. 네이팜탄의 유성화염이 불바다를 이룬 뒤에 기총소사로 목표 일대를 휩쓸었다.

轟音과 진동, 그리고 섬광과 더불어 화염이 난무하는 속에서 아비규환의 단말마를 부르짖는 적은 쥐구멍 찾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보급소 주변의 대공화력만은 만만치가 않았다. 제 1차 돌입때부터 맹렬히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편대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제 2번기인 임중위는 이러한 대공화기의 소재를 눈여겨 주시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도 한시바삐 그 대공진지를 파괴해야만 했다. 편대는 다섯 번째의 돌입에 들어갔다. 숨돌릴 사이도 없는 돌입의 연속이었다. 편대장 이재국 중위에 이어 제 2번기인 임중위는 기수를 숙이는 순간부터 뚜렷한 표적을 겨누고 있었다. 가장 치열하게 발악하는 대공화기진지였다. 보급소의 서쪽에 나지막하게 덩어리진 언덕배기에 있는 고사기관포진지였다.

砂袋를 둥글게 쌓아올린 원형의 진지, 선두의 제 1번기를 향해 또다시 두 줄기 火線이 치솟기 시작했다. “두고 보라.” 임택순 중위는 기관포의 조준경에 원형의 진지를 담아 그대로 급강하해 나갔다. 순식간에 커지는 표적, 총구를 급히 돌려대는 적들은 분명히 당황하고 있는 몰골이었다. 고도가 마침내 3천 피트에 이르렀을 때 목표는 선명해졌고 “이때다.” 라고 외치면서 임중위는 그대로 트리거를 당겼다. “뜨르르르” 장쾌한 속사음과 더불어 무수한 탄환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적진을 쓸어버렸다. “명중! 성공이다!” 쾌재를 부르며 기수를 올리는 순간이었다. “앗” 임택순 중위는 호된 충격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기체의 조작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피탄했구나” 하고 직감하며 고도계를 보았다. 3천 피트였다. 조종간을 다시 앞당겨 우선회로 기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우향타가 파손되었는지 계속 기울기만 했다. 뿐만 아니라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퍼지더니 실속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 번, 네 번 기체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고도는 이미 천 오백 피트로 떨어지고 있었다. “임중위! 애기를 포기하고 기상탈출하라!” 임중위의 愛機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 것을 본 편대장은 임중위에게 기상탈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임중위는 모든 것을 작오했다. 침착하게 各機를 호출했다. “여기는 2번기! 피탄으로 조종불능! 적진에 자폭을 감행하려 함! 편대장이 하 전우들의 무운을 빈다!” 그 직후, 임택순 중위는 일전직하로 적 보급소가 위치한 계곡을 향하여 기수를 내리쫓았다. 순간 요란한 폭음이 고봉리 산악지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轟音과 더불어 치솟는 화염 속에서 그의 낮은 유성처럼 한 줄기 빛을 발하며 승화하였던 것이다.

임택순 중위는 이렇게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24살이란 꽃다운 청춘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푸른 창공에 아낌없이 바치며 한 떨기 희생화로 산화하였던 것이다.

1953년 3월 6일 고평수 중위의 일기에는 “전우를 그리는 이 마음, 무엇으로 형용하겠는가? 아침에는 그렇게도 활발하던 임택순 중위가 영원의 객이 되어버렸으니 믿어지지 않는다. 愛機 77호와 더불어 351고지에 불덩어리처럼 자폭하던 그 순간의 그 모습, 초로 인생이라더니, 그대여! 고이 잠드시라!”라고 적혀 있다. 어찌 고평수 중위만이 동료들 잃은 단장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이곳 성무대에 우뚝서서 늠름히 창공을 응시한 채 조국의 영광을 지키고 있는 임택순 대위의 살신보국의 충정은 보라매의 새 요람터에서 조국수호의 기량을 갈고 닦는 후배생도들의 가슴에, 임대위의 고향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에 사는 외삼촌 민진현씨의 가슴에, 이제는 멀리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민간 어머니 민혜연씨와 임대위의 형제들 마음 속에, 그리고 온 국민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보라매혼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아 시 아 는 86 으 로

세 계 는 88 로

음악적 청취(聽取) 능력

향상을 위한 諸方法의 考察

崔 仁 鳳
(월간음악 편집주간)



목 차

1. 知覺 概念
2. 평균율 체계
3. 異名同音의 혼동
4. 원시적 정신상태와 예술가적 소질
5. 異國音樂의 청취
6. 분석적 청취와 종합적 청취
7. 倍音의 청취
8. 絶對音感
9. 相對音感
10. 귀울음(耳鳴)
11. 습관과 연습
12. 개인적인 체험상태
13. 작곡가의 개성에 대한 인식
13. 신문을 통한 암시
15. 소박한 청취와 반성
16. 객관적 판단
17. 음향학적 사실들

흔히 일반 대중들은 가요를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편해서 좋아한다고들 말한다. 반면 고전음악이나, 우리 國樂 등은 난해하다고 하여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런가? 하고 반문한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다. 즉 자주 접할 수 있고 음악적 구조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가정(假定)이지만 우리가 어릴적부터 國樂만 들어 왔다면, 지금의 가요나 동요형식 보다는 국악이 더 자연스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시중에는 많은 형식의 음악들이 나돌고 있다(가요, 가곡, 클래식, 팝송, 군가, 국악 등……). 그러나 이 모든 음악을

그 구조나 형식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습관을 갖기란 힘들겠지만 일단 잘 이해함으로써 비단 청취뿐만 아니라 음악 創造行爲까지도 - (작곡, 연주 포함) 가능할 것이다.

본 稿에서는 주로 音樂的 청취능력 향상을 위한 事實的 이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1. 知覺 概念

사람들은 특히 공개적 비평에서 음악작품에 관해서, 그리고 모방적인 예술가에 의한 그것의 재현에 관해서, 드물지만 청취(Hören)와 이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일삼는다. 이렇게 하여 사태에 관련된, 그러나 실상은 인간적 개성에 그 제약적 판단의 상위(相違)가 성립하게 된다. 우리는 음악적인 것을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인 것을 고려한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태만을 실제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도, 음악적 청취와 파악도 가능한 한 자세히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것은 미학은 지각에 관한 학설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각작용에는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상호 침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이기 보다 개개인 및 그의 개별적 지각내용과의 연관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개성적으로 형성된 시각적, 음향학적, 관념

적인 상(像)을 갖고 있다. 여기서 재발견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한 종족과 어떤 時代의 특성, 인간 유형의 특성, 개개인 개성의 특성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각내용은 하나의 개별적인 특징만을 지니기 보다, 오히려 '정상적인 상'의 주관적 변이는 경우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예술가에 있어서 주관적 변이는 비교적 높은 정도에 이른다.

2. 평균율 체계

우리의 현재 음악은 5도권에, 즉 방해받지 않고 轉調할 수 있기 위하여 오랜 기간 구성해 낸 체계에 의거한다. 그 표면적 목적은 C(다)장조에서부터 올라가 다시금 방해받지 않고 C장조로 되돌아 오되 자연적으로 C장조를 벗어나는 올림나(His-dur)장조 쪽으로 향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조율을 위한 노력은 전반악기(피아노, 하아모늄, 오르간 등)의 완성 증가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는, 단 하나의 음정만이 자연적으로 순수한 것이 아니라 조율의 의미에서 보면 역시 불순(不純)하다는 사실이다. 아주 '순수'하게 조율된 피아노도 사실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실수없이 음을 맞추어 놓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 조율의 허식에 우리의 귀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들리는 음정들을 오히려 불순하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직접적 지각기능으로서의 청각에 하나의 굴절이 발생한 것이다.

청취 속에는 이와 동시에 바하-칸트 이래로 음악 뿐만 아니라 우리의 思考와 이해와 판단을 압도적으로 지배해 온 체계적이고 완결된 정신이 들어있다.

3. 이명동음(異名同音)적 혼동

청취에 사유와 이해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것은 특히 이명동음적 혼동의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조율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건반악기나 여러 독주악기의 경우 G^b과 F[#], C[#]과 D^b 등등은 서로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진동수에 관계되는 객관적인 음향학적 사실이다. 이에 비해 화성론과 음악적 청취를 위해서는 그때마다 성립되는 하나의 중요한 구별점, 즉 그 속에 어떤 음이 덧붙여지는 제약의 관계가 주어진다. 이 사실은 조율된 음정들도 근원적으로 순수한 음정의 대변자가 된다는 데 기인한다.

왜냐 하면 오직 이 調律을 위해서만 화성적 의미에서의 선행한 것에 대한 연속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화성적 요소들의 복잡성은 조성이 이명동음적으로 바뀌게 하였다. 물론 이 혼동에 기인된 하나의 정신적 요소, 즉 실제 현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에 다른 의미로 주관적으로 들었던 것의 '고쳐 들음'에 근거한다.

4. 원시적 정신상태와 예술가적 소질

조율의 보다 발전된 문화단계에 있는 오늘날의 청취에 관한 것은 이미 고대나 어린이의 지각에서도 적용된다. 신화, 즉 자

연의 신, 유령, 귀신에 대한 신앙은 부분적으로는 정신과 감각기능의 내적 일치에 근거한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알려지는 것들은 비록 객관적으로 거기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연 속에서 보여진다. 도도나(Dodona)의 사제와 옛 독일인들은 무성한 나뭇가지들의 부딪치는 소리에서, 인간이 제신에게 제기하는 질문의 대답을 들었다. 神託이 가끔 울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독하게 살고 있는 사제의 무의식적 추측, 예감이 직접 지각속으로 들어가 보여지거나 들릴 수 있는 사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원시적, 어린이적 정신태도와 예술적 토대 간에 일종의 부분적 친족성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오늘날에도 화가들은 빈번히 환상적 분위기의 요정, 그로테스크한 人間·동물의 형상으로써 자신이 느끼는대로의 自然을 그린다. 음악가는 진정한 음악가로서, 새나 동물의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대도시의 소음을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해, 그 다음에는 그의 양식에 의해 음악적, 화성적, 리듬적으로 듣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너우와 폭풍우의 재현, 새소리 물소리의 음악적 재현을 각 시대양식에서 비교한다.

5. 異國音樂의 청취

모든 인간에 있어서는 지각과 그것을 초월하는 '고쳐들음'이라는 능력이 존재한다. 이국적, 원시적, 어린이적 방식을 연구하는 자에게 이것은, 특히 그가 강렬한 예술적 자세를 취할 때, 불길한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그것은 이국의 어디에서나 알려진 조성적 감각 안에서 무조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그 정당성과 가치가 의심스러운 혼합文化가 생겨나는 것이다. 독일적 방식에 따른 중국민요라든가 프랑스식 인상주의의 유형에 따르는 이집트나 인도의 조곡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원래의 아르메니아(Armenia)와 터키·아랍의 방식들은 조성적으로 조율하고 화성화한다면 그것들이 갖는 인상들 중 자극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양식적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

6. 분석적 청취와 종합적 청취

또 다른 종류의 '고쳐들음'은 바로 이런 행위에 관한 신문 평론가들의 판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야기시키는 근거가 된다. 일군의 평론가들은 보다 분석적으로 듣는다. 테크닉상의 작은 실수가 인상을 망쳐 놓는데, 실수를 실수로 인지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없이 잘 연주된 부분마저 실수가 침투된 것으로 들으며 전체를 유죄판결내리게 된다. 다른 일군의 종합적 태도의 평론가는 자연적 태도에 있어서 전체적 인상에 깊이 침잠하므로 사소한 실수는 대체로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적, 감동적 연주의 마력에 끌려가고 이런 방향으로 해석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저급한 연주에서 위대한 대가의 정신과 양식을 엿듣는 음악 애호가들의 드물지 않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훌륭한 예술가들로부터 전축이 비예술적이며 유해한 것이라는 견해를 듣

는다. 모든 종류의 연구목적을 위한 전축의 의의(한 作品에 대한 작곡가들의 다양한 해석, 이미 죽은 성악가의 노래기법, 외국음악의 고정화와 접근가능함)는 전혀 도외시한 채 그런 견해는 재현의 기술적 실수를 들을 수 없다는 것과 연주자를 통해 작품과 그의 해석만을 지각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7. 배음(倍音)의 청취

청취에 있어서의 분석적 요소와 종합적 요소는 서로 현저하게 구별되는 영향력 있는 해석과 판단의 경우에서도 분리된다. 특수한 유형의 분석적 청취는 자연적 배음을 찾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의 예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귀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데, 즉 비교적 단순한 악절에서와 단순한 악기의 음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합음이 오르간에서처럼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료성과 일목요연함이 잘 관찰되지 않고, 소음에 가까운 혼잡스런 음들만 있는 것이다. 반면 이 특수한 능력이 존재치 않는다면 귀는 배음과 그 윗 배음을 전혀 알아 들을 수 없거나 알기 힘들어 이 위험은 훨씬 경미한 것이 되며 일목요연한 인식·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탄주나 취주에서 생겨나며 우리에게는 습관상 명료하지 않은 여러 소음들의 합성작용에도 역시 적용된다.

8. 절대음감(絶對音感)

때로 분석적 청취능력은 '절대음감 소유자'에게서 발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연주된 음만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이름 붙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청취를 노래와 휘파람을 통해 방향지운다. 이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높은 정도에도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별적인 음들을 그것들의 절대적 음높이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인식되는 근음 위에 세워지는 화음들을 규정하는 극단적 경우가 있다. 아마도 그런 식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습을 통해 감소될 수 있으며 보편적 정신상태를 위해 대리적 의의를 소유할 만 하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소유한 사람에 있어 이것은 음악적 청취와 해석의 한 구성요소이다. 그런 인간은 이것을 통해 장단점을 취한다. 그는 청취 중에 즉각적으로 조성(음조)을 인식, 평가하며 작곡가에 의한 이것의 적당한 사용에서 작품의 장점을 발견한다. 전조(轉調)는 그에 있어 화성적으로 멀어져 감에 따라 특징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출발점과 절대적인 목표가 조성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C장조에서 F#장조에의 이행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F장조에서 B장조에의 진행과 같다. 악기들의 절대 음높이도 그에게 교란적 영향을 끼치는데 이 경우는 오늘날 더 빈번히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a'=435 진동수라는 보편적 규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에서 피아노가, 현의 파열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기술적인 이유들로서 이 음높이에의 조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소한 음높이의 편차가 노랫소리나 합창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능력(절대음감)이 소유되지 않은 음악적인 면은 많은 불쾌감이 생겨날 수 있다. 절대적 귀가 갖는 또 다른 손해를 살펴 보자. 노래나 연주에서의 이조(移調)는 특히 유명한 작품을 다룰 경우에는 매우 힘들다. 노래 연주상의 이유에 의해서 다른 음조로 이조되어지는 그런 작품을 듣는 경우, 불쾌감이든지 어떤 종류의 이질감이 생겨 나서 객관적인 감상과 평가가 불가능해질 때가 있다. 이 점은 음악평론가에게도 중요한 사실이다.

9. 상대음감(相對音感)

절대적 음감과 대비되는 것이 상대적 음감이다. 이것은 절대음감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며 위대한 예술 창작과 감상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첫음을 알았다면 나머지 음진행을 인식할 줄 알고, 화성적으로 가까운 혹은 먼 음조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화음들을 그 본질적 요소에 의거, 분석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실제적 음악가의 부류에 속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능력에는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는데 연습을 통해 많이 보완될 수 있다. 만일 이 능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발달된 것이면 감상하는 작품의 특성과 멋에 대한 이해를 보증하게 되고 반면에 이 능력이 미약하고 미발달된 것이라면 우리 음악의 근본형식들이 전혀 인식되지 않거나 겨우 초보적인 것만 인식된다. 그때는 완전한 청취가 불가능하다. 이 상대음감이 절대음감보다 移調와 화성 진행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10. 귀울음(耳鳴)

모든 청취는 중심을 향해서 통해 있다. 누구든 양쪽 귀에 음들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안다. 이런 주관적이며 外界의 자극과 무관한 음들은 높고 깊게, 크고 작게, 길고 짧게, 지속할 수 있다. 청각의 혼란이 없는 한 몇 초 동안 지속되며 쾌적하게 울린다. 12개의 관용적인 장음계의 모든 단계에 대해 나타나는 음들을 하나의 합계가 생겨나도록 합산하면, 하나의 5도권의 도식 내에서 이 값들이 종선(Ordinaten)으로 기입되며 그래서 C장조보다 밑에 있고 F장조보다 위에 있는 대칭적인 곡선이 하강한다. 이 곡선의 최소값은 C와 F 및 F#과 B의 쌍방의 으뜸화음 위에 있다. C장음계의 음들이 가장 많이 청취 가능한 데서 출현하며 다른 것들의 출현빈도는 5도권의 멀어짐과 함께 감소한다.

11. 습관과 연습

음악적 청취는 또 다른 요소들, 즉 여태까지 언급된 것 보다 더 깊이 인간의 정신

상태 속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한다. 물론 이 경우들도 다시금 더 단순해지거나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것은 계속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청취에 있어 우선적으로 습관과 연습의 요인은 중요한데, 하나의 작품이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을 준다는 것은 어려워, 즉 최초의 인상은 감격아니면 그 반대인데, 수차례 청취, 직접연주, 혹은 가려냄으로써 실질적 파악과 최선의 청취가 생기는 것이다. 걸작품들도 계속 들려지고 연주되어 외위되면 인상이 무너지고 싫증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최선의 조건은 적당한 휴지(Pausen)를 파악하여 청취를 지속하는 것이다.

12. 개인적인 체험상태

한 작품은 개인적 삶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청취된다. 그것은 지속적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잡다한 요소들과 연상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전체적 정신상태의 상징적 소지자가 된다. 그와 함께 동일한 작품에 대한 모든 앞으로의 청취를 위해 결코 도외시킬 수 없는 감응력이 성립된다. 각 사람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소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체험 통일체가 형성되며 근원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상이한 요소들이 하나의 생생한 통일체로 융화될 수 있다. 그 결합은 그것 자체가 재현의 어떤 일정한 형식에 부착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감정적이고 체

험적인 인상들이 하나의 템포, 리듬, 디이 내미, 악절구분과 연결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러한 기초에 근거한 나중의 인상은 처음의 인상과 같지 않은데,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감정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취 자체는 순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정신태도에 의해 조절된 것이다.

13. 작곡가의 개성에 대한 인식

음악의 유형은 경험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 개인적, 편파적 성격을 띤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작곡가의 개성, 운명, 감정, 행동, 음악관 혹은 여타 문제들을 보는 관점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청취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이유있는 일인 것이다. 그것들은 아무에게나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사람들에게 읽힌다. 이를 통해 그것은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만들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베토벤의 완고성, 반항심, 충돌성을 그의 삶의 역사에서 알게 된다면 이 大家의 節分法, 그의 양식상의 강렬한 대상성이 완전히 다르고, 명료하게 들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들이 나타난다. 슈베르트의 夭折은 그 자체로는 벨랑콜리한 것이 전혀 없는 많은 가곡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예감으로 가득찬 것으로 들리게 한다. 바하의 경건하고 프로테스탄트적인 확신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그의 전주곡과 푸가에 담겨 있으며 바그너의 낭만주의적 형식들

은 그의 개인적 삶을 싫어하는 이들에게는 너무 길치레하고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든 질적, 양적으로 해를 끼치는 판단들도 비음악적 제기에 근거하는데 모든 음악의 추상적 성격을 놓고 볼 때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다. 가령 어느 유명한 학자가 우리와 동시대의 아주 유명한 작곡자의 작품을 '매우 단순하다'고 평하고 또 다른 이의 것을 '매우 심오하다'고 평하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현재의 공개적 비평도, 이러한 경우의 역사도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14. 신문을 통한 암시

모든 사람이 영향받는 암시도 청취와 해석을 위해 중요하다. 어느 대가가 신곡을 초연한다는 신문, 잡지의 광고문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긴장과 호의적 기대로 가득차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회의와 억제를 불러 일으킨다. 두 사람은 듣고서 나중에 신용있게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그들의 귀와 비평은 이미 先決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쇄된 프로그램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존경하는 대가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바하의 귀, 베토벤, 슈베르트, 혹은 슈만의 귀로써 듣게 하며 반면에 유명하지 않는 '신인의 이름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귀를 억제되고 소극적인 수용기관으로 만든다. 통보되지 않고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면 직업적 비평가는 곧잘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우의 실례는 흔하게 나타나는

데, 프로그램상에서 레거와 말러의 작품들을 발견하고서는 미리 두 대가의 차이점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어떤 외적인 이유로 레거만 연주되고, 마지막 순간에 유명한 작품 하나가 연주되지 않는 경우를 당하는 평론가의 운명을 우리 각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취는 하나의 복잡하고 정신이 관통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5. 소박한 청취와 반성

예술은 언제나 직접적인 것이며 무반성적으로 취해지길 원한다. 꼬치꼬치 따지는 사고작용이 시작되면 청취도 해를 입는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고작용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 소박하고 직접적인 청취자란 음악 자체도, 이론도, 음악史와 음악 美学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엄격한 논리적 思考活動이 作用하는 것을 찾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근원적이고 소박한 체험이 음악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데서, 人間 전체가 음악에 전념하여 오로지 음악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러나 오래고 근본적인 사고활동이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소박한 청취가 더 높은 단계에서 성장하는 데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한다. 이 가장 섬세한 예술은 실제적 단계 뿐만 아니라 사유적 단계를 통해서 그 후광이 획득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이 견해는 단지 청취는 탐구적 비판적인 제 2의 단계(이것을 통해 청취가 세밀히 논

구되어야 한다는)에 들어있다는 것의 표현일 뿐이다. 진실로 예술적 소양이 있는 자에게는 제 3의 단계가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생긴다. 음악은 인간 정신의 가장 섬세한 부분을 배려하여야 하며 悟性이 음악을 해부하기 前에 우선적으로 부드럽고 무비판적이고 소박하게 청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적 비평가는 영원한 분열로 차 있다. 그는 더 이상 소박하게 음악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경청해야 되고, 이해·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념적으로 개선하여 이해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원하든, 아니든 문헌에서나 발견되는 하나의 용어법을 강요받는다. 이 말하기 곤란하고 정의내리기 힘든 인상을 쉽고 감미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 대가와 그의 작품에서 가치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펴보이기 위하여 이해가 힘든 개념들과 아주 특수한 비유와 상징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비평가는 소박하게 체험해서는 안 되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갖는 셈이다. 정신과 기지, 경험과 지식을 풍부히 갖고 있는 훌륭한 비평가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들의 인간 됨됨이에 보편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소박하고 선입전에서 해방된 청취자는 아니다. 이미 그들은 수년 동안 자신의 용어학적 재물을 순전히 개인적, 개성적 성격의 비유적 개념들을 만들어 왔고 이 도식 속에 예술이 환대 또는 멸시받는다.

16. 객관적 판단

음악을 정당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시대 양식에 공정하고 음악으로 하여 정신의 자연적 성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예술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될 수 있다 해도, 대가들과 양식들의 전 계열을 하나의 동질의 무리처럼, 객관적 실태의 규칙적인 세계처럼 관찰할 수는 없다. 누구나 개인적인 편애로 하여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며, 또 어떤 이는 모든 유명한 대가들을 승인한다. 부조니는 고대가 이론적으로는 침몰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천적으로 조율의 모든 형식들이 그의 작품에서 들을 수 있고, 사용되고 있다. 그의 도전적 시도는 그에 있어 진보요, 독창성, 이상이였다. 고대에서 사용된 형식들은 그를 지루하게 하여, 그의 자유롭고 야생적, 무형식적 판타지는 현대 작곡의 다소 혼돈스런 무질서에서 장래를 위한 무한한 풍족과 가능성을 주었으며, 그는 청취로써 그것을 이해했다.

17. 음향학적 사실들

청취는 처음 보기엔 음향학적이기만 하나 자세히 보면 지각개념의 복합적, 중심지향적인 것에 관련되는 요건이 있다. 오늘날 조율된 음체계는 특수하게 획득된 전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① 귀의 청취영역 - 평균적으로 11옥타브에서 12옥타브까지를 음향학적으로 파악하나, 피아노의 경우 단지 7옥타브가 사용

되며 이 범위는 지각가능한 전체음계의 낮은쪽에 치우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낮은 음들(아래 이점음 A[#]~C)을 높은 옥타브에 있는 음들과 무게, 중력측면에서 동가라고 볼 때, 하나의 균형과 대칭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② 옥타브 내의 영역(1點音 옥타브) - 사용범위 내의 첫째 옥타브는 미학적으로 볼 때 전체 음계의 균형영역이며, 실질적인 주가 된다. 또한 낮은 음과 높은 음에서 느끼는 속성(무거움과 가벼움, 안정과 유희, 진지성과 유희성 등)이 풀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③ 표준음 - 이 기점의 확정이 처음에는 1885년 '비인협정'을 필요로 하였다. 定位되지 않고 상대적인 청취는 음의 높낮이를 구별할 수도 있으나 단지 어느 한계 내에 서이며 절대적인 점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절대적 높이(평균음에 의한)를 갖고서 어느 일정한 음조에 묶여 있는 작품들이 전혀 다른 음조로 들렸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평균음의 변동은 청취 및 그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바하 이후 표준음의 평균치를 따라 낭만주의 전성기에까지 정도가 심해져 갔다. 더 높은 조율을 우대하는 경향은 바그너 서거 2년 후인 1885년 표준음을 여태까지의 변동 중앙치에 고정시켰고 그것은 화성법의 위기극복, 중세이래 일면의 집중적 발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식은 사실상 새로운 가능성이 고갈되었던 것 같으며 양식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④ 논의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음계의 음들-표준율 이외의 음들(인지되지는 않으나 역할있는), 가령 맨처음의 F음은 자연음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많은 물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에서 가장 낮게 인지되는 기본음이라는데 증명되지는 않았다. 대가들이 F장조하면 자연스럽게 전원적 음조로 생각하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 하다. 음의 낮음은 무기력, 침강을 의미하고 높음은 상승, 고양을 나타낸다. F를 중심으로 9화음 F-C-G를 관찰한 확인들은 19세기의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낭만주의 전성기까지〈트리스탄과 이졸데〉〈니벨룽겐의 반지〉시대까지 이루어졌다. F-C-G의 9도는 동일한 화음에서 轉調된 것마다 그에 상응하는 기초(C), 상승(G), 하강(F)을 단 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낭만주의 전성기는 5도권과 그것의 화성악의 완성을 이루었는데 9화음은 이 완성을 대표한다. 낭만주의 전성기는 음악, 또는 음악가 개인에 한정될 수 없는 하나의 운동이요 정신태도였다. 그것은 그 전

시대를 지배하였으며, 동시에 살고 있는 대가와 더 가깝게 관계를 맺지 못한 귀에게도 開示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문제되는 음들의 주관성을, 우리의 음악에서 결정적 발전단계를 이루는 어떤 정신태도의 근거에 대한 경청을 옹호한다. 그것은 그리하여 청취의 어떤 방법에 대한 체계의 기초와 함께 빛을 가져다 준다.

* * *

여기에서 우리는 「청취」에 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 보았다. 이것들을 토대로 청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음악을 접하면 여러 형식의 악곡들이 보다 분석적이고 깊이있게 우리의 지각 속에 침투될 것이다. 음악을 알고 느끼는 제1의 단계는 청취이며, 올바른 청취의 습관이 있고 나서 더 발전된 평가와 모방, 창작이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더 좋은 의미의 활력소가 되는 한 방편으로 음악을 느끼게 되며 그 속에 침잠할 수도 있는 것이다.



舊韓末 日·露의 38線 分割陰謀



박 현 종

호서 역사연구회 연구원

目 次

- I. 日·露의 協商
- II. 웨베르, 小村覺書
- III. 로마노프의 外交
- IV. 日帝의 38線 分割提案
- V. 로마노프·山縣 議定書
- VI. 分割陰謀의 反應과 餘毒

I. 日·露의 協商

1896년(高宗 33년) 2월 11일 이래로 고종을 자기네 공사관에서 보호하게 된 러시아는 겉으로는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왕실만이 아니라 조선의 國政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전날 요동반도를 둘러싼 청·일 분쟁의

와중에 뛰어들어, 일본이 요동을 청국에 되돌려 주게 하고 그 뒤로 청국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던 러시아로서는 또 하나의 수확을 거둔 셈이었다. 이로써 극동 아시아에 팽배하던 일본의 세력을 일축한 러시아는 청국과 조선의 보호자임을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이다. 쇄국(鎖國) 조선의 문호를 가장 먼저 개방시킨 일본으로서는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국력이 좌우한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기엔 일본의 국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토오(伊藤博文) 내각은 러시아를 假想의 적국으로 정하고 10개년 계획의 군비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전국민에게 상비병 15만에 전시병력 60만을 목표로 한 대육군과 22만톤의 무적 해군을 보유하자고 호소, 청국에서 받아들

일 배상금과 정부 세출예산의 40% 이상을 그 확장비에 충당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군비확장의 열의가 고조에 이른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서울의 아관파천은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일촉즉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 맞설만큼의 충분한 국력이 아닌 그들은 더욱 군비 확장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외교교섭에 의한 타협과 절충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도쿄, 서울, 모스크바 등 3개국 수도에서 일본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진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조선에서의 양국 세력의 균형을 위한 협상을 벌이려 하였다. 일본은「조선국 독립의 공동담보와 내정의 공동감독」이라는 기초에 의거, 對 러시아 협상의 기본방침 3개 조항을 통지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① 국왕(조선)의 환궁을 촉구하되 앞으로의 안정보장 ② 양국대표가 국왕에 권고하여 불편부당(不偏不党)의 인사를 내각의 자료로 등용케 하고 ③ 流血보복이 없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을 일본·러시아 양국이 공동보호·감독함으로써 서로의 세력균형을 이루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웨베르·小村覺書

일본정부의 위와 같은 기본방침은 覺書형식으로 도쿄주재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Hitrovo)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전달되어, 같은 해 2월 회답은 외부대신이 모스크바 주

재 일본 공사 니시에게 구두로 전달, 3월에는 문서화 되었다.

그 내용은, 제 1, 2항은 일본정부의 제의에 반대치 않음을 나타내고, 제 3항, 양국의 대표자는 전선(電線)의 보호를 위하여 아직도 외국군대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線路에서 어느 정도 군대가 필요한지 조사하여야 될 것이다. 제 4항, 양국대표자는 필요한 경우 양국 공사관 및 영사관의 보호를 위한 조처에 대해 상호협의를, 제 5항 이상의 담판은 쌍방이 和協·절충하는 정신으로 추진할 것이다. 제 3항 이하는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제안으로써, 전선의 보호를 구실삼은 일본군대의 주둔과 행동이 조선도처에서 반감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빚어지는 유혈충돌이 빈번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에 화협하는 정신을 잊지말자는 것으로서 일본정부의 신경질적인 기우에 반하여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관용과 아량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후일 「노·일전쟁」의 불씨가 들어 있다. 그것은 일본군의 조선주둔 문제이다. 즉 일본군 철수시사를 적당한 구실 아래 시일을 끌려고 한 일본정부의 태도이다. 어쨌든 다음날(3월 3일)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동의회답을 발송, 당면한 조선문제는 ① 목전의 현실 시인 ② 금후 공동보조로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의 상호타협이 표면상으로나마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3월 4일 이또·히트로보 협상회담이 있고 구체적인 협약체결은 양국의 조선

주재 공사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웨베르공사와 고무라 공사의 협상 진행으로 제 1차 「노·일협정」인 「웨베르·고무라 覚書」가 5월 14일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1. 조선국왕은 단독재량에 의해 환궁할 것이나, 양국 대표자는 폐하가 환궁하더라도 안전에 대해 의구를 품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궁을 권고할 것이며, 이 경우 일본대표는 일본인 壯士의 단속에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보증한다.

2. 현직의 내각대신은 조선국왕이 자유의사로 임명한 인물이 대다수인 바 그들은 과거 2년간에 국무대신 및 기타의 현직에 있으면서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로 양국대표는 폐하에게 관대·온화한 인물을 내각의 대신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관인한 태도로 그들 臣民을 대할 것을 항상 권고할 것이다.

3. 조선의 현황으로는 부산·서울 사이의 일본 전신선 보호를 위하여 일본수비병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3개 중대로 편성된 수비병들은 가능한 조속히 철수시키며 그 대신 헌병을 대구 50명, 가흥(可興) 50명, 부산·서울 간의 10개 파출소에 각각 10명씩 배치한다.

위의 배치는 변경할 수도 있으나 헌병대 총수는 결코 2백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들 헌병도 장차 조선정부가 안녕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각지에서 점차 철수할 것이다.

4. 조선인으로부터 습격 당하게 될 경우

에는 서울 및 각 開港場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에 2개 중대 부산·원산에 각 1개 중대의 일본군을 배치할 수 있다. 단, 1개 중대의 인원은 2백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비중대는 각 거류지의 가장 근접한 곳에 屯營할 것이지만, 조선인으로부터의 습격에 대한 우려가 없게 되면 철수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공사관·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도 위의 각 지역에 일본군의 인원수와 비등하게 수비병을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비병은 조선 국내가 완전히 평온을 되찾을 때 점차 철수할 것이다.

이상의 각서 내용은 일찌기 「갑신정변」 직후에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또오·이홍장이 체결한 「천진조약」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청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하였던 천진조약에 비해 이번의 제 1차 협정을 비롯한 앞으로의 일·로협정은 반대로 일본에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천진조약 당시에 비해 보다 근대 제국주의에 성숙한 일·로 양국은 위의 협정을 공고히 할 생각은 없었다. 특히 일본측은 로마노프가 「만주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利權외교사」에서 분석·지적한 대로 위의 각서가 「러시아가 차지한 승리는 명료하게 형식화된데 반하여 일본측에는 어떤 유리한 특권도 없는 협정」이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조인된 협정이었으나 일본측으로 보면 아무 소득도 없으므로 근대 열강세력의 일원임을 자처한 일본의 야망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근본적인 권익의 타협을 기도

함으로써 조선의 식민지적 분할을 획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계기로 일본의 전권대사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로마노프(러시아 외상)에게 조선을 38도선에서 남북으로 분할·점령하자는 비밀 제안까지 강행하게 된 것이다.

Ⅲ. 로마노프의 外交

1896년(高宗 33년) 5월 26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전에서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 세계 20여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초청장은 중국·일본·조선의 동양 3국에도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궁내부 특진관 민영환을 특명 전권공사로, 학부협관 윤치호와 김득련·김도일 등을 수행원으로 하여 대관식에 참석하였으며 청국정부는 이홍장(북양대신) 일본 정부는 군벌의 거물 야마가타를 전권대사로 모스크바에 파견하였다. 낮에는 대관식을 위한 여러 의식과 축하행사가 진행되고 밤이면 당시의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의 용의주도한 배려에 의해 공개·비공개외교전이 불꽃을 튀기었다. 로마노프의 관심은 서쪽으로 발칸반도의 군소국과 동쪽으로 조선·청국·일본에 쏠려 있었다. 그 결과 후일에 알려진 로마노프의 동양 3국과의 교섭·절충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전권 민영환이 제의한 원조요청에 대하여 조약체결이 아닌 회담의 형식으로 5개 조항을 약속하였다. ① 조선국왕

은 러시아 공사관에 체재하는 동안 러시아 수비병의 호위를 받으며 환궁할 경우의 안전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도덕적 보증을 책임진다. ② 군사교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러시아 고급장교를 경성에 파견. 조선국왕의 친위병을 편성하는 일을 맡게 하고, 재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③ 러시아 고문의 파견문제는 제②항에 따르며 ④ 차관약정은 조선의 경제상태와 조선정부의 필요 여부가 판명되는대로 기도(企圖)될 것이다. ⑤ 러시아의 육상 電信을 조선의 전신선과 연결할 것을 승낙, 원조 시행할 것이다.

둘째, 만주와 조선에 대한 일본세력 배제를 위해 시베리아 철도의 만주횡단을 위한 「東清 철도」부설의 밀약체결을 서둘러 청국의 이홍장과 러시아의 로마노프 간에 유효기간 15년의 「청·로 밀약」을 조인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 일본이 기도하는 일체의 침략에 양국은 모든 육·해군 병력을 동원하여 상호원조함 ② 양 체약국은 그 적국에 대해 단독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③ 청국항만을 러시아 군함을 위해 개방·원조함 ④ 청의 길림·흑룡성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철도건설 인정 ⑤ 러시아의 철도사용 자유 ⑥ 본 조약은 15년 유효」 등이다.

이상의 밀약 제4조 규정에 의거 동청철도회사가 설립되었다.

세째, 로마노프는 조선과 청국에 이어 일본의 야마가타를 상대로 조선의 식민지적

분할을 위해 중대한 비밀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다.

IV. 日帝의 38線 分割提案

앞서의 언급대로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1차 노·일 협정체결에 이르긴 했으나, 일본측에 불리한 것을 아는 일본은,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다소나마 보유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의 협상이 당면 실정이었다. 조선에 대한 러시아와의 권익분배나, 관계열강의 공동 간섭 아래 조선의 문호개방과 권익 획득의 기회균등을 단행하든가, 아물든 러시아만의 독점지배를 배제하도록 절충·타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분할 음모가 러시아측에 제외된 것은 같은 해 5월 2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와 야마가타의 제 1차 비밀회담석상에서인데 정치·경제·군사 등 주요 부문에 있어서 권익의 공동분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야마가타의 제외내용 중 지나칠 수 없는 중요사항은 제 4항 5항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④ 현재 일본국 정부의 소유인 전신선은 조선국 정부가 이를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국 정부가 계속 관리.

⑤ 내우·외환 때문에 조선 국내의 안녕 질서가 매우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가 협의한 결과 전신선이나 거류민 보호를 위하여 조선에 파견된 군대 이외에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본·러시아 양국은 양국 군대의 총돌을 피하기 위하여 각기 군대의 파견지를 분할하되 남부와 북부로 파견 양 군대간에 상당한 거리를 둘 것이다.

조선의 안녕 질서가 문란하다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구실로 전선이나 거류민 보호를 위한 주둔군 이상의 군대파견이 필요할 경우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본·러시아 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남의 나라를 38도선 근처에서 남북으로 분할, 점거하자는 군대 제국주의 일본의 歴史的 凶謀였다. 그런데 러시아의 태도는 일본보다 더 엉큼한 것이었다.

일본의 제안을 받은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는 「총돌회피」 운운에 대체로 같은 뜻을 표명하면서도 가부간의 확실한 답은 잠시 보류하고 러시아 정부, 특히 군부의 견해를 종합 타진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태도는 로마노프의 「만주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이권 외교사」에 이렇게 요약되었다.

「조선국의 운명은 러시아 제국 장래의 組成地域으로 지리적·정치적 조건을 기초로 내가 판단 예정한 판도이다. 그런데 일본에 남부지역을 조약에 의해 양도한다면 러시아는 전략 및 해군군사관계상 조선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포기하여 장래 러시아의 행동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정러시아의 야심은 이미 조선의 전부를 침략, 독점할 예정이므로 서울을 포함한 그 남반부를 일본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노프는 같은 해 6월 4일의 제2차 비밀회담에서 위의 일본측 제안 가운데 제5조에 대하여 「남북」 2자의 삭제를 주장함으로써 장래의 자기 속박을 회피하려 하였다.

V. 로마노프 · 山縣 議定書

1896년(고종 33년) 5월 28일과 6월 9일 일본대표 야마가따와 러시아의 로마노프 사이에 조선에 관한 密約이 성립되자 그들끼리 작성한 의정서에 조인까지 완료하였다. 내용은 공개조관이 全文 4개조 비밀조관이 2개조이다.

1. 공개조관

제1조, 일본·러시아 양국정부는 조선국의 재정곤란을 구제할 목적으로 조선국 정부에 대하여 일체의 경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그 세출입의 평형을 보전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만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개혁 때문에 外債를 모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선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제2조,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는 조선국의 재정 및 경제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外援을 빌리지 않고 조선국 내의 질서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선인으로서 조직되는 군대 및 경찰을 창설하고, 그 유지를 조선국에 일임할 것이다.

제3조, 조선국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이 현재 점유

하고 있는 전신선을 계속 관리할 것이다. 러시아는 경성으로부터 그 국경에 이르는 전신선의 架設權을 유보한다. 또 조선 내의 모든 전신선은 조선정부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는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前記의 원칙으로서 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定義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후일에 상의를 요하게 될 기타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양국 정부의 대표자가 우의적으로 이를 타협할 수 있도록 위임될 것이다.

2. 비밀조관

제1조, 원인 불문하고, 만일 조선의 안寧질서가 문란케 되든가, 장차 문란케 될 위구가 있으므로, 만약에라도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가 양국 신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전신선 유지의 임무를 소유한 군대 이외에 자기 합의를 얻어 군대를 다시 파견하여 조선관현을 원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국정부는 그 군대 상호간의 모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군대와 군대 사이에 전혀 非占領의 空地를 存置하도록 각 군대의 用兵지역을 획정할 것이다.

제2조, 조선국에 있어서 본 의정서의 공개조항 제2조에 기재한 조선인의 군대를 조직하게 될 때까지는 일본·러시아 양국이 同數의 군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권리에 관하여 웨베르·고무라 두 사람이 기명한 假協定은 그 효력을 보유할 것이며, 조

선국왕의 신변보호에 관하여 현존하는 상태 또한 그 임무를 가진 조선인으로 호위대가 창설될 때까지는 모두 다 이를 계속할 것이다.

위와 같은 로마노프·야마가따 協定이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문제에 대한 일본·러시아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볼 때 그 공개된 내용은 앞서 웨베르·고무라 협정에 기록된 것처럼 「양국정부는 조선국 정부가 외채를 필요로 할 경우 공동으로 원조한다」라는 조항을 재확인한데 불과하다.

비밀협약에 있어서도, 일본측이 제안한 38선에서의 남북 분할안이 표면상으로는 일단 거절당하고, 장차 필요에 의하여 공동 점거하기를 약속한데 불과하다. 그 약속마저 아주 막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지금껏 조선에서 차지했던 일본의 「우위」와 「특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고 그 반면에 러시아가 새로이 획득한 권익은 조약의 명문규정에 의해 보장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의정서 조인을 마친 양국 정부 관계자의 술회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 역시 그것의 이·불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일본측의 술회를 들어보면 의정서 체결의 주역인 야마가따 자신은 「비상히 선고·진력하였다」고 고백한다. 그와 함께 활약했던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니시 도꾸지로오는 보다 더 솔직이 고백해서, 그들이 조인한 「모스크바 의정서가 만족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

을 수도 없었다」고 전제한 다음 「국왕의 환궁」이나 「조선병사의 훈련」 같은 중요 문제에 있어서도 뜻대로 용인되지 않으므로 「합의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의정서로 작성, 조인한데 불과하다」고 말한다.

러시아측 입장은 로마노프의 「만주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이권외교사」에 재무상 위례는 「지극히 성공적인 것」으로 전제, 「일본측 대표자는 기꺼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재정 고문관을 임명치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세력분할이 확고하게 되었으니 소득이 컸다」고 과시하였다.

다음은 그들의 비밀협정에 관한 후일의 논평이다. 로마노프가 일본의 제안 「38선에서의 남북 분할안」을 표면상 거부한 점에 대해 랭거는 그 이유를 첫째, 미·영국이 그 분할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니 곤란하다. 둘째, 조선은 정치적·지리적으로 러시아제국의 예정된 판도로 남부의 요지를 일본에 할양할 수 없다. 세째는 조선왕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수차에 걸쳐 공언해 온 만큼 당장의 남북 분할안을 수락하기는 거북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 일본의 러시아 주재 공사 니시 도꾸지로오의 보고에서 보면 러시아의 태도에 관해 첫째, 지금 러시아로서는 단독·공동간에 조선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영국이나 기타의 세력과 예상치 못한 교섭을 갖게 할 뜻이 없었다. 둘째, 현재로는 일본과 함께 조선국을 남북으로 분할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장차 조선국의 독립이 유지될 수 없게 되든가 일본 세력이 강성해져서 항쟁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동분할」을 사양치 않을 것이다. 알고보면 문제의 「남북」 2자는 일본이 시험삼아 러시아에 던져본 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니시의 견해는 곧 당시의 러시아 태도가 실상 앞으로의 정세변동에 따라 분할·점거도 사양하지 않으리라고 일본에게 간파됐음을 알려준다. 또 후일 러시아 측이 38도선 분할을 제의함으로써 니시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이렇듯 조선에 대한 러시아측의 침략야욕이 지대하였음을 증언한 이외에 니시의 언명은 「시험삼아」서라도 남북 분할의 제안을 일본측이 감행했다는 것을 생생히 밝혀주고 있다.

실로 러시아와의 식민지 경쟁 때문에 일국의 왕후인 민후를 시해하고 한 나라의 국토를 양단, 분식하려 한 일본의 야망은 너무도 흉악한 것이었다. 더한 것은 후일 고종의 환궁(1897. 2월) 이후에 내외정세가 변동되자 조선과 러시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재빨리 모스크바 밀약내용을 조선 정부에 통보한 수법이다.

이렇듯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일본의 외교전이 불꽃을 튀기고, 또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충격적인 것임을 조선정부의 요로에선 얼마나 파악하고 대처했는가.

VI. 分割陰謀의 反應과 餘毒

민영환 공사일행이 특파사절로 모스크바

까지 왕복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조국에 대한 중대밀약이 민공사가 모스크바에 체재할 때 진행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듯 싶다. 조선 정부에 알려진 내용은 다만 의정서의 공개된 사항 뿐으로 일본측이 제기한 남북 분할안 같은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일본 양국이 「보호」 운운한 점만이 어느 정도 알려져 당시의 유일한 「독립신문」에 실리고 논설로 이익을 제기한 적이 있다.

1. 1896년(고종 33년) 5월 14일자 「독립신문」은 「외국통신」란에서 「일본신문이 러시아·일본이 조선 일을 같이 보아주자고 하는 담판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였다」라고 보고, 처음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2. 같은 해 5월 16일자 논설에서 「보호」 운운에 관해 논박하였다.

근일 일본 신문들에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같이 보호한다는 말이 많이 있으며 우리 생각에는 이 말이 실상이 없는 것 같거니와 원치도 않는다. 조선이 독립국이라면, 독립국으로 행세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할 것이다. 남의 보호국이 된다면 독립은 없어지는 것이다. 조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조선 일을 任意로 몇 백년을 해왔다.

근년에 청국이 원세개를 보내서 조선 정부의 일을 다 아는 척 한 것은 조선 정부에서 자청한 일이다. 일본과 청국이 싸운 후에는 조선이 독립되었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인 즉 일본의 속국이 됨과 같은 것이다.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모두 일본 공사관에서 조처하였으니 독립국에도 남의 나라 사신이 그 나라 정부의 일을 결정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우리 생각에는 조선이 조선인의 나라인 만큼 외국사람과 교제를 하더라도 조선 사람 생각을 먼저하고 외국 사람은 둘째로 해야 한다. 이 생각을 다만 하나나 둘만 한다하여 나라가 잘 될 수는 없다. 전국 인민이 모두 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

3. 같은 해 5월 16일자에는 「러시아의 서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신문 노브스디가 보도하기를 러시아는 조선을 차지할 경황은 없으나 다른 나라가 차지하게는 못할 것이다. 조선국왕이 환어하시오 정돈되면 러시아 군대는 서울에서 내보낸다」고 하였다.

4. 5월 28일자 「논설」에서는 일본신문이 보도한 모스크바 의정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평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이 근일에 조선일로 하여 담판을 가졌는데 내용은 첫째, 조선 대군주 폐하께서 환어하시는 일, 둘째, 조선에 있는 일본 군사를 모두 돌려 보내는 일, 셋째, 일본이 조선에 놓은 전신을 모두 조선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만일 러시아와 일본이 이 세가지 일을 인연하여 작정한 후에 약속대로 조선 독립을 두 나라가 서로 밝혀서 한 나라도 조선독립에 해롭지 않게 하며, 만일 한 나라가 약속을 저버리고 무리한 일을 하려들면 또 다른 나라가 그것을 탄하여 조선을 도와줄 것이므로 우리는 이 약조가 잘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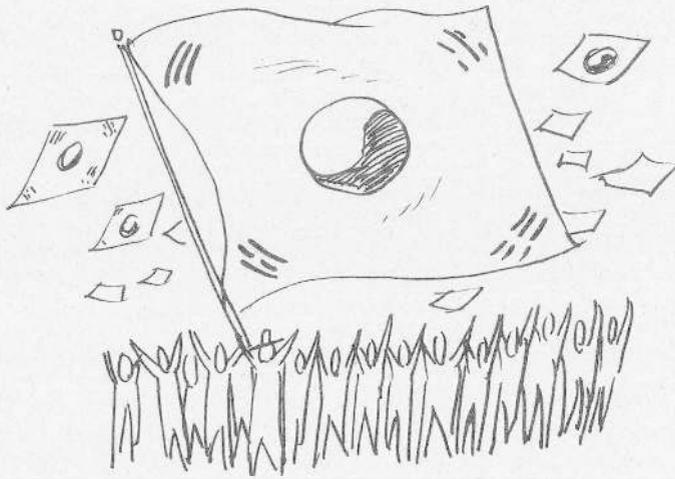
5. 6월 9일자 「외국통신」에는 논평 없이 프랑스 신문에 말하기를 독일·영국·미국공사들이 러시아 외부대신 로마노프 공계 시비하기를 러시아가 조선 일에 너무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시비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들이 실상 뜻을 들어 본 것이요, 또 독일공사는 당초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조선 일 때문에 각국에서 조금 치도 걱정이 없고 다 바라기를 러시아·일본이 합력, 조선 독립을 보존케 하고 또 局外 중립국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독립신문」 기사 및 논설 정도가 모스크바 協定에 대한 조선관민 상하의 代表的인 지식이자 견해이며 또 주장이었음에 틀림없으니, 外紙가 보도한 「보호」 운운에 이의를 제기하다가도 공개된 그 내용을 보고는 국왕의 환궁과 외국군의 감병설에 찬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다. 나아가 특파사절 민영환 공사가 귀국한 뒤의 「독립신문」 논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공사일행을 치하하고 러시아 장교의 초빙을 찬양하였을 뿐, 모스크바 협정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조선이 남의 나라처럼 사신을 보냈으니 양국교제상 매우 유익한 일이며, 둘째,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공사를 유럽에 보내 자주 독립국임을 알렸으니 나라의 경사이고 셋째, 러시아의 육군교사를 얻어왔으니 조선 군사도 짜임새 있는 규모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조선의 관민 상하는 이렇게 러시아의 「호

空 軍 漫 評

〈 8. 15 광복절 〉
새시대 새희망 광복정신 이어간다



의」와 「우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군사고문이 오든 재정고문이 오든, 오로지 환영 일변도로 기울어, 이를 시기하는 일본측은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일 것이며, 구미의 열강 역시 수수방관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협정이 공포된 이래 일본·러시아의 밀약 부분을 상세히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 된 세계 열강은 너나 없이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조선의 천연자원과 근대적인 이권을 상대로 격심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빈사

상태에 이르도록 난맥에 빠진 조선왕조의 정부는 열강의 침략정책에 주권과 국토를 통틀어 억울한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위에 인용했던 1896년 5월 28일자 「독립신문」의 논설 중에는 「우리가 짐장이는 아니로되, 조선 정부에서 아주 발을 벗고 나서서 백성만 위하여 일을 아니한다면 몇해가 아니되어 이것을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노라」라고 경고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編輯 後 記

○...토마스 카알라일은 수년에 걸쳐 집필했던 그의 역작 “프랑스 혁명사” 원고가 하녀의 실수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벽난로 속의 재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좌절과 실망은 극도에 달하여 삶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으나, 어느날 벽돌공이 커다란 성채를 짓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각성 끝에 한 장씩 원고를 다시 써 내려가 후일 더 훌륭한 저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크고 엄청난 성과만을 기대하면서, 손쉬운 일조차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착실한 걸음걸이가 허둥대다가 오래 주저앉는 것보다 훨씬 목표지점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숲을 볼 줄 아는 큰 눈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겨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굳은 소명감은 작고 하찮은 우리의 일과에서도 진주와 같이 귀한 이상과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공군” 198호가 제작되어 가는 동안 우리 공군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F-16 신예기의 실전배치는 우리의 공군전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는 뜻깊은 일이었는데, 이러한 우리 공군의 경사처럼, 앞으로 발간될 “공군”도 면모 일신하여 더욱 알차고 내용있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將兵 投稿 환영

「空軍」은 空軍 유일의 將兵教育 및 教養誌이며 장병 여러분 자신이 꾸미는 잡지입니다.

평소 병영생활과 자신의 日課를 통하여 느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여 보내주거나, 軍發展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등을 모아 투고하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玉稿를 게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文芸作品도 물론 환영합니다.

〈投 稿 要 領〉

- 枚 數 : 200자 원고지 20~40매 정도
단, 論文은 제한 없음
- 마감일자 : 제한 없음
- 보내실곳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정훈감실 「공군」
담당(우편번호 151-01)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으나, 부지불식 중에 적의 전략정보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그런 일 없도록 책자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제198호

1986년 8월 10일 인 쇄
1986년 8월 15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관